

중국을 주께로

97/5·6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넬(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02-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7. 4. 20/ 등록일: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45호



특집 /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가정의 달 기획 / 중국의 가정

중국동향 초점 / 가속화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분리운동

중국문화 / 떠들썩한 중국의 결혼풍습

자료실 /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97년 5월 24일
중국 단기선교 준비 세미나

중국 단기선교는 어떻게?

짧은 기간 안에 효과의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단기선교.

선교의 제약이 곳곳에 북병처럼 도사리고 있는
중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의 입수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중국 단기선교를 계획하시고 있는 분들을 위해,
중국 단기선교 여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 제 중국 단기선교는 어떻게?

일 시 1997년 5월 24일(토) 오전 9:30~오후 7:00

장 소 여한기독교한성중화교회 본당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앞)

참가대상 각 교회 해외선교 담당자, 청년 대학부 담당
목회자 및 실무자, 선교단체 실무자,
그 외 중국 단기선교를 계획하는 모든 사람

참가비 25,000원(5월 17일까지 사전 등록할 경우 2만원)
교재 및 점심식사 제공

입금계좌 한일은행 081-136946-02-102(권수영)

신청·접수 담당자 이민선 간사

주 최 중국어문선교회(T. 533-5497, 592-0132)

중국의 미래 전망과 하나님의 계획

이동화

덩샤오핑이 지난 2월 19일,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과 더불어 중국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지금 정중동(靜中動)의 권력 투쟁에 들어가 있다. 아직은 6·4 천안문 사태 8주기와 10월로 예정된 제15기 공산당 전국대표 회의의 인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으나, 일단은 현 장쩌민(江澤民) 체제의 존속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는 것 같다. 이것은 마오쩌둥 사망 직후의 혼미상과는 대조되는 것으로, 중국의 미래 전망지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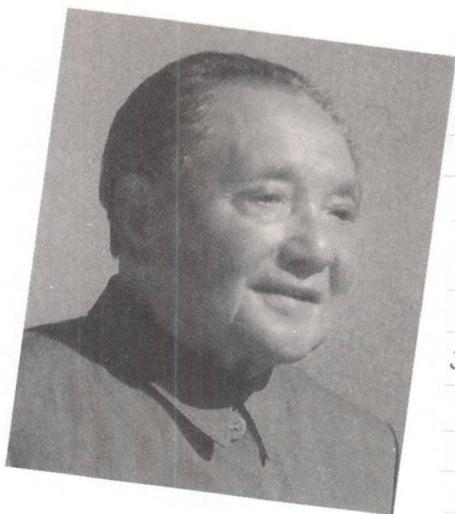
중국의 미래 전망지수, 즉 중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예측 가능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중국 현대사의 일대 발전이며, 이것은 덩샤오핑의 실용주의 노선에 힘입은 바 크다. 실사구시(實事求是)로 대변되는 그의 실용주의가 사회주의 중국으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받아들일도록 하여 이제 그것이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현재의 개혁개방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의 향후 정치적 전망인데, 이것은 경제적 전망처럼 간단하지 않다. 거기에는 6·4 천안문 사태 재평가 문제를 위시하여 티벳과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독립 움직임, 홍콩의 1국 2체제(一國兩制) 성공여부, 대만 문제 등 숱한 난제가 가로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21세기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보다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나라로 변모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 중국 고위 간부가 언급한 '10년 주기설'이 흥미를 끈다. 이 주장에 의하면 덩샤오핑 집권 이후 첫 10년은 '개방'이 중국의 정책 기조였으나, 그것이 64 천안문 사태를 계기로 '안정'으로 바뀌었으며, 그것은 다시 2000년을 전후해서 '자유'로 대체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안정'이라고 표현된 과도기적 정책 조정이 경우에 따라서 10년보다 길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10년 주기설'에서 말하는 개방, 조정, 자유라고 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민주화 경험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중국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죽었다. 그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하던 홍콩 반환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하직했다. 하나님은 왜 그를 90세가 넘도록 살려 놓으셨다가 홍콩 반환 4개월여를 앞두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갔을까?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덩샤오핑은 역사상에 명멸해 갔던 세상의 군왕들처럼 한낱 하나님이 부리시는 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준다. 그 하나님이 계속 중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것이다. 우리는 다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을 전할 뿐이다.

특집 /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10 현대 중국 속의 덩샤오핑의 위상과 평가 왕쓰웨

27 덩(鄧) 이후의 중국 사회 슈칭

24 덩샤오핑 없는 중국 그리고 홍콩 강성광

27 덩 이후의 중국, 중국선교를 말한다-좌담회

선교 나침반

4 선교일언 마지막 섭리의 땅 '시닝' 이삼열

36 세미나 지상중계 재중동포 사기 피해사건과 중국선교 동향 김형석

42 특별기고 중국을 깊이 인식하자 김영환

68 중국 교회 현주소 중국 교회, 21세기를 향한 새 판짜기 김종구

74 '97년 중공중앙 1호문서와 중국선교 왕쓰웨

헌신의 삶

34 중국 교회 체험기(8) 공산당원도 예수를 믿는다 메이쯩즈

88 현지에서 온 소식 나의 중국 생활기 박은정

92 중국 성도 간증 내 마음을 비추는 햇살 전전



인물·역사

44 중국 교회 순례(4) 장저우교회(漳州教會)

46 중국의 신앙인물(3) 위대한 전도자 송상제(宋尙節) 편집부

52 중국선교의 발자취 공산 정부 수립과 하나님의 위로 방지일

82 한국선교사 인물연구(5)

한국 여성 최초의 중국 여선교사 김순호와 중국 여성 선교 김교철

오늘의 중국

55 중국은 지금 학교 교육의 사각지대, 외지노동자 자녀들

78 연재기획(3) 1997. 7. 1 홍콩반환을 논하다(3) 홍콩 교회의 거듭나기 편집부

104 시사연구 중국의 뜨거운 감자, 천안문 사태 재평가 연구부

120 중국동향 초점 가속화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분리운동 연구부



기획 / 중국의 가정

60 중국의 가정이 흔들린다 편집부

62 사오황띠(小皇帝) 증후군 편집부

63 독생자 예수와 중국의 독자들 메이링

65 중국 기독교 가정에 거는 기대 라오관상 의

중국을 알자

7 중국·중국인 폭죽부부

96 중국 단기선교 여행 코스(2) 베이징·톈진·청더 유재승

106 중국문화 떠들썩한 중국의 결혼 풍습

109 중국 영화 감상 스크린이 비쳐주는 중국의 여성상 김소희

130 중국 성(省)·구(區) 지도자 명단

자료실

137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발행인 칼럼 **중국의 미래 전망과 하나님의 계획** 이동화 7
 선교 중국어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다(我門全家都信主)** 차이나 47
 중국인의 유머 **사과를 한다는 게 그만** 87
 목상의 샘 **고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109
 세계선교 동향 **어린이 전도** 편집부 112
 선교 다이제스트 「**조선족 교회와 중국선교**」 116
 신간 도서 「**베이징**」 외 117
 중국어 찬송가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仰望天家歌)** 118
 중국어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感謝神)** 119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22
 선교단신 128



별책부록 '중국을 주제로' 기도칼린더

(97/5·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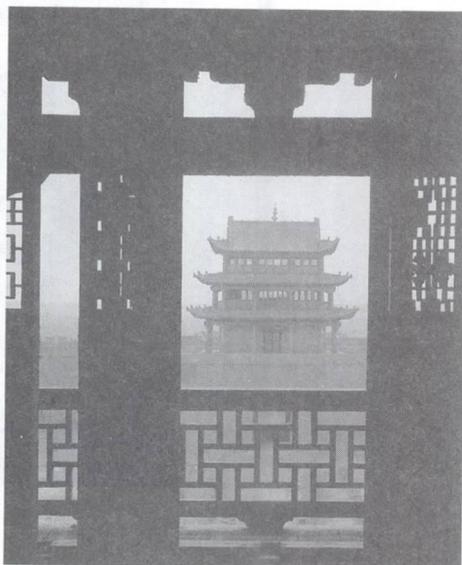
표지설명

5월 5일은 한국의 어린이날,
 6월 1일은 중국의 어린이날(兒童節:얼퉁지에)이다.
 한 자녀 낳기 정책을 고수하는 중국에서는 각
 가정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다.
 소풍나온 어머니와 아이들의 웃음이 환하다.



마지막 섭리의 땅 ‘시님’

이삼열



시님땅에 깃든 하나님의 섭리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혹자는 왼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사 49:11~13)

이사야는 BC 700년 경 남방과 북방과 서방, 그리고 멀리 시님땅을 바라보면서 이 구

절을 기록하였다. 예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였던 시님땅은 과연 어디일까? 이 시님땅이 바로 ‘중국’이라는 설을 찬성하는 성서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 성서에는 ‘시님’이 ‘진국(秦國)’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리고 구약성서가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후 그 문법과 단어가 변함없이 보전됨같이, 중국의 고대문명도 현재까지 변함없이 보존되고 있다. 유브라테스 강 유역에서 발생했던 고대문명은 이제 그 자취조차 찾아볼 수 없으나, 중국의 고대문명이 소멸되지 않고 보존된 사실은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예수 탄생 시기에 로마보다 문명이 발전한 강대한 국가가 시님땅에 존재하였는데, 그것은 유명한 한(漢)나라였다. AD 5년 경 유향이라는 천문학자가 특별한 왕의 별자리를 발견하고 2명의 제자와 같이 별을 따라 서방으로 가서, 새 왕을 만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주님 앞에 드러진 예물이 중국산이라고 주장하는 성서학자가 많다. 성육신하는 우주적인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계와 시님땅에도 제시하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님땅을 먼 곳에 버려둔 것

이 아니라 창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중에 간수하셨다가, 주님이 그날 긴요하게 사용하시고자 섭리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열강의 선교, 성공이나 실패나

아편전쟁과 선교사의 우월의식

서구 제국주의 열강은 무력으로 아편전쟁을 일으키면서 과감하게 중국을 침략하였다. 한 영국의 목사는 “선교사들이여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섰다가 들어갑시다. 아편전쟁에 편승하면 중국 민족에게는 영원히 전도할 수 없게 됩니다”라고 외쳤으나 당시 이 말에 귀 기울이는 선교사는 없었다.

열강의 선교정책은 한 마디로 자기 교단의 확장이었다. 내 교단 확장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륙해야 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에게는 피선교지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우월의식이 너무 강하였다. 문제가 발생하면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이 이들의 방식이었다. 공공시설마다 ‘중국인과 개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어쨌든 170개 교단이 앞을 다투어 막강한 선교비와 6,500명의 선교사를 투입하고 선교에 열중하였다.

네비우스 박사는 자기 교단의 확장이라는 잘못된 선교정책과 방법을 예리하게 비판하고, 본토인을 통한 자치, 자양, 자전의 선교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자기 교단 확장에만 깊이 빠져 있던 열강의 선교정책은 개선의 길을 볼 수 없었다.

피선교지인의 반응

선교사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중국인들은 서구 선교사들을 뒤따라온 아편을 ‘진흙’이라 하고, 아편매매꾼과 선교사들을 ‘양귀신(洋鬼)’이라고 했다. 이들은 아편매매꾼과 선교사들을 한통속으로 몰아 멸시하고 경멸하였다. 만약 양귀신(서양 선교사)에게 세례받고 신자가 되면 그는 중국 국민의 배신자로 지탄을 받는 결과까지 빚어졌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가 되어 성헌과 조상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은망덕하고 불효막급한 자로 세인들의 지탄을 받았다.

또한 피선교지인에게 교회의 문턱은 너무 높았다. 그 결과 피선교인들에 의한 대대적인 반교 운동(反敎運動: 반기독교 운동)이 일어났다. 양주 사건, 천진 사건, 의화단 사건



1948년 베이징의 천주교도들과, 로마교황청이 임명하여 파송한 천주교 주교(가운데).

등 큰 사건이 일어나 수만 명이 인명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에 대해 8개 기독교국가 연합군은 함포를 사용하는 등 무자비하게 진압하였다. 즉 총칼을 앞세우고 전도를 한 것이었다.

선교학교 운영권 회수

천진 사건, 의화단 사건의 진압 이후 반교 운동자들은 외부조직은 없었으나 서구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들의 적대적인 활동은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922년에 이르러 선교회가 설립한 학교 운영권이 박탈되고, 1926년에는 병원 운영권마저 반교 운동자들에 의해 빼앗기고 말았다. 반교 운동자들은 계속하여 활동하였고, 1949년 무신론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자 외국인 선교사는 완전히 퇴거할 수밖에 없었다.

170개 교단이 6,500명의 선교사와 거액의 선교비를 투입하여 150년 간 선교하다 1950년 선교사들이 축출당할 때 중국의 신자수는 겨우 75만 명이었다.

전도의 열린 문과 닫힌 문

열강의 교단 확장 선교 금지

과거의 열강들은 교단 확장을 위해 교회를 설립하고 성경교육과 부흥회를 개최하고 교인에게 쌀 주기, 신자 월급 주기 운동을 하였다. 그리고 일반 교육사업, 의료사업, 문화사업, 빈민구제사업도 철저하게 잘하였다. 현재 시냇물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교단 확장 사업은 절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자기 교회 건축이나 성경공부를 시키는 일, 부흥회, 전도지 배포 등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사실 시냇물에 외국인으로서 공식적인 선교사는 한 명도 없다. 자기 교단 확장 사업은 할 수 없으며 중국인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며 개인전도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도 교육사업이나 의료사업, 문화사업, 구제사업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현재 시냇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교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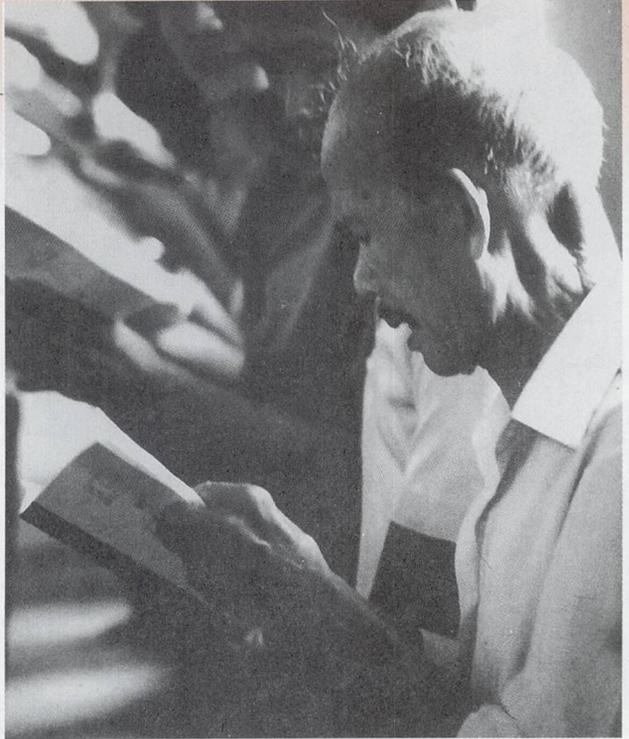
열린 문으로 들어오다

그렇게도 높던 교회의 문턱이 지금은 없어졌다. 교회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인 선교사가 한 명도 없다. 쌀 퍼주는 자도, 월급 주는 자도 없다. 반면 믿는 자에 대해 국민 배신자, 배은망덕자, 불효막급한 자라고 지탄하는 사람도 없다. 진정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월감이나 방종함 없이 좌우를 살펴 조용히 걸어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은 시냇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국력, 금력이 우월하고 재능이 풍부한 선교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성경지식이 부족한 중국인을 들어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네비우스 박사가 제안하였던 자치, 자양, 자전의 삼자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전혀 쓰임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외국인이 자기 교단 확장 사업을 피하지 않고 본토인과 합작한다면 교육사업, 의료사업, 구제사업, 문화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다. 시냇물에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선교방법을 따라야 한다.

복음의 열풍

개혁 개방 이후 교회가 다시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낡은 교회 건물 몇 개와 연로한 성직자 몇 명, 그리고 약간의 신도만 있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강력한 무신론 사상에 의해 중국인에게 2,500년 간 고질적으로 박혀있던 구사상, 구도덕, 구전통, 구습관이 그들의 머리에서 사라졌고, 개방과 동시에 중국인들은 물질만능, 무사상의 균중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사상의 공허를 느낀 균중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기독교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개방 후 15년 내에 8천만 명(중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기독교인수는 1,000만 명이 못 되는 숫자이다. 그러나 이 숫자는 삼자교회 상부 지도자 한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밝힌 숫자이다)이 교회



찬송을 부르는 중국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중국 땅에 복음의 열풍을 일으키셨다.

에 출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풍을 일으키신 것이다. 지금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설피게라도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믿겠다고 손들고 나온다. 이제 시냇가의 영혼들은 이미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시냇가에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께서 시냇가를 이렇게 급속적으로 부흥시키시는 것은 예수님 재림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가 예수 초림시 세계 평화와 치안유지의 사명을 다했던 것처럼, 시냇가는 예수 재림시의 필요한 사명을 준비하고 있다. 로마가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전파에 도움을 준 것과 같이 시냇가 역시 만다린어로 중국 언어를 통일하여 13억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로마의 시민 중 생명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군중이 있었다. 생명의 보장없는 군중에게 복음의 말씀이 큰 효과가 있었듯이, 시냇가에는 13억의 사상적으로 공허한 군중이 복음을 기

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군림이나, 섬기는 중이나

교단 확장 선교는 시냇가에서 절대 금지되어 있으므로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 의료, 구제, 문화사업 등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가능한 일만 해야 할 것이다. 1913년 한국 목사 중국선교지 시찰단이 산둥(山東)성에 도착하여 미국 목사와 중국 목사에게 조언을 청하였다. 이에 미국 목사는 “국력(國力), 금력(金力), 지력(智力)이 있어야만 선교할 수 있다. 한국 교회가 중국에 선교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니 빨리 단념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복음만 갖고 있다. 복음으로 공자(孔子)의 은혜를 갚고자 한다.”

결국 한국 목사에 대한 중국 목사의 호의로 산둥성 라이양(萊陽)이 선교지로 결정되었다. 그들은 임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중국 목사’가 되었다. 열강의 선교사 6,500명 중 한

명도 중국 목사가 되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 목사들은 곧 유명해졌다. 그들은 오자마자 중국어 배우기에 열심을 다했다. 그래서 유창한 중국어를 사용하면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 풍습을 따르는 등 중국인과 똑같이 살았다. 무엇보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제의 침략을 당한 중국인들의 쓰라린 심정을 동정하고 이해하는 한국 선교사들은 중국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다. 당시 한국 선교사와 서구 선교사들의 선교실적은 60 : 0.6으로 나타났다.

이제 우리들은 이분들이 열어놓은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현지 사회의 법과 질서를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공산주의 사회이므로 우리는 그들의 독특한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또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라. 관계만 잘 형성되면 모든 것이 다 잘된다.

사랑만이 장벽을 넘는다

우리는 50억 인구 중 우연히 던져진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유태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셨듯이, 시냇물은 주님 재림시에 건요하게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곳이다. 이 시냇물에서 말세지말을 당하여 마지막 불길로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개방 15년 단시간 내에 8천만 명이라는 인구가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시냇물에는 바울 당시 전도대상 15배나 되는 12억 2천만의 전도대상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자기 교단 확장이 선교사업인 줄 오인하는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여, 50년 전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서구 선교사들이 추방된 것이었을까? 그것은 그들 대부분이 자기

교단 확장사업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다.

시냇물 땅에서 자기 교단을 확장하는 것은 이곳 정부가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선교방법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육사업, 의료사업, 구제사업, 문화사업 등의 문은 하나님께서 크게 열어놓으셨다. 그런데 왜 자기 교단 확장에만 매달려 내 교단, 내 교회, 확장 선교만을 하려는 것인가?

필자는 1988년 이곳에 와서 지금까지 인술로서 3,400명의 불구자를 진찰하고 1,400명의 앓은뱅이에게 의수족을 제작, 공급하였다. 이것을 통해 평생 한번 걸어보는 것이 꿈이었던 이들의 꿈을 성취시켜주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높이 평가하여 국가 최고 영예 사회공로훈장인 유자우(孺子牛) 상을 수여하였다.

필자가 하는 일들은 이곳의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 전혀 믿지 않던 사람들도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필자가 속한 교단이 확장된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

필자는 여러 면에서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지난 9년 간 시냇물 땅에서 잘 걸어왔으며, 죽는 날까지 이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현재 시냇물에서 의수족 제작을 통한 장애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삼열 선생은 장애자 재활과 자립을 위한 “사랑의 센터” 설립을 계획 중이며,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랑의 헌금을 보내실 분은 중국의료봉사후원회(총무 조낙범, 전화 032)516-0308)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열 / 화미의료기술복지회(華美醫療技術福利會) 이사장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중국을 세계의 무대속에 '개혁개방'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인 장본인 덩샤오핑.
그가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졌다.
의 역사와 사회에 끼친 그 엄청난 영향으로 인하여,
의 죽음이 몰고올 정치 사회 전반에 걸친 파장에
세계인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이 어떻게, 얼마만큼 달라질 것인가?
세상은 각자의 목적으로 덩샤오핑 없는
중국을 그려보기에 분주하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직
"중국을 주께로" 드리는 일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정치·경제·사회 변화는
곧 선교환경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는 만큼,
샤오핑 사후의 중국을 가늠해보는 것 역시
앞으로의 중국선교 방향을 조율해 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에 덩 사후의 중국의 모습을
여러 방면에서 전망해보고자 한다.



현대 중국 속의 덩샤오핑의 위상과 평가

왕쓰웨이

들어가는 말

1997년 2월 19일은 십여 년 동안 「덩샤오핑 사망설」의 종지부가 찍히고,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이 역사 속의 인물로 자리잡게 된 날이 되었다. 덩샤오핑은 죽었다.

20세기가 바로 시작될 때인 1904년에 태어나 20세기가 끝나기 얼마 남지 않은 1997년에 사망하였으니, 20세기를 죽히 살다간 셈이다. 그는 전통 봉건왕조인 청(淸)나라에서 유아기를 보냈고, 서양식 공화제 정치 체제인 중화민국 시대에 청년기를 보내었으며, 역시 서양식 사회주의 체제인 중화인민공화국 기간에 장년과 노년 시기의 삶을 살았다. 다양했던 정치 체제와 혼란된 사회 모습, 고난에 찬 백성들의 삶으로 묘사될 수 있는 현대중국에서 덩샤오핑이라는 인물을 과연 어떻게 보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특히 그의 삶 가운데 가장 휘황찬란하고, 포핼(褒貶)이 다양했던 마지막 20년인 개혁개방 시대에서의 삶과 공과(功過)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으며,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본 글은 이상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면서 현대중국 속의 덩샤오핑의 위상과 그에 대한 평가를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생애활동 역할에서 본 덩샤오핑의 위상

혁명가와 군사가로서의 덩샤오핑(1904~1952)

1904년 8월 22일 쓰촨성(四川省) 광안현(廣安縣)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덩샤오핑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1952년 베이징(北京)에 들어와 정무원(政務院) 부총리에 취임되기 전까지, 공산주의 혁명에 참여한 혁명가와 군사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의 본명은 덩시엔성(鄧先聖)이었고 학교에서 사용하였던 학명(學名)은 덩시시엔(鄧希賢)이었다. 1920년 프랑스에 가서 농동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근검공학(勤工儉學)」이라는 대열에 참여하여 프랑스로 떠나기 전에 그는 그의 고향 광안현에서 사숙(私塾)과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충칭(重慶)에서 「근검공학」 준비를 위한 예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프랑스에서 덩샤오핑은 처음에 빠요중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농동을 하였고 후에 여러 수공업, 고무, 자동차 공장 등을 전전하면서 힘든 생활을 살아갔다.¹⁾ 덩샤오핑이 공산주의 활동에 발을 들여놓은 것도 바로 프랑스에서 시작하였다. 1922년 그는 유럽 주재 중국소년공산당(후에 중국사회주의 청년단 유럽지부로 개칭)에 가입하였으며, 1924년 7월에는 중국공산주의 청년단 유럽지부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그 후 덩샤오핑은 「근검공학」의 학생으로의 생활을 마감하고 정식으로 직업 혁명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²⁾ 1924년 중공 청년단 유럽지부의 간행물인 《츠평(赤光)》의 편집을 맡았는데, 프랑스

에서 그들의 반제국주의 활동의 가열이 프랑스 경찰의 주목을 받게되자 덩샤오핑은 1926년 1월 프랑스를 떠나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갔다.

모스크바에서 덩샤오핑은 중국공산당 간부를 양성하는 2년제 쑨중산(孫中山)대학에 들어가 체계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기 시작하였다.³⁾ 그러나 1년도 못 된 1926년 말에 모스크바를 떠나 1927년 3월 북양군벌 펑위샹(馮玉祥) 휘하의 중산군사학교의 정치부 부장 겸 학교 중공당조직의 서기를 맡게되었다. 떠난 지 6년 뒤 중국에 돌아오게 되었고 정식으로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혁명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1927년 국민당과 공산당의 분열 후 덩샤오핑은 펑위샹 휘하를 떠나 한커우(漢口)에 있는 중공중앙의 당중앙 비서로 임명되었고, 그가 「덩샤오핑」이란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 후 그는 당중앙의 대표 신분으로 광시(廣西)에 가서 공산혁명을 전개하였고, 홍군(紅軍) 제7군과 제8군을 창설시켰으며 정치위원과 서기로 활동하였다. 1934년 10월 중앙홍군과 함께 장정(長征)에 참여하였고, 같은 해 12월 중공중앙의 비서장에 임명되었다. 1937년 8월에는 팔로군(八路軍) 총정치부 부장, 1945년에는 진지루위(晉冀魯豫) 지역 당중앙 서기와 군구(軍區) 정치위원직을 맡아 당중앙, 지방 당, 군대에서 요직을 담당하였다.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 군을 이끌고 서남지역으로 들어가 쓰촨성에 중공중앙 서남국(西南局)을 결성하여 제1서기가 되어 지역에서의 토비(土匪)와 국민당 잔여세력 제거 그리고 토지개혁 등을 이끌었다.⁵⁾ 1952년 7월 중앙정부 정무원 부총리 겸 재경(財經)위원회 부위원장직이 되어 중앙당과 정부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 1952년까지 덩샤오핑은 제국주의, 군벌, 일본군, 국민당과 대결을 벌이는 중국공산당의 혁명가와 군사자로서 당 중앙과 지방, 또 전쟁의 최일선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치가와 행정가로서의 덩샤오핑(1952~1978)

1952년 7월 덩샤오핑은 서남지역에서 당중앙의 부름을 받아 중앙정부 정무원의 부총리 겸 재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그 후로부터 1978년 12월, 중공중앙 11차 공산당대회 3중전회까지 그는 비록 적지 않은 생애의 굴곡을 겪었고 또 문화대혁명 기간 세 번이나

공직박탈과 비판, 투쟁의 대상이 되었지만,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의 권력의 핵심에서 실무적인 정치가와 행정가로서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1954년 4월 덩샤오핑은 중공중앙의 비서장, 같은 해 9월에는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국무원 부총리, 국방위원회 부주석, 1956년 9월에는 중공중앙 총서기, 정치국 상무위원 등의 직무를 맡으면서 당과 정부, 군에서의 입지를 확대하였다. 특히 대약진운동의 실패와 그 결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도탄(塗炭)에 처해 있을 때 1961년 국가주석인 리우샤오치(劉少奇)의 노선을 지지하면서 경제회복정책에 핵심 멤버로 적극 가담하였다. 그는 경제회복, 그 중 농업생산의 회복을 위해 「군중의 소망」, 「군중의 적극성 격려」를 강조함으로써, 당과 국가의 정책의 인민에 대한 현실적 유익성을 강조하였고, 소위 「묘론(貓論)」의 제기를 통해, 당과 국가의 노선이 상황과 실용을 중시하는 노선으로 바뀌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⁶⁾

1973년 덩샤오핑은 복직되어 저우언라이(周恩來)를 도와 문화대혁명의 혼란과 참혹을 복구하기에 나섰다. 덩샤오핑은 당이 모두 큰 시국(時局)을 논해야 하는데 “큰 시국은 다름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향상시키는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우선 독립적이고 온전한 공업체계와 국민경제 체계를 이룩해야 하며, 다음으로 현대적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할 것을 피력하였다.⁷⁾ 그러면서 덩샤오핑은 혁명만 붙들고 생산을 붙들지 않는 당의 노선과 정치인들을 비판하였다.⁸⁾ 여기에서 그의 개혁의 의지(혁명 뿐만 아니라 생산)와 초점(경제), 내용(「4대현대화」)등이 이미 드러나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그는 국가의 행정을 재조정하기 시작했다.

1976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죽고 「사인방」이 체포되자, 1977년 덩샤오핑은 다시 원래 직위로 복권되었다. 그 후 2년여 동안의 화국평(華國鋒)과 당내 여러 인사와의 권력투쟁으로, 마침내 1978년 12월에 개최된 공산당 11차대회 3중전회에서 소위 「덩샤오핑노선」의 확립과 「경제건설」을 당과 국가의 노선으로 채택하는 데 이르렀다. 정치가와 행정가로서의 능수 능란한 활동이 극치에 이르게 되었다.

개혁가와 영도자로서의 덩샤오핑(1978~1997)

1978년 12월 11차 3중전회 이후에서 덩샤오핑이 사망한

1997년 2월까지 덩샤오핑은 중국을 이끄는 최고의 개혁가와 영도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했다. 덩샤오핑이 많은 이들의 존경과 선호의 대상이 된 것도 바로 중국을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노선 가운데 놓이게 한 데 있으며, 이는 결국 그를 역사를 이끄는 인물로 평가받게 하였다.

1978년의 11차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화궈핑의 「두 가지의 모든(兩個凡是)」을 비판하면서, 과거의 「좌(左)적」인 지도사상 즉, 계급투쟁 위주의 노선을 지양하고 4개 현대화의 「경제건설」을 실현하자고 하였다.⁹⁾ 결국 덩샤오핑은 3중전회에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중국을 이끌면서 개혁을 위한 장정에 나섰다.

우선 개혁가로서 덩샤오핑은 1980년 농업생산책임제(農業聯產承包責任制)를 확대하였고, 경제특구를 시작하였으며, 대외개방을 촉진하였다. 1984년부터는 도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는데 「기업책임제」, 「임대제」, 「주식제」, 「그룹회사」 등이 시도되었다. 그와 더불어 제반 경제체제에 관한 개혁이 점차로 확대되었다. 또 과학기술 체제와 교육체제의 개혁도 진행되었다.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총설계사로서 중국을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면서, 개혁개방과 네 가지의 견지」 속에 두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개혁이론을 창출하기도 하였다.

한편 덩샤오핑은 11기 3중전회 이후인 생애 마지막 시기에 확고한 권력을 형성하면서 최고 영도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덩샤오핑은 우선 화궈핑 등의 인물을 당내 권력층에서 밀어내기 위해 1979년 9월 11차 4중전회 때 자오쯔양(趙紫陽)을 정치국에 입국 조치시켰으며, 1980년 9월에는 자오쯔양이 화궈핑의 총리직 자리에 앉게 되었다. 같은 해 2월 중앙서기처를 두어 후야오방(胡耀邦)을 총서기에 임명하였다. 1981년 11차 6중전회 때에는 모택동의 최후시기(晩年) 비판을 하면서 「모택동이 하였던 말을 모두 바꿀 수 없는 진리」라 믿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¹⁰⁾ 이는 화궈핑과 그의 세력에 대한 최후의 일격으로 결국 화궈핑은 중공 중앙의 주석과 군사위원회 주석을 내어놓게 되었다. 당중앙의 주석은 후야오방이, 군사위 주석은 덩샤오핑이 각각 차지하였다. 1982년 9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2차 대회에서 주석제도를 폐지하고 총서기 제도를

설치하였으며, 12차 1중전회에서 소위 「덩샤오핑 체제」가 완결하게 구축이 되었다. 덩샤오핑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앙고문위원회 주임, 후야오방은 당 총서기, 자오쯔양은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국무원 총리가 되었다. 덩샤오핑은 이제 자기가 세운 노선과 인맥을 통해 중국을 이끌게 되었다. 이제부터 「덩샤오핑 시대」가 본격 가동되었다.

1986년 말 반부패와 민주, 자유를 내걸었던 전국대학생의 시위와 1989년 4월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가속화된 학생시위 때에도 덩샤오핑은 비록 후야오방과 자오쯔양을 파직시키면서도 최고 개혁가와 영도자의 자리를 지켰다. 또 「6.4천안문 대학살」 이후 보수세력의 득세와 개혁노선 사상의 쟁론 속에서도 덩샤오핑은 여전히 최고 실력자의 지위를 발휘하여 1992년 2월 남부도시 순방을 통한 개혁노선의 불변과 1992년 10월 14차 공산당 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확립을 구축시켰다. 1989년 덩샤오핑은 그가 가진 마지막 공직인 군사위원회 주석을 장쩌민(江澤民)에게 넘겨주었고 형식적 권력계승을 장에게 넘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그의 카리스마와 영향력은 최고자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활동 업적을 통한 덩샤오핑 평가

덩샤오핑의 전체 생애에서 볼 때, 비록 그가 어린 나이에 공산당에 입당하여 활동을 벌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이 결성되기 이전 그의 당에서의 지위는 동년배의 천윈(陳雲)보다는 훨씬 못 미쳤다. 덩샤오핑은 1952년 이후 당 중앙과 중앙정부에 들어와 활동을 전개하였지만 큰 업적을 세우거나 또 마오쩌둥의 권력 계승자로 물망에 오른 적도 전혀 없다. 오히려 그는 잦은 비판과 정치실각을 당하였다. 결국 그의 업적은 1978년 11차 3중전회 이후 그가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의 「총설계사」로서 개혁가와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맡으면서 실질적인 최고 영도자의 역할을 담당할 때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덩샤오핑은 교조(教條)주의와 정치투쟁을 지향하는 문화대혁명의 시국적 전개와 노선을 중단시키고 실사구시(實事求是)와 경제건설을 내세우는 방향과 노선으로 중국을 이끌어 나갔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0월 「사인방」이 체포되어 문화대혁

명이 사실상 종말을 고하였지만, 마오쩌둥의 권력을 승계한 화궈펑이 그의 권력유지를 위해 문화대혁명의 유산을 지속하고 모택동의 노선을 따르려 하였다. 이것이 소위 「두가지의 모든(兩個凡是)」이다.¹¹⁾ 덩샤오핑은 「두가지의 모든」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정치노선은 여전히 개인숭배와 문화대혁명의 수렁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사인방」 축출 이후 국민경제의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경제건설이라 진행되는 업무는 여전히 현실과 관계없는 실현 불가능한 구호가 많았다. 이는 과거 「대약진 운동」과 별다름이 없었다.¹²⁾ 그리하여 1977년 5월 그는 먼저 「두 가지의 모든」을 비판하였고, 1978년 5월부터 <실천이 진리검증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글을 통해 소위 「진리 검증」 논쟁을 벌였고,¹³⁾ 예지엔잉(葉劍英), 천윈(陳雲), 리시엔니엔(李先念) 등도 덩샤오핑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섰다.¹⁴⁾ 결국 1978년 12월에 개최된 11차 3중전회 때 대전환을 맞이하여 덩샤오핑 노선의 승리를 가져다주었다.

11차3중전회의 승리로 말미암아 덩샤오핑은 실사구시적 방법으로 「4대현대화」를 본격 추진하게 되었고 이제 경제건설이 당과 국가의 중심노선으로 채택되어 중국은 비로소 생산력 발전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이 추진하고자 하는 「4대현대화」란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네 가지 방면의 현대화를 가리키며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 「네 가지의 견지(堅持)」라는 사상 정치적 근본전제를 두고 있다.¹⁵⁾

둘째, 덩샤오핑은 중국을 현대화하는 길을 걷기 위해 소위 「덩샤오핑 노선」을 채택하여 사회주의 현대화의 장기적 계획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덩샤오핑 노선」이란, 즉 「하나의 중심, 두개의 기본점(一個中心兩個基本點)」이다. 경제건설이 그 중심이요, 경제건설을 하기 위한 방법론과 기본전제는 개혁개방과 「네 가지의 견지」라는 두개의 기본점이다. 이로써 전개되는 중국의 사회주의란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라 하였다.

우선 당과 국가의 모든 방향과 정책, 사업을 경제건설을 초점으로 세워갔다. 그러기 위해 덩샤오핑은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일치단결하여 앞을 향해 전진해야 하며, 경제학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해야 하며, 심지어 외국의 진보된 관리방법을 학습해야 한다



1974년 덩샤오핑과 부인 주오린(卓林), 그리고 다섯 명의 자녀들.

고 강조하였다. 또 간부들은 경제학, 과학기술 그리고 관리 방법을 배우라고 촉구하였다.¹⁶⁾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 「혁명이 생산력 해방이지만, 개혁도 생산력 해방이다」¹⁷⁾ 라고 하여 개혁추진의 근거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하는데 있어 농촌을 먼저, 도시를 그 후에 두었고, 연해 지역을 먼저, 내륙을 그 후에, 일부 사람이 먼저 부유해지고 나머지 사람은 그 후에 라는 원칙을 세웠다. 농촌개혁은 「농업 생산책임제」를 실시하여 농민이 생산하는 일에 적극성과 실익성(實益性)을 고취시켰으며, 도시개혁은 「기업책임제」, 「개체호」 등을 허용, 실시하여 도시에 도 활기가 솟게 하였다. 「경제특구」를 두어 외국상인의 투자, 합자기업의 경영 등을 통해 특구지역의 발전이 외국선진 도시와 같이 발전하도록 하였다. 덩샤오핑은 이를 가리켜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라고 하였다.¹⁸⁾ 그 밖에 경제개혁에 상응하여 과학기술, 교육, 국방의 개혁과 중국의 문호를 세계에게 개방하여 중국이라는 「죽의 장막」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였다.

셋째, 중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한 국가, 두 제도(一國兩制)」, 「평화통일」을 제시하여 무력통일과 대립을 지양하였다. 11차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은 대만과 홍콩, 마카오에 대한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한 국가, 두 제도」와 「평화통일」을 제시하였다. 오직 이런 통일정책으로만 중국을 온전히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 국가, 두 제도」란 중국 대륙 내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시행하고, 홍콩과 대만에서는 자본주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¹⁹⁾ 또 「내가 너를 삼키고, 네가 나를 삼키는 것」을 지양하고²⁰⁾ 무력해결은 쌍방에게 불리하기에 「평화통일」을 하자는 것이다.

중국을 통일하기 위한 첫 걸음은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주권의 회복이며, 그 이후가 대만이다. 우선 홍콩에 대해서는 1997년에 영국으로부터 반환을 받고, 반환된 홍콩에는 중국과 영국 사이에 맺은 협의대로 50년간 변함없이 현재의 변영과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 또 홍콩은 홍콩사람에 의해 치리되며 치리자는 반드시 「애국가」²¹⁾ 여야 한다. 대만 통일은 홍콩 반환 이후로 보며, 대만 통일에 있어 기본적인 관건은 홍콩에서의 「한 국가, 두 제도」의 시행결과와 중국경제의 발전상황에 있다고 보았다.²²⁾ 덩샤오핑은 대만이 통일된 후 자기의 독립성을 지니며, 대륙과 다른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또 사범의 독립과 대륙에 위협되지 않을 자체의 군대를 가질 수 있으며, 대륙에서도 군대와 행정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며, 대만의 당, 정부, 군 등의 조직은 모두 대만 자신에 의해 관리된다고 설명하였다.²³⁾ 덩샤오핑은 국가통일에 대한 점진적이고, 평화적 해결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통일안을 제시하여 과거의 긴장과 대치적 상태를 완화시켰다.

넷째, 권력의 분산과 지도층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하여 정치권력의 집중과 종신화를 해소하기 시작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사, 특히 1949년 이후의 중국 정치사에서 볼 때 정치권력은 늘 집중, 편중되어 왔고 심지어 한 사람에 의해 독점되어 왔다. 그러나 11차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은 실질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장악하였지만, 권력의 소유형태에 있어 자신에게 집중시키거나, 독점하지 않고 분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덩샤오핑 본인은 군계통의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과 원로관계의 당중앙 고문(顧問)위원회 주임, 당중앙에서의 지위는 정치국의 상무위원을 맡았다. 그 밖에 최고 중요한 권력의 자리는 초기에는 그의 측근인 맥인 후야오방, 자오쯔양을, 후기에는 장쩌민을 세웠다. 실제로 있어서는 덩샤오핑이 당, 정부, 군을 움직이는 최고의 권력자

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최소한 권력의 소유형태를 분산시켜 중국 정치사에 큰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또 덩샤오핑은 11차 3중전회 이후 지속적으로 당과 국가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간부의 혁명화,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를 강조하면서 1982년 2월 당중앙에서 <노(老)간부 퇴임제도 수립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²⁴⁾ 이로써 당, 국가지도자에 대한 퇴임정년, 퇴임후의 정치 및 생활 처우 그리고 제2선으로 물러남과 신구(新舊) 간부교체 문제 등을 상세히 규정해 놓았다.²⁵⁾ 그 자신은 1987년 10월 당 13차대회 때 먼저 당중앙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중앙고문위원회 주임에서 퇴임하였고, 1989년 11월 당 13차 5중전회 때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였다. 이로써 그는 출선하여 모든 공직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임하였다. 이는 중공정치사에서 죽어야 직위에서 물러나는 전통을 타파한 것이 되었다.

덩샤오핑의 과실 평가

덩샤오핑이 현대중국 특히 1978년 이후의 중국에 끼친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인민생활 개선 등에 대한 긍정적 영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으나, 그의 한계성과 그 한계성으로 인한 과실이 여러 측면에서 지적될 수 있다. 중국을 이끌어 가는 최고 실력자로서 거시적인 정치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자, 지식인, 학생 등이 제기한 정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요청 그리고 민주화 운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와 유혈진압, 학살을 자행하였다. 또 경제개혁과 더불어 진행 되어야 할 정치 및 정치제도의 개혁, 특히 개인의 자유확산과 개인 및 조직의 참정권 확대, 사회민주화 등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밖에 경제개혁에 따른 부작용이 날로 확대되는 반면에 그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 해결이 미흡하였다.

첫째, 11차 3중전회 이후 덩샤오핑 사망 전까지 덩샤오핑은 「네 가지의 견지」와 「자본계급의 자유화 반대」 등의 이유로 노동자와 지식인, 학생 등이 제기한 정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해 강압적 태도와 배타적 제거 조치 심지어 유혈진압과 학살도 불사하였다. 그러기에 덩샤오핑은 중국 민주화 운동의 원흉(元兇)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 밖에 없다. 우선 1978~79년 베이징

시판(西單)에 사람들이 대자보를 붙이는 벽과 비공인 간행물인 《탐수오(探索)》에 전기 노동자 웨이징성(魏京生)은 <제5의 현대화 - 민주와 기타> 등을 발표하여 '민주없이 4대 현대화가 없고, 제5의 현대화인 민주가 없으면 모든 현대화란 새로운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하였다.²⁶⁾ 웨이징성은 곧 체포되었고 「반혁명죄」로 15년형이 선고되었다. 덩샤오핑은 웨이징성의 생각이 「네 가지의 견지」를 떠난 사상해방이고, 이는 웨이징성 자신을 당과 인민의 대립적 위치에 놓이게 한 처사라고 비판하였다.²⁷⁾ 그는 또 1981년 작가바이화(白樺)의 작품인 《쿠리엔(苦戀)》이 「잘못된 사상적 경향」이고 「네 가지의 견지」에 관한 문제라 하여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²⁸⁾

특히 1985년 5, 6월에 「자본계급 자유화를 하는 일이 바로 자본주의 길을 걷는 일이다」 하여 지식인, 학생, 작가들 사이에서 분출된 언론, 대자보, 간행물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이를 가리켜 실질적인 「동란(動亂)」이라 했다.²⁹⁾ 1986년 12월 안후이성(安徽省) 허페이(合肥)의 중국과학기술대학의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위는 「민주쟁취」를 부르짖었고 그 후 시위의 여파는 우한(武漢), 쿤밍(昆明), 상하이, 난징, 베이징 등 지역으로 확산되어 「민주개혁」, 「신문자유」, 「시위합법」, 「독재타도」, 「민주만세」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시위 문제와 이에 대한 배후 주모자로 부총장 팡리즈(方勵之)를 지목하였고 결국 1987년 1월에 팡리즈와 중국작가협회 이사인 왕뤄왕(王若望), 류빈옌(劉賓雁) 등을 「자본계급 자유화의 선동」, 「네 가지의 견지 반대」, 「학생시위 선동」 등의 이유로 당에서 제적시켰다. 덩샤오핑은 팡리즈의 언론이 공산당원의 언론이 아니고 그런 자를 당에 있게 할 수 없고 제적시켜야 한다고 하였고, 왕뤄우왕도 너무 날뛰어 발광했다 하였으며 류빈옌은 극도로 광(狂)적이어서 역시 제적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³⁰⁾ 덩샤오핑은 이런 일련의 시위와 「자본계급 자유화」라 생각되어지는 활동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의 강력한 오른팔인 당 총서기 후야오방을 당에서 밀어내기까지 하였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과 덩샤오핑의 최대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89년 학생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진압과 학살이었다. 1989년 1월 팡리즈는 덩샤오핑에게 편지를 써서 정치범, 특히 웨이징성에 대한

특사(特赦)를 건의하였고, 2월에 베이징의 지식인계 33명이 연합적으로 팡리즈의 편지를 지지함은 물론이거니와 정치범에 대한 특사를 요구하였다.³¹⁾ 이것이 89년 민주화 운동의 서막이 되었고, 그 후 4월 15일 후야오방의 사망으로 민주화 운동이 후야오방 추모로부터 서서히 가열되었다. 4월 18일 베이징의 5개 대학생 5천 명이 천안문 광장에 운집하여 「독재타도」, 「민주만세」 등의 구호를 본격적으로 외치기 시작하였다. 4월 19일에 경찰과 학생 사이에 첫 충돌이 있었고, 4월 22일 학생들은 인민대회당에서 무릎을 꿇고 민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4월 22일 《인민일보》의 사설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동란」이라고 규정하였다.³²⁾ 4월 27일부터 민주화 운동에 학생뿐만 아니라 지식인, 홍콩 및 대만의 대학생, 해외의 지식인들까지 동참되었다. 5월 4일에 베이징의 시위자가 10만에 달하였고, 5월 13일 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5월 12일 총리 리펑은 학생운동을 다시 「동란」이라고 규정하였고, 5월 26일 당 총서기인 자오쯔양은 실각되었다. 6월 3일 무장한 해방군이 천안문 주위에 배치되었고 자정에 임박할 때 산발적인 총성이 나기 시작하다 결국 4일 새벽 학살이 자행되었다.³³⁾

덩샤오핑은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동란」으로 간주하면서 이는 「반혁명 폭란」이라 했고, 특히 그는 민주화 운동을 공산당 타도와 사회주의 체도의 전복(顛覆)이라 생각하였다.³⁴⁾ 그러하기에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으로 그는 발포명령과 유혈진압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덩샤오핑은 11차 3중전회 이후 경제건설 중심의 노선과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에서 분출된 자연스러운 지식인, 노동자, 당원, 작가, 학생 등의 민주개혁과 정치개혁에의 요구와 비판을 수렴하지 못하고 강력한 진압과 제재조치를 취해 중국의 민주화 운동을 실질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말살 시켰다. 덩샤오핑이 민주화와 정치개혁을 「네 가지의 견지 반대」, 「자본계급 자유화」를 피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동들을 「동란」이라고 규정한 것은 그의 한계성에서 온 것이다. 그는 「자본계급 자유화」를 서양 자본주의 국가의 민주와 자유를 숭배하고, 사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고,³⁵⁾ 중국을 전적 서양화(全盤西化) 하는 것이요 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³⁶⁾ 사람들이 미국식 제도를

가장 이상적인 민주제도라 생각하는 데 중국은 다당경선(多黨競選), 삼권분립(三權分立)을 할 수 없으며 그렇게 되면 중국은 「동란」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³⁷⁾ 동란이 일어나면 불안정해 질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경제건설을 할 수 없다는 것이³⁸⁾ 덩샤오핑의 지론(持論)이다. 또 공산당의 영도도 마찬가지이며,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를 버리면 동란의 국면을 맞이할 것이며,³⁹⁾ 중국이 다른 나라보다 제도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산당의 영도」와 「민주집중제」에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⁰⁾ 그 밖에 「독재」에 대해 덩샤오핑은 독재의 수단 없이 안되며, 독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용해야 하며, 만약 누구든지 유혈사건을 만든다면 어떠한 도리가 없지 않느냐 하여 유혈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⁴¹⁾ 덩샤오핑은 공산당의 독재 없이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지배적이기에 공산당과 공산당에 의한 사회주의의 건설을 비난하거나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조차 참지 못하는 좁은 소견을 보였던 것이다.

둘째, 개혁개방에 있어 덩샤오핑이 우선 순위를 둔 것이 경제개혁이었고 비록 그도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지만, 그가 말하는 정치개혁이란 현 사회주의 제도 내의 부분적 정치체제의 개혁이었으며, 서양적 개념의 민주와 서양적 제도로서의 다당제(多黨制)나 의회제도, 심지어 점진적인 자본주의로의 회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하기에 개인 자유의 확산, 사람과 사회 각 계층의 정치참정권의 확대, 사회 평등권의 확보 등을 위한 정치적 개혁과는 거리를 둔 개혁이며, 사회주의 특히 「네 가지의 견지」 틀 속에서의 개혁일 뿐이었다. 우선 덩샤오핑은 11차 3중전회 이후 1980년 8월에 당과 국가영도 제도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힘주어 피력하였다. 특히 그는 당과 국가의 정치문제 가운데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다 집중 현상, 가부장적 제도 현상, 지도급 간부 직무의 중신제 현상과 형형색색(形形色色)의 특권 현상 등을 지적하였다.⁴²⁾ 그래서 그는 정치제도에 대한 조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권력의 과다한 집중을 막고, 겸직(兼職) 또는 부직(副職)은 과다하게 갖지 말아야 하며, 당과 정부의 불분명 또는 당이 당부를 대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착수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후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등이다.⁴³⁾ 그후 덩샤오핑은 정치개혁에 대한 언급을 자주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정치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정치 「체제」에 집중되어 있다.

덩샤오핑은 정치체제 개혁의 총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에 두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하게 하고, 둘째, 사회주의 사회의 생산력을 발전시키며, 셋째,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의 적극성을 고취시키는 데 있다.⁴⁴⁾ 이와 비슷하게 덩샤오핑은 한 나라의 정치체제와 정치구조, 정책이 정확한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국(政局)이 안정되어 있는지, 또 사람들의 단결을 증진하고 인민의 생활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리고 생산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⁵⁾ 그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정치체제의 개혁이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다. 첫째는 당과 정부의 분리이고⁴⁶⁾ 둘째는 권력을 아래 기관에게 분배하는 것이며⁴⁷⁾ 셋째는 당, 정부 기구의 간소화⁴⁸⁾, 넷째는 간부의 인사제도 개혁인데 특히 간부의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 혁명화 등이 중점문제이고⁴⁹⁾ 다섯째는 사회주의 민주라는 것을 발전하고, 여섯째는 사회주의 법제(法制)를 온전하게 이룩하는 것이다⁵⁰⁾. 또 덩샤오핑은 정치체제의 개혁을 하되 반드시 중국이라는 국가적 정황 속에서 해야 하며⁵¹⁾, 서양적 자본주의의 민주 도입과 미국적 제도의 답습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다당경선, 삼권분립 등은 더욱 그러하다.⁵²⁾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은 반드시 공산당의 인도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며⁵³⁾, 운동을 통한 방법이 아니고 교육적 방법으로 인도해야 하며, 국내의 안정된 정치 상황과 질서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⁵⁴⁾

이상과 같은 덩샤오핑의 정치개혁 사상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에서의 정치개혁이란 현 중국 사회주의 제도권 내의 체제의 개혁과 「네 가지의 견지」라는 틀, 특히 중국공산당의 영도와 중국이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는 것 속에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덩샤오핑의 개혁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정치 「체제」의 개혁이라는 한계성과 울타리를 지니고 있다. 결국 서양식의 민주와 자유, 서양식 제도로서의 다당제나 의회제, 전국민 투표에 의한 선거제, 다당경선, 또 삼권분립 등은 아직도 논의의 주제가 아니며 그것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11차 3중전회 이후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경제

개혁은 중국 사회와 백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으나 반면에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매우 크고 지금도 날로 확대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 제도적 해결은 미흡한 지경이다. 중국의 경제개혁과 급속도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급한 경제문제가 산재해 있다. 우선 급격한 빈부와 지역의 발전 차이가 점점 더 현격하게 벌어지고있고, 또 국영기업의 경영 불합리와 엄청난 손실과 파산, 그것으로 인한 실직, 취업 대기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 관리(官吏)들의 엄청난 권력과 경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심각한 부패현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덩샤오핑은 경제개혁을 하는데 있어 일부 사람과 일부 지역을 먼저 부유케 한다고 하였다.⁵⁵⁾ 또 경제특구와 개방지역을 설치하여 그 지역들에 대한 지원과 경제 발전의 기회를 대대적으로 부여하였다. 이러한 정책이 결국 사람들의 빈부 차이와 지역간 발전의 격차를 낳게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극복은 중국의 전면적 개방과 중앙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경제발전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동과 지역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경제 발전이 더욱 격차가 벌어져 결국 더 큰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그 특징은 생산원료의 공유제를 실시하였다. 기업의 형태도 국유로 하여, 소위 자본가의 착취를 소멸하고 노동자의 적극성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현재 국가의 재정수입의 60% 이상이 국유기업에서 오며, 3분의 2의 도시노동자들이 국유기업에서 근무를 하고있다. 뿐만 아니라 기초공업과 고(高)기술 산업 가운데에서도 국유기업이 우세를 점하고 있다.⁵⁶⁾ 그러나 11기 3중전회 이래로 경제에 관한 제반 개혁조치 이후 중국에는 국유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기업, 향진(鄉鎮)기업, 그리고 중외합자(中外合資) 기업, 중외합작(中外合作) 기업, 외국 단독자본 기업으로 일컬어지는 삼자(三資) 기업 등 다양한 회사, 기업들이 존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운데 일부 국유기업들이 점차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과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⁵⁷⁾ 이 결과 많은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게 되었고, 실업 또는 취업대기자, 명예퇴직자들이 대량으로 배출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개혁과당, 정부에 대해 대항하는 일도 생겨났다.⁵⁸⁾



작년 10월 마지막으로 외부에 공개된 덩샤오핑의 사진.

국영기업의 문제는 우선 이 기업이 국가의 것이기에 손해나 이익을 보는 것은 국가이며 경제효율의 제고에 대해 모든 이들이 무관심하여,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간에 이것이 개인의 이익과 관계가 없기에 책임성과 적극성이 없다 할 수 있다. 또 당과 정부, 정부와 기업의 불분(不分)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경영자보다 당위원회의 서기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경영자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당의 이념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기업은 여러 다른 상부 기관, 특히 업종에 따른 중앙부처에서의 수직적 통제와 해당 지방정부의 수평적 통제를 동시에 받고 있기에 기업의 생산계획량, 이윤, 재무지표, 물자공급의 산출이나 수행에 있어 차질이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무척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국영기업의 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기업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에서의 우열도태(優劣淘汰)를 통해 기업이 존폐 하도록 해야한다. 그 다음으로 당과 정부의 분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통해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 경영의 자주권과 생산 상품의 처리권, 가격의 책정권, 직공들에 대한 고용 해직권 등이다. 또 노동자들의 노동의 적극성을 고취하기 위해 노동에 대한 개인 이익과 소유권의 확대를 해 나가야 한다.

중국 경제문제 가운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부패문제 일 것이다. 「부패」라 할 때 이것은 개인의 윤리나 도덕문제라 생각될 수 있겠으나 중국에 있어 부패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또 부패는 당과 정부의 관리들의 엄청난 권력과 경제가 결합이 되어 생겨났기에 권력과 경제에 관한 문제이며,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나 그 이후에도 부패는 있었으나 급격하게 확대되고 증폭된 것은 11차 3중전회 이후, 즉 경제개혁의 실시와 더불어 생겨난 부작용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미흡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국공산당 당원과 관리는 청렴과 결백을 중요시하고 또 중요한 당성(黨性)으로 자랑해왔다. 많은 이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전과 건국 직후의 공산당 당원과 관료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특히 그들의 평민화된 모습과 희생정신에 탄복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과 문화대혁명을 거쳐 특히 개혁개방 이후 부패문제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당에서도 부패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였으며, 특히 1986년 당시의 총서기 후야오방에 앞장서서 상하이시 인대(人大) 위원장의 아들인 후샤오양(胡曉陽)을 총살시키고, 부위원장의 딸인 예즈펑(葉之楓)을 실형에 처하였던 일은 가장 큰 반부패 척결 조치였다.⁵⁹⁾ 그러나 부패문제는 소멸되지 않았고 급기야 1986년 12월 대학생들의 시위에서 「관료부패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고, 1989년 2월 일부 지식인들이 「반부패 건의서」를 전인대(全人大)에 제출하기까지 하였다. 현재 전국 각시에 「반부패뇌물사업국(反貪污賄賂工作局)」을 두어 부패 척결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으나 형식일 때가 많고, 일부 인사만 대상이 되고 있다.

우선 부패문제는 사회주의 제도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즉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 속에서 다른 당들에 의한 감독이나 민주적 감사가 부재하기에 절대적인 권력에 의한 부패의 초래를 막을 수 없었다. 특히 마오쩌둥의 「여론일률(輿論一律)」로 인한 언론 통제와 관리로 인해 비판의 소리 부재 현상이 중국 사회에서 생겨나게 되었다. 또 부패는 권력과 경제가 결합되어 생겨났기에 경제개혁 이후 수많은 경제에 관한 업무에서 당의 관료들이 그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많은 경제적 이익을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어 부패가 더 확산되었고 심각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제건설의 속도에 발맞추어 법제화(法制化)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 법제도의 미비가 부패를 더욱 가중화 시켰다. 결국 부패문제의

해결은 중국의 현재 정치제도의 민주적 개혁 즉 일당독재가 아니라 다당제에 의한 정치, 민주여론의 확대, 당 권력의 균일한 분배와 당 역할의 재편성, 법제도의 강화 및 보완 등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중국 부패의 제도적 근원으로 인해 제도적 개혁 없이는 부패의 척결은 늘 형식적일 수밖에 없으며, 근원적 해결도 될 수 없다.

11차 3중전회 이후 소위 「당샤오핑 시대」에 경제개혁의 박차를 가하면서 수반되는 부작용과 문제들에 대해 당샤오핑은 늘 미온적인 대책만 강구하였으며, 미봉책에 불과한 해결 방안만이 제시되어왔다. 결국 현 정치제도와 체제의 전환과 민주적 사회의 확대 그리고 법제화의 확립이라는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한 것은 당샤오핑 자신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것 또한 그의 과실로서 평가될 수 있다.

맺는 말

당샤오핑 사망의 의미

20세기의 큰 별로 묘사되는 당샤오핑은 파란만장한 인생여정을 살았고, 중국과 세계에 그가 미친 영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죽음으로 중국의 「현대」가 종료되었고 중국 현대화의 길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의 죽음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우선 당샤오핑의 죽음은 중국의 현대사와 중국공산당의 정치사에 있어 영웅적 카리스마 지도자 시대의 종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의 현대사에 있어 지도자들의 특징은 모두 영웅적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다. 쑨원(孫文), 장제스(蔣介石),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등이 그러하고 당샤오핑도 그러한 영웅적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는 초기 혁명가와 군사가로서의 삶과 활동을 하였고, 장정(長征)에 참가한 훌륭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또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권력의 핵심에서 비록 많은 부침(浮沈)을 경험하였지만, 공산당 내외 정부에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변함 없어 왔다. 현재의 중국에서 영웅적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지도자는 오직 당샤오핑 밖에 남지 않았기에, 그의 죽음은 현대중국에 있어 영웅적 카리스마 지도자

시대의 종말을 고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덩샤오핑의 죽음은 중공정치사에 있어 소위 제2대 지도체제의 종료와 제3대 지도체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지도체제의 세대교체가 덩샤오핑의 죽음으로 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공의 정치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덩샤오핑 자신도 마오쩌둥 통치가 제1대 지도체제이고 마오쩌둥이 그 체제의 핵심이며, 덩샤오핑은 제2대이고, 장쩌민은 제3대로 규정하였다.⁶⁰⁾ 비록 덩샤오핑은 1989년 9월에 모든 공직에서 떠났지만 그의 인물의 영향력과 중국정치통치의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상 그의 통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그의 마지막 몇 년은 그의 딸들을 통한 「통역통치」가⁶¹⁾ 이루어졌기에 결국은 그의 죽음으로 「정식적인」 정권교체와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셈이다. 덩샤오핑 사후에는 제3대 지도체제가 본격 가동되었으며, 장쩌민이 핵심적 위치와 최고의 직위를 가지고 있다.

셋째, 덩샤오핑의 죽음으로 중국의 통치 지도자의 직능이 영웅통치에서 직업관료에 의한 통치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덩샤오핑과 그 이전 중공의 통치자들은 모두가 소위 「세상에서 싸우다 세상에서 군림하게 된(打江山坐江山)」 승리자 영웅의 통치였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그들의 승리와 업적으로 인해 권위가 세워졌고, 그들이 최고 자리에서 당과 국가를 운영하고 제도를 만들어 가기에 그 어떤 것 보다 지도자 본인에 의한 통치 즉 인치(人治)로 정치와 국정관리를 해나갔다. 또 법이나 정책보다 그들이 내린 지령과 그들의 말과 뜻을 정당한 당의 문서를 통해 통치하였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 영웅통치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죽음으로 정치권력이 제3세대에게 넘겨졌으며, 이들 제3대 지도체제를 이루고 있는 인물들의 특징은 영웅적 카리스마가 없고 영웅세대도 아닌 직업관료라는 점이다. 중국의 최고 지도층을 이루고 있는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 7명은 모두 직업관료들이다. 총서기 장쩌민은 전기공학을 전공하였고, 오랜 기간 기계와 전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고 후에 상하이 시장이 되었다. 그 밖에 리펑, 차오스(喬石), 리루이환(李瑞環), 류화칭(劉華清), 주룽지(朱鎔基), 후진타오(胡錦濤) 등도 모두 제각기 전문분야의 직업관료들이다. 이제 이들은 통치의 직능에서 그 전 세대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즉 한 사람에 의한 전체 통치가 아니라 각각의 분야를 전문인들에게 넘겨주어 지도자는 그것들을 통괄하는 것으로 더 성숙되고 전문화된 당정과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람에 의해 당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집단 지도체제를 통해 보다 원활한 정치를 할 수도 있다.

결국 덩샤오핑의 죽음은 옛 혁명시대의 종말과 새 건설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고, 옛 지도체제의 종료와 새 지도체제의 개시, 옛 영웅 통치의 종언과 새 직업관료 통치에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덩샤오핑이 마오쩌둥의 질고적 통치 유산과 손상된 경제 부담을 안고 중국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나간 것과 같이, 그의 대를 이을 통치자들은 덩샤오핑의 한계성 있는 통치 유산과 복잡화된 산재한 경제,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중국을 더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근대중국이 모든 중국의 정치지도자에게 부여한 역사적 사명과 책임이 있다.

왕쓰웨이 목사/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소장

- 1) 劉金田 編, 《鄧小平의歷程》 上(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4), pp. 12~21.
- 2) 위의 글, pp. 23~24.
- 3) 毛毛, 《我的父親鄧小平》 上卷(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3), pp. 145~152.
- 4) 위의 글, 주1), pp. 41, 149, 263.
- 5) 劉金田 編, 《鄧小平의歷程》 下(北京: 解放軍文藝出版社, 1994), p. 2.
- 6) 鄧小平, <怎樣恢復農業生產>, 《鄧小平文選》 第一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4, 第二版), pp. 323~327.
- 7) 鄧小平, <全黨講大局, 把國民經濟搞上去>, 《鄧小平文選(1975-1982)》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1983, 繁體字版), p. 4.
- 8) 위의 글.
- 9) 中共中央黨史研究室 著, 《中國共產黨的七十年》 (北京: 中共黨史出版社, 1991), pp. 488-490.
- 10)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讀》 上冊 (北京: 人民出版社), 1987, pp. 342~343.
- 11) 「두 가지의 모든(兩個凡是)」이란 「마오 주석(毛主席)이 내린 모든 결정들은 우리가 모두 굳건히 수호하고 마오 주석의 모든 지시는 우리가 모두 시종일관하게 준행한다」 를 가리킨다.
- 12) 위의 글, 주12), pp. 484~486.
- 13) 鄧小平, <一心一意搞建設>, 《鄧小平文選》 第三卷 (北京: 人民出版社, 1993), pp. 9~10.
- 14) 위의 글, 주9), pp. 486~487.
- 15) 「네 가지의 견지(四項基本堅持)」란 반드시 사회주의의 길을 걷는 것을 견지하고, 반드시 무산계급의 독재를 견지하고, 반드시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모택동 사상을 견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鄧小平, <堅持四項基本原則>, 《鄧小平文選(1975-1982)》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pp. 150~151.

- 16) 위의 글, 주7), pp. 131, 140, 143.
 17) 위의 글, 주13), p. 360.
 18)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청사진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덩샤오핑은 늘 말과 연설을 할 때 중국특색적 사회주의의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쓰고 있는데 그의 이야기와 글에서도 명확하지 않은 게 특색이다. 이 제목으로 쓴 글 가운데 두 개의 글이 있다. <各項工作都要有助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鄧小平文選》第三卷, pp. 22~23, 62~66.
 19) 鄧小平, <一個國家, 兩種制度>, 《鄧小平文選》第三卷, p. 58.
 20) 鄧小平, <中國大陸和臺灣和平統一的設想>, 《鄧小平文選》第三卷, p. 30.
 21) 여기서 「애국가」의 기준이란 자기 민족을 존중하고, 성심성의껏 조국의 홍콩에 대한 주권행사를 옹호하며,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손상시키지 아니한 자라야 한다. 위의 글, 주19), p. 61.
 22) 鄧小平, <思想更解放一些, 改革的步子更快一些>, 《鄧小平文選》第三卷, p. 265.
 23) 위의 글, 주20), p. 30.
 24) 위의 글, 주9), p. 501.
 25) <中共中央關於建立老幹部退休制度的決定>, 《十一屆三中全會以來重要文獻選讀》上冊, pp. 411~421.
 26) 魏京生, <魏京生假釋以來言論集> (香港: 民主大學, 1996), p. 88.
 27) 鄧小平, <堅持黨的路線, 改進工作方法>, 《鄧小平文選(1975-1982)》, p. 243.
 28) 鄧小平, <關於反對錯誤思想傾向問題>, 《鄧小平文選(1975-1982)》, p. 337.
 29) 鄧小平, <搞資產階級自由化就是走資本主義道路>, 《鄧小平文選》第三卷, p. 123.
 30) 鄧小平, <旗幟鮮明地反對資產階級自由化>, 《鄧小平文選》第三卷, pp. 194~196.
 31) 《九十年代》總230期, (1989. 3), p. 18.
 32) 方良柱等編輯, <悲壯的民運> (香港: 明報出版有限公司, 1986), pp. 9~28.
 33) 위의 글, pp. 29~122.
 34) 鄧小平, <在接見首都戒嚴部隊軍以上幹部時的談話>, 《鄧小平文選》第三卷, pp. 302~304.
 35) 위의 글, 주29).
 36) 鄧小平, <中國只能走社會主義道路>, 《鄧小平文選》第三卷, p. 207.
 37) 鄧小平, <沒有安定的政治環境什麼事幹不成>, 《鄧小平文選》第三卷, p. 244.
 38) 鄧小平, <一切從社會主義初級階段的實際出發>, 《鄧小平文選》第三卷, p. 252.
 39) 위의 글.
 40) 鄧小平, <我們幹的事業是全新的事業>, 《鄧小平文選》第三卷, pp. 256~257.
 41) 위의 글, 주30), p. 196.
 42) 鄧小平,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鄧小平文選(1975-1982)》, p. 287.
 43) 위의 글, p. 281.
 44) 鄧小平, <關於政治體制改革問題>, 《鄧小平文選》第三卷, p. 178.
 45) 鄧小平, <怎樣評價一個國家的政治體制>, 《鄧小平文選》第三卷, p. 213.
 46) 당과 정부의 분리란 당이 영도적 위치에서 정부를 지도하되 당의 직무와 정부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당은 당의 역할을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위의 글, 주44), p. 177.
 47) 권력을 아래 기관에게 분배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관계 또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권력을 기층(基層)과 기업,

- 생산경영의 자주권력을 농민에게 넘겨주는 것 등을 말한다. 위의 글, 주44), p. 177, 180.
 48) 이는 정부의 기구들이 방대하고 중복적이며, 사람들이 업무에 소홀하며 효율이 낮기에 기구들에 대한 통폐합과 간소화, 효율화를 말하고 있다. 위의 글, 주44), pp. 177~179.
 49) 간부의 인사 개혁제도는 당과 국가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활력이라 할 때 간부의 젊음화를 가리킨다. 그러나 개혁개방 시대에 맞는 간부관 사회(四化)의 간부를 말하는데 즉 간부의 혁명화, 젊음화, 지식화, 전문화이다. 위의 글, 주44), p. 179.
 50) 위의 글, 주37), p. 245.
 51) 덩샤오핑은 특히 외국의 중요 인물과 국가원수와 대화를 할 때 늘 중국의 정치개혁은 중국적 실제상황과 실정에 따라 결정하여 진행한다고 역설해 왔다. 鄧小平, <關於政治體制改革問題>, 《鄧小平文選》第三卷, p. 178.
 52) 위의 글, 주30), p. 195, 주38), p. 252, 주40), p. 256.
 53) 공산당의 영도를 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것은 공산당을 버리면 동란의 국면을 맞이하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결국 불안정과 동란은 아무런 건설도 할 수가 없다고 보았다. 위의 글, 주38), p. 252, 주40), p. 256.
 54) 특히 덩샤오핑은 국내의 불안정한 요소가 있을 시에는 독재적 수단과 기율(紀律)의 사용, 법률적 수단 등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중국은 하나의 안정된 환경이 필요하며, 그럴 때만이 개혁과 건설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 鄧小平, <有領導有秩序地進行社會主義建設>, <中央要有權威>, 《鄧小平文選》第三卷, pp. 210~212, p. 277.
 55) 鄧小平, <各項工作都要有助於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鄧小平文選》第三卷, p. 23.
 56) 홍콩 《信報》 1997년 3월 14일자.
 57) 1991년 통계에 의하면, 국유 공업기업이 총 367억의 인민폐 손실을 낳았고, 1980~1991년 사이에 국유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7.8% 인데 반하여, 향진기업은 94.4%, 기타 경제유형의 공업기업은 43.5%의 연평균 성장률을 보였다. 林毅夫等, 《中國的奇蹟 發展戰略與經濟改革》(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95), pp.185~186. 또 1996년 상반기에 전국 시험도시의 131개의 국영기업 가운데 폐산을 맞이한 기업의 자산 총액이 42억6천만 인민폐였다. 홍콩 《信報》 1997년 3월 17일자.
 58) 국영기업체의 노동자들이 개혁과 당, 정부에 대한 대항 국면이 날로 심각하고 있기에 급기야 97년 당중앙과 국무원의 <1호문서> 에도 이들이 하나의 사회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요소로 대두되어 97년도 당과 정부의 중점 해결사항으로 간주되었다. 홍콩 《明報》 1997년 1월 27일자.
 59) 林衛, <反腐雷聲又響, 雨點是大是小?>, 《九十年代》總303期, (1995. 4), p. 39.
 60) 鄧小平, <第三代領導集體的當務之急>, 《鄧小平文選》第三卷, p. 310.
 61) 필자는 덩샤오핑이 최후의 몇 년 특히 1992년 1, 2월에 「덩샤오핑 남부도시 순방」부터 언어에 장애가 있는 그를 도와 말을 통역해주는 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질적 정치통치를 한 덩샤오핑의 통치형태를 가리켜 「통역통치」라 부른다. 덩샤오핑은 강한 쓰촨성 억양을 썼고 또 연로하였기에 그의 말이 불분명하게 들려지게 되자,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딸들을 통해 여행과 거 등을 함께 하였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말이 그의 말을 통역해주어 「통역통치」를 하게 되었다. 또 그의 딸들이 공개석상에 있을 때나 외국 나들이를 할 때 딸들은 덩샤오핑 대변인 노릇을 빈번히 해왔고 덩샤오핑의 근황과 건강도 딸들을 통해 뉴스화되었다. 덩샤오핑은 세 명의 딸이 있었지만 그의 「통역통치」는 둘째 딸 덩난(鄧楠)과 셋째 딸 덩롱(鄧榕)이 담당하였고, 특히 덩롱이 주로 활약하였다.

덩(鄧) 이후의 중국 사회

중국 현지인이 보는 덩샤오핑의 죽음

슈칭(書淸)

얼마 전 중국에서 큰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바로 중국 근대사의 돌도 없는 개혁자인 ‘정치스타’ 덩샤오핑(鄧小平)이 사망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는 ‘덩 이후의 중국’에 대해 여러 가지로 추측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다시 폐쇄된 나라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과거처럼 정치 중심의 사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과연 덩(鄧)의 바톤을 잘 이어나갈 수 있을까 등등의 가능성을 추측하느라 애를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염려는 중국 백성들보다 오히려 해외에서 더욱 많이 논의되는 것 같다.

내일의 중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새벽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측하듯이, 역사가 발전해온 흐름과 현재 중국 사회의 여러 상황을 미루어 중국의 내일을 예측해보고, 그에 따라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비록 교포이지만, 중국에서 태어나 교육 받고 자라온 나는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중국의 내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에도 중국에서 덩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전 세계가 인정하듯 덩은 중국이 낳은 탁월한 정치인이었다. 그와 그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놀라운 속도로 변화되어 왔다. 비록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에게 대했던 그러한 숭배의식은 없지만, 절대 다수의 중국 백성들은 덩의 개혁개방의 노고를 인정하고 있고 그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그가 없음으로 인해 중국 사회에 일정한 공백기가 올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덩의 사망으로 인해 중국 사회에 어떠한 의식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덩은 생전에 중국인들에게 마음의 우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근 20년에 걸친 개방정책으로 말미암아 중국 사회에 자리잡았던 개인숭배 사상은 사라져버렸다. 비록 정치체제는 일인(一人) 중심적이었는지 몰라도, 사상적으로는 개인숭배가 불가능해지고 말았다. 과거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에는 온 국민이 애도하여 호곡했지만, 덩의 죽음은 별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내지 못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번 크게 열린 자유의 문은 다시 닫힌 적이 없다. 태평양을 향한 황하(黃河)의 도도한 물은 다시 역류되지 않는 법이다. '89년 천안문사태를 겪으면서도 중국의 역사적 흐름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지금 중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는 가난을 벗어나는 것이다. 전 국민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번영이다. 이것은 13억 중국 백성들의 공통된 이념이다. 이것을 중국 사람들은 물질문명(物質文明)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대체할 다른 어떠한 이념도 없다. 근 20여 년의 개혁개방을 통해서 중국 백성들은 이미 물질적인 풍요의 단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이 단맛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인간의 의식변화는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중국에서 태어나 마오쩌둥의 혁명시대, 덩의 개혁개방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장경제 시대를 겪으며 자라왔다. 비록 세계적으로도 보기드문, 격변하는 사회에서 살아왔지만 한 사회의 의식변화는 오랜 세월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중국 국민들은 이미 깨어났다. 더이상 그들의 필요에 무지했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와 오늘의 삶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정치적으로 공산당은 자체개혁이 없이는 장기적인 집권이 불가능할 것이다. 구식의 유토피아적인 이념을 내세워서 더 이상 먹혀들어가지 않는다. 오직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발전 요구에 잘 부응하는 진보적인 당이 되어야만 지속적인 통치가 가능할 것이다. 한마디로 공산당도 경제번영이라는 실제적인 이념과 노선을 떠나서는 생존의 토양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가령 군부 통치가 이루어질지라도 경제번영을 목적으로 한 역사적인 큰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몇 개의 바벨탑을 쌓아왔다. 먼저는 중화사상(中華思想)을 내용으로 한 황하문명(黃河文明)의 바벨탑이다. 6천

중국 국민들은 이미 깨어났다. 더이상 그들의 필요에 무지했던 과거의 그들이 아니다.



경제 개혁의 물결이 전 중국을 휩쓸고 있는 지금, 구식의 유토피아적인 이념은 더 이상 인민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사진은 북경인민대회당.

킬로미터가 넘는 만리장성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산물이다. 하나님은 서양의 대포를 빌어 이 중화사상의 꿈을 깨뜨려버리셨다.

다음으로 중국이 붙잡은 것은 공산주의 사상이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상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결과는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중화사상이라는 이념을 사용하셔서 혼란이 가장 심했던 중국 땅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일민족으로 만드셨고, 또한 '공산주의'라는 철권통치를 사용하셔서 중국의 뿌리깊은 미신을 제거해버렸다. 그리고 산 하나를 넘어, 마을마다 말이 다른 방언을 북경표준어로 통일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공산주의와 문화대혁명이라는 시련을 통해 중국 교회를 정화시키고 발전시켜오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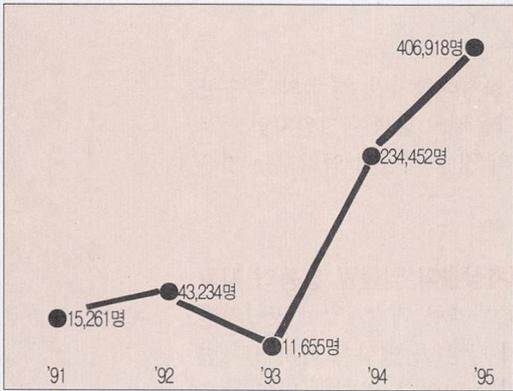
이제 중국은 경제번영의 이념을 붙잡았다.

중국 방문객 4년새 26배 증가

덩샤오핑(鄧小平) 추도식을 현장에서 본 한국인들은 얼마나 될까. 업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매년 크게 늘고 있어 덩샤오핑의 추모 행사를 직접 지켜본 한국인 방문객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인들은 한·중수교 전인 91년 1만 5천 3백여 명으로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92년 양국 수교 후 급증, 불과 4년만인 95년에는 40만 7천 명에 달했다. 한·중 수교 이후 3년간('93~'95) 한국인의 중국 방문객 연평균 증가율은 111.3%로 한국인 총출국자수의 증가율(20%)을 크게 웃돌았다.
<주간한국>

중국 방문자 추이



이들은 그 어떤 험난도 극복하며 만리장성을 쌓던 끈질긴 국민성으로 기필코 경제대국의 꿈을 이루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도 사용하실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중국의 13억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친히 중국 땅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약속을 성취하셔서, 시냇물의 백성들을 샘물 근원(사 49:10-12)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書淸 / 중국 현지인

덩샤오핑 관련 도서 안내

등소평 이야기(리처드 에번스)

<시카고 트리뷴지>는 이 책에 대해 「유익한 전기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도 충분하다」고 평했다. 저자의 통찰력으로 덩(鄧) 사후 중국의 변화를 조목조목 지적한 점도 눈길을 끈다(아이북스판).

작은 거인 등소평(한산벽)

중국문제 전문가 한산벽이 쓴 전기의 번역판. 지금까지 나온 그에 관한 기록 중 가장 자료가 풍부하고 자세하다는 평.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저자의 시각이 가치를 높였다(인문출판사판).

오락이 인생 등소평(한산벽)

이 책의 원서는 「등소평 평전」 지난 '87년부터 홍콩 월간지 「동서방」과 「남북극」에 게재됐었다(동양문화사판).

붉은별 등소평 上·下(진동일)

중국과 소련의 사회주의 노선 논쟁에서부터 과연 누가 종주국으로 살아남을지를 조명했다. 그러면서도 저자는 흑묘백묘론(黑貓白貓論)을 주장하며 자본주의 시장 개념을 도입한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인민의 황제, 즉 「붉은 별」이 될 것이라고 했다(대림기획판).

나인 아버지 등소평(등용)

덩의 셋째딸이 아버지를 옆에서 지켜보며 낸 책. 프랑스 유학시절에서부터 혁명가로 변해가는 과정을 다뤘다. 또 마오쩌둥과의 알력으로 유배나 다름없이 지내던 시절의 기록은 어느 관련서보다 상세하다(삼문판).

등소평 문선 1·2권(등소평)

82년부터 92년까지 덩샤오핑의 주요 저작들을 수록한 것으로 연설문 담화문 어록 등 119편이 주를 이룬다. 정치, 경제, 교육, 외교, 사회, 과학 등에 걸쳐 사회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제부흥을 노리는 그의 독특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범우사판).

덩샤오핑 없는 중국 그리고 홍콩

강성광

공식 적인 정치 일선에서 퇴직한 지 이미 7년이 넘고, 더욱이 93세의 고령으로 사망한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세계 언론과 정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지도자를 세계 현대사에서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덩샤오핑의 건강 악화 소식이 들릴 때마다 홍콩 증권시장의 주가 시세가 떨어지기도 했고, 덩샤오핑의 건강에 관한 소식은 늘 중국 당국의 1급 비밀로 취급되어 왔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제 개방과 개혁의 주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인 중국의 전통적인 가치 개념에서 당(黨), 군(軍), 정(政)의 최고 실력자로 군림했던 그의 생존 자체가 상당히 권위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이유는 그가 공식적으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후계자로 앉힌 장쩌민(江澤民) 총서기가, 형식적으로는 덩샤오핑이 가졌던 직임보다도 더 완벽한 당(총서기), 군(중앙군위 주석), 정(국가 주석)의 지위를 확보했으면서도, 마오쩌둥(毛澤東)이나 덩샤오핑이 가졌던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사실상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7년이 나 당총서기로서 실제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앉아 중국을 통치해왔지만,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강력한 지원자인 덩샤오핑 사후 그의 정치 기반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중국 내부 정치상황과 맞물린 홍콩의 자치
이미 덩샤오핑이 죽은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중국과 홍콩에 당장 큰 영향이 미치거나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덩의 죽음이 장차 중국과 홍콩의 미래에 적지않은 변화와 영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특히 홍콩의 중국 반환이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홍콩 반환을 '일국양제(一國兩制: 한국가 두 체제)'라는 특수한 정치적 발상과 시도로 주도해온 장본인의 죽음이 홍콩 반환과 일국양제 시행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홍콩의 중국 반환 시기까지 살 것을 믿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고, 90세가 훨씬 넘은 그의 죽음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고 준비되었기에, 큰 충격이나 영향은 여러 면에서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홍콩인들은 홍콩의 장래를

덩샤오핑의 사후와 관련하여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퉈을 중국 반환 이후 홍콩의 미래에 덩의 사망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떤 결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 홍콩의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은 중국 정세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즉 중국의 정세가 덩샤오핑 사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홍콩의 장래 정세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일국양제라는 정치적 언약, 그리고 앞으로 대만을 홍콩과 같은 형태로 흡수하길 원하는 중국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7월 1일 이후로 설사 중국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절제되어 홍콩 사회에 충격을 직접 주지 않는 범위에서 많은 배려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에서 약속한 홍콩의 자치(自治)가 얼마나 보장이 되고 실현이 될지는 중국 내부의 정치 상황에 따라 그 정도차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서 그랬듯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홍콩인들 스스로 그들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수 없는 현실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 정체를 살피고 계속 관찰해나가는 것이 중국과 홍콩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간의 불균형

장쩌민 총서기와 중국 최고 지도자층은 최근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사실 덩샤오핑의 사망 소식이 발표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중국 전역에 걸쳐 전 인민해방군과 공안당국에 1급 비상령이 발동되었다. 혹시 정치, 사회적으로 큰 동요가 일어날까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덩샤오핑이 2~3년 전에 죽었다면 중국의 정세는 훨씬 더 불안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현 지도층들은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적인 많은 도전들에 직면해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이 도

중국의 정세가 덩샤오핑 사후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홍콩의 장래 정세가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쩌민과 함께 한 생전의 덩샤오핑(오른쪽은 그의 딸 덩퉁).

전을 극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미래가 결정되고 그 결과가 홍콩에도 크게 작용하리라 본다.

덩샤오핑의 가장 큰 공(功)을 들라면 개혁 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점이고, 가장 큰 손실이라면 정치개혁을 이룩하지 못하여 천안문 사태와 같은 정치적 비극을 초래하고 경제개혁과 정치개혁 간의 큰 불균형을 초래한 점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것들이 중국의 미래에 정치, 사회, 경제적인 불안요인을 남긴 것이다.

사회적 불안의 내재로 정치적 부담 가중돼

기존의 당 절대 수위의 보수적인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8월에 개최된 전인대(全人大: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집권당인 공산당에 군이 주도되는, 즉 중국 군대를 당군(黨軍)화 하는 국방법을 제정하여 통과시켰다. 경제와 사회는 계속 개방과 다양성을 향해 발전해가고 있는데, 정치 영역은 여전히 보



수적 좌파(左派)의 영향권 안에 묶이고 있다는 표징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최고 권력 층은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경우우라든지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할 경우, 오히려 더 보수적인 좌파 성향으로 기우는 것이 통례이다. 향후에도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그 밖에도 최근 연달아 분리 독립 운동을 요구하는 신장 위구르자치구 폭동 사건과 베이징시 버스 폭탄 테러 사건 등이 베이징의 정치 리더십에 큰 타격을 주기도 했다. 그리고 올 가을에 개최될 중국 공산당 15기 전체 전당대회는 5년마다 열리는 전당대회로서, 당내의 중요 인사가 배치되고 조정되는, 소위 권력 변동과 향후 몇 년의 정치노선이 결정되는 중요한 대회이다. 그러므로 절대 실력자인 덩샤오핑의 지원없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부 권력 투쟁이 일어날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도 물가폭등은 어느 정도 잡혔다고 하지만, 심각한 국영기업의 적자 및 운영난으로 수천만의 실업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미 실제적으로 전국 도시의 실업률이 7%에 도달하는 등 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도 불안 요소가 가중됨에 따라 정치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중국의 변화, 더 이상 정치 지도층만의 몫이 아니다.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덩샤오핑

사후 중국의 정치 기류는 최소한 단기간 동안은 상당히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절대적으로 덩샤오핑 사후의 영향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의 중국의 총체적인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다시 말해, 덩샤오핑의 사망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덩샤오핑의 죽음이 단기적으로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인 인물이 절대적으로 주도하는 정치 형태하에서 당분간 좌의 성향이나 보수 성향이 짙은 정치노선을 견지할 가능성을 가져다줄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점차 법제화되고 제도화되는 정치 민주화를 지향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1~2년 동안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면에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덩 사후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에서 비롯된 변화일 것이다. 이제 중국의 변화의 주체는 정치 지도층의 결정과 의지보다는 사회, 경제의 변환과 발전, 그리고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지식인과 상공인 출신의 중산층 계열 그룹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홍콩 「明報」, 「信報」(1997년 2월 20일~3월 15일)

강성광/ 홍콩 주재 중국선교사

덩 이후의 중국, 중국선교를 말한다

진담희

일 시 : 1997년 3월 6일

참석자 : 유관지 목사(극동방송 이사)

우심화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

왕쓰웨 목사(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소장)

사회자 : 이요한 총무(중국어문선교회)

걸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입니다. 마오쩌둥이 체제면에서 인민을 해방시켰다면, 덩샤오핑은 경제면에서 인민을 해

방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중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덩샤오핑이 없었다면, 다시 말해서 그에 의해 개혁 개방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았다면, 동서 냉전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을 것이며 동구권을 비롯한 공산, 사회주의 체제의 와해도 늦어졌을 것입니다. 최근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로 많이 이동된 점도 덩샤오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의 주도권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회자/ 덩샤오핑(鄧小平)이 지난 2월 19일 사망했습니다. 그는 생전에 ‘오뚜기(不倒翁)’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 번 실각의 위기를 겪고서도 다시 일어나, 1979년 11기 3중전회(三中全會)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덩샤오핑의 여러 정책과 그로 인한 중국의 변화, 그리고 그의 죽음이 중국에 끼칠 영향을 전망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과 역사적·선교적인 측면에서 덩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덩 사후의 중국선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선 덩샤오핑의 집권과 그의 죽음이 갖는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지/ 아시다시피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 더불어 중국 근현대사의 정치·경제·사회에

우심화/ 중국은 세계 역사 속에서 자국(自國)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이 점은 덩샤오핑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덩샤오핑 사후에도 중국의 존립과 번영을 향한 모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마오쩌둥 사후와 같은 급격한 변동은 없을 것이며, 개혁

개방의 물결도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 이후, 중국 내부에서 일어난 새로운 변화들이 향후 중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청말(清末)의 양무운동(洋務運動)이 중국이 국제 질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구국(救國)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작된 것이었다면,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은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이 특히 국내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왕쓰웨이/ 덩샤오핑의 죽음은 현대 중국에 있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영웅적 지도자 시대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혁명 1세대이면서 정(政)·당(黨)·군(軍)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신망을 얻은 정치 지도자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첫 번째였고, 덩샤오핑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중국 정치사로 본다면 덩샤오핑의 죽음은 혁명 제2세대 지도체제가 이제 끝나고, 혁명 제3세대 지도체제가 막을 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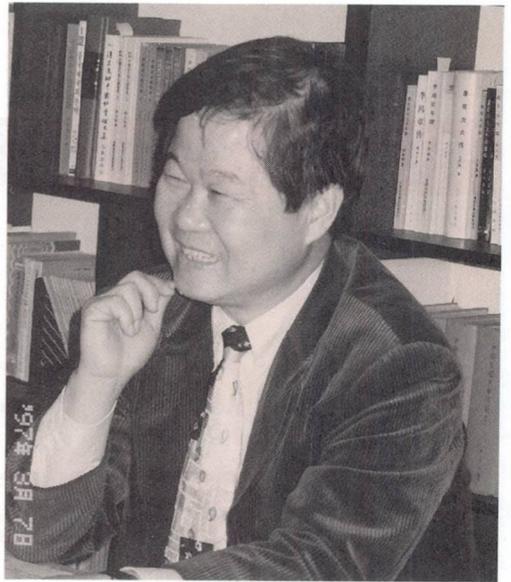
또다른 의미로는 중국의 정치 스타일이 영웅통치에서 직업관료 통치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자고로 “정권은 총대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과거에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군 경력이 화려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을 계승한 장쩌민(江澤民)의 경우 전기공학을 전공한 직업관료로서 군 경력은 전혀 없습니다.

당의 실용주의, 중국 종교의 회복 가져와

사회자/ 덩샤오핑의 집권과 죽음을 선교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선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유/ 덩샤오핑은 중국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중국선교가 가능하도록 만든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 덩의 개혁 개방 속에 종교 정책도 한 부류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덩샤오핑이 말하는 종교의 회복이란 서양과 같은 일



유관지/ 최근 역사의 중심이 아시아로 많이 이동된 점도 덩샤오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역사의 주도권을 갖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반적인 종교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전의 종교 상황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즉 문화대혁명으로 인해 억눌려 있던 종교를 일정한 제한하에서 중국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덩샤오핑이 선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면과 마찬가지로 그의 죽음이 선교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유/ 덧붙이자면 1978년 이후 제한적으로나마 종교의 자유를 허락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으며, 기독교가 중국 공산 체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자로서 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의 세력들을 결집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자/ 현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현안들, 즉 지도체제 확립, 천안문 사태 재평가, 소

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 등을 중심으로 덩샤오핑 사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해주시기 바랍니다.

유/ 장쩌민에 대한 군(軍)의 충성서약이 낮은 점으로 비추어 군의 동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군을 배경으로 했기에 안전했지만 장쩌민은 그렇지 못합니다. 왕 목사님께서 이미 언급하셨듯이, 앞으로 중국이 영웅통치에서 직업관료 통치로 넘어가는 일을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할지가 주목됩니다.

사회자/ 현재 천안문사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펑(李鵬) 총리와 짜오쯔양(趙紫陽) 등입니다. 자체 권력다툼 중에 가령 리펑을 실격시켜야겠다고 할 경우 이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유/ 천안문 사태에 대한 재평가는 정권 이양만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별다른 이견(異見)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덩샤오핑을 격하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달라지겠지요.

유/ 중국이 정치적 개방만 잘 이루어 낸다면 천안문 사태에 크게 얽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산당 지도층 내에서 덩샤오핑과 다른 노선을 취할 경우에는 덩을 격하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리펑이 고위층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안정만 지속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 지금 지구상에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으로 새로운 국가들이 계속 생겨나는 추세입니다. 중국 내에서 소수민족들의 독립 움직임도, 소련에서 체첸이 그러했듯이 그저 조용히 지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위구르와 시짱(西藏)자치구도 결국 때가 되면 독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수민족들의 거주지역이 대부분 국경지역이므로 국방과도 관련이 깊지요. 그 점이 바로 중국으로 하여금 소수민족들에게 유대정책을 쓰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경제문제, 정치개혁으로 풀어야



우심화/ 덩샤오핑은 실용주의자로서 외국으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종교의 세력들을 결집하고자 했습니다.

사회자/ 지금 제8기 전인대(全人大) 5차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경제대표들이 국유기업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더라며 리펑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국유기업 정리문제나 노동간·지역간·개인간 빈부격차 문제 등과 관련된 경제적인 현안들이 향후 중국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유/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들은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두운 그림자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도기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경제적 현안들을 해결할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장쩌민이 정치적인 안정권에 들어서느냐는 올 7월에 있을 홍콩 이양과 10월에 열릴 제15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빈부격차나 물질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패 등과 같은 경제적 현안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가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마오쩌둥이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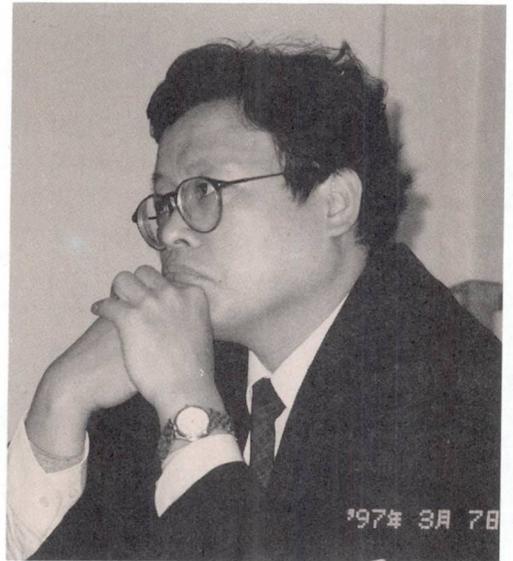
다'라고 말했지만, 덩샤오핑은 경제문제는 곧 정치문제라고 할 만큼 경제를 중시했습니다. 도농간·지역간 소득격차, 빈부격차, 국유기업의 도산과 실업자 양산 등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문제들은 중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 권력구조와 관련이 깊습니다. 가령 '특정 지역에게 개방의 특권을 주어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정책이 지역간 소득격차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제(法制)를 소홀히 하고 당 문서와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행도 문제 방치의 원인입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부패문제도 당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큰 데서 비롯됩니다. 고위층의 서명 하나에 모든 일들이 좌지우지됩니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에는 정책이 있지만 아래는 대책이 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경제문제는 정치문제가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사회자/ 일반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부조리들이 개방에 따른 자본주의의 도입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국이 권력구조, 정치관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도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 민공(民工), 치안 악화, 정부 관리들의 부패와 독직(瀆職) 문제 등 사회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 개혁 개방 이후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배금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국 사회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있지요. 더불어 도덕적으로 제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다고들 합니다.

왕/ 국유기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해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제2직업, 제3직업을 갖거나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동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점차 통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도시마다 빈민과 범죄가 증가하여 치안이 악화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



왕쓰웨이/ 덩의 죽음이 중국에서 지금 당장 큰 변혁이나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 문제들은 법제 및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혁 없이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유/ 가장 바람직한 사회구조는 중산층이 많은 마름모형이고, 가장 불안정한 구조는 하류층이 많은 삼각형인데, 중국의 사회구조가 점점 삼각형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듯

사회자/ 계속해서 덩샤오핑 사후 중국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주시지요.

유/ 덩샤오핑은 지난 몇 해 동안 이미 실질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사망 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때문에 장쩌민이 조기 실각할 염려는 없으리라 봅니다. 아마도 큰 혼란 없이 개혁개방은 계속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면, 정치해방 즉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 저 역시도 덩의 죽음이 중국에서 지금 당장 큰 변혁이나 혼란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추정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당과 정치노선이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11기 3중전회 이후 12, 13, 14차 공산당 대회를 통해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 변함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특히 11기 3중전회에서 ‘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12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13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14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선언했습니다. 둘째, 덩이 조기 퇴임을 했기 때문에 중국 사회는 오랫동안 덩샤오핑이 없는 상태에 적응해 왔습니다. 셋째,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만 덩샤오핑이 자신을 신격화, 우상화, 이상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오쩌둥이 우상화되고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이상화된 것과는 달리 그는 평민화된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 주었습니다. 사생활도 깨끗했지요. 가족이나 부인과의 단란한 모습을 보인 것도 고위층에서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넷째, 14차 공산당 대회 때 당의 여러 노선을 견고 있던 지도자들의 격렬한 대립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주제 아래 무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장쩌민을 중심으로 집단 지도체제를 이루고 있는 정치 상무위원들의 권력기반이 서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지도자들과 같은 카리스마의 결여로 인해 이들 간의 상호 권력 투쟁보다, 오히려 자신들의 기득권과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상호 안전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 중국에서 큰 변혁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덩샤오핑의 최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 현재 중국과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나 세계 열강들의 중국에 대한 정책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숨통 조이게 될 선교활동

사회자/ 요약하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될 것이며 정치체제에서도 장쩌민을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

가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선교적인 면에서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런지요?

유/ 마치 로마 말기에 기독교를 박해하지 못하고 용인한 것처럼, 중국에서도 어찌되었든 기독교를 강력한 통제 아래 두기에는 교회가 너무 커졌습니다. 극동방송으로 날아 오는 편지가 79년에 1만여 통에서, 작년에는 ‘엔타(嚴打)운동’과 같은 엄격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2만여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와 하는 선교는 여전히 엄하게 제재할 것이 분명합니다.

왕/ 개인적인 견해로는, 덩샤오핑의 사망과 맞물려서 ‘정치·사회 안정을 원하는 분위기 속에서의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보도되지 않았습디만, 지난 1월 6일 당중앙과 국무원에서 ‘한 발 앞서 정치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불안정 요소를 검사, 제거에 관한 통지’라는 제목하에 『1호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은 올해 중국은 정치·사회 안정 확보를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 사회 내의 10가지 불안정한 요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홉 번째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공산, 반중국 세력의 중국에 대한 침투, 전복, 선동활동이고, 열 번째는 중국 내 ‘서방의 배후 조종을 받은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를 중국에 대한 침투, 파괴, 선동활동으로 규정하여 금년에 이런 활동들을 엄격히 다스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의 선교활동은 더욱더 숨통을 조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비공인된 가정교회들은 해외의 지지를 받고 있는 세력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더 탄압받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사망을 빌미로 하여 선교활동은 더 큰 제재를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유/ 장쩌민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은 현재 중국의 가치관과 도덕관 등이 해이해졌다고 봅니다. 작년부터 강조되고 있는 정신문명 건설은 바로 이런 시각에서 기인합니다. 어찌면 기독교를 그들이 제창한 정신문명 건설에 방

해가 된다 하여 단속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기독교의 참모습이 제대로 보여진 적은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중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 해외 기독교 단체들이 기독교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발전과 그들이 지향하는 정신문명 건설에 기독교가 어떻게 이바지할 수 있을지 보여준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좀더 관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

사회자/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볼 수 있는 7월의 홍콩 반환과 한국 교회의 조선족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선교사들이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소수민족의 분리운동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구르, 티벳 다음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족이 바로 조선족입니다. 그들은 한국 교회의 선교 활동을 조선족들의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것과 결부시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직접 선교보다는 간접선교로 전환되었으면 합니다. 직접선교를 계속할 경우엔 부작용이 더 커질 것입니다.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홍콩 반환과 관련해서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먼저 홍콩에 있는 중국선교 기관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다음은 중국선교에 대한 한국 교회의 역량과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중국선교를 통해 얻은 수확을 토대로 더욱 절제되고 방향성이 있는 선교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장에서 성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처럼 중국선교 역시 성숙과 비약으로 전환되어야겠습니다.

유/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 교회를 세우는



유관지/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성장에서 성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처럼 중국선교 역시 성숙과 비약으로 전환되어야겠습니다.

것보다는, 중국 교회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목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신학적 소양도 보다 더 향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왕/ 금년도 중국의 정치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몇 가지 선교적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형태의 노선이 있습니다. 공인된 사역(삼자교회와의 협력)의 경우에는, 계속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삼자교회나 정부 루트를 통한 사역은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가령 소수민족 지역에서 필요한 지역사회 개발 사역이나 복지사역을 선교사들이 시도만 한다면 크게 전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기보다는 한 지역에서 한 프로젝트를 갖고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사역할 것을 권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국 교회를 돕는 공식적인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비공인(미등록 가정교회와의 협력) 사역은, 정치·사회 안정을 강조하는 중

국의 '대기후(大氣候)' 속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며 제재를 받으리라 예상됩니다. 때문에 이전보다 더 은밀하고 조심스럽게 진행시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현지 상황에 따라 중도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역의 공백이 곧바로 사역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정치 조류나 상황에 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숨고, 약할 때는 전면에 나서는 전법을 써야 합니다. 아무튼 금년에는 대형집회, 특히 조선족 지역에 가서 큰 장소를 빌려 가정교회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집회를 갖는 것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역의 지속성과 안전성을 위

해 다른 형태로 비밀리에 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결론적으로 덩샤오핑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앞으로의 중국과 중국선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사회 안정의 기조 속에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의 기세가 드셀 때에는 조금 절제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오늘날 중국선교에 헌신된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시간 말씀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리/ 안정숙·본지 편집기자

중국교회와 선교 제2호

현장성을 띤 연구물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구성된 반년간지 《중국교회와선교》 2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중국의 정치와 종교와의 상관관계, 중국의 종교정책,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선교, 다원화된 중국선교의 현황과 방법에 관한 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 집/ 중국의 정교(政教)관계와 그 논쟁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기에 부합하는 정교관계 / 이관
전체주의 중국에서의 정교지배와 연속성 / 왕쓰웨이

주요논단

덩샤오핑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 왕쓰웨이
1990년대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와 그 대안 / 김진선
티벳 지역의 민족 특성과 갈등 / 한윤숙

구독신청/ 중국복음선교회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TEL: 02) 318-6867
정가/ 7,500원



공산당원도 예수를 믿는다

메이쥙즈(梅增知)

공산당원인 B형제

이번에 A현(縣)에서 양육훈련을 할 때, 과거 이 지역의 통전(統戰) 간부였다가 현재 한 처소의 책임자로 있는 E 형제를 알게 되었다. 나는 E 형제와 교제하는 기회를 통해 그의 간증을 들었다.

E 형제는 1950년대에 A현의 교사로 일했는데, 학교에서 위낙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그 성(省)의 모범 교사와 모범 노동자로 인정받아 당원으로 추천되었다. 그 후 교사를 그만두고 당 조직위원회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A현의 당비서가 되어 문화교육과 공공위생 부문을 맡았다.

문화대혁명의 혼란 속에서 1962년 반우파분자들에게 우익분자로 낙인찍혀 면직된 그는 고향에 돌아오게 된다. 이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아 큰 병이 들었지만, 오히려 병으로 인해 친척의 인도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는 문혁의 긴긴 세월동안 고향에서 농사만 짓고 살았다. 1980년 누명이 벗겨져 명예를 회복한 뒤, A현

의 당비서로 복귀하여 통전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각종 종교정책을 실행하고 교회사역을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관할하는 교회 재산은 모두 잘 처리해서 삼자교회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것으로 믿었던 그는, 뜻밖에도 삼자교회의 원로 목사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확장하려는 열심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때부터 그는 이런 일을 하는 데 마음을 즐겼다.

1990년에 퇴직하면서 주께 헌신하고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한 그는, 그 지역의 가정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했다. 그곳에는 3, 40개의 삼자교회에 속한 처소 외에, 가정교회에 속한 몇십 개의 처소도 있었다. 현재 몇몇 형제들이 팀을 이루어 30여 개 처소를 책임지고 있다. 퇴직한 후 그는 당조직 위원에게 자신의 신앙을 공개

하고 탈당보고서를 냈다. 그런데 그 당원이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중국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아직까지 당원이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문건이 없으니, 당신이 예수 믿는 것에 우린 일체 간섭하지 않겠다”며 탈당할 필요가 없다고 만류하는 것이 아닌가! E 형제의 말로는 자기같이 공산당원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A현에 20여 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 신변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한다.

소수민족을 위해 바치는 젊음

현재 지도자로 양육받고 있는 훈련생인 F 자매는 복음 전파의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열정적인 자매이다. 그녀는 복음 전파를 위해 자신의 결혼 상대로 먼 소수민족 지역에 있는 사람을 택하기로 했다. 그런데 당시 그녀가 가고자 했던 지역에는 몇 명의 크리스천들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회를 허락받고자 현지의 당간부를 찾아갔다. 당간부는 기독교에 대해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 ‘무슨 기독교냐! 집회는 안 되고 예배는 드릴 수 있다’고 하여, 가정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모이는 성도의 수가 이미 수천 명으로 늘어나 이제는 당간부들조차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들은 외국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번듯한 예배당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당간부는 F 자매를 불러 그들에게 새 예배당을 지어줄 땅을 물색하고 있으나, 교회 성도수



가 너무 빨리 증가한다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F 자매는 그에게, 조금도 불편이 없고 이대로도 만족한다며 설사 건축부지가 있더라도 교회를 건축할 능력도, 목회할 목사도 없다며 부드럽게 거절했다. 사실 이 F 자매는 혼자서 몇천 명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온갖 자질구레한 일도 처리해야 하고, 산간지역에 흩어져 사는 성도들을 심방하랴 매우 수고하고 있다. 그녀는 모든 시간을 사역에 투자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은 젊은 동역자들이 함께 섬기고 있다. 그녀는 교회 사역에 충성된 형제 한 명을 보내주실 것과, 멀리 소수민족 지역에서 고생하는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하였다.

梅增知/ 중국 지도자 양육 훈련 사역자
번역 /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재중동포 사기 피해사건과 중국선교 동향

김형석

머리말

지난해 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상임대표: 서영훈 장로)이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재중동포들에 대한 사기 피해사건의 실태보도는 전국민적 관심 속에 중요하고도 당면한 사회적·민족적 문제로 부각되었다. 한동안 잊혀져가던 ‘조선족’의 존재가 남북통일을 위한 가교(架橋)로서의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새롭게 조명되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배타성과 부도덕성의 농도를 다시 한 번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정치,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수교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 생산된 양국민들의 교류 속에서, 유독 내국인과 재중동포 사이에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데는 「페스카 마호 선상 반란사건」을 비롯 일부 조선족들에 의해 파생된 부정적 사건들의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 가운데는 내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광범위한 사기사건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동포로서의 입장에서 모국인들을 대하던 대다수의 순수한 재중동포들을 ‘동포’라는 개념보다는 ‘중국의 조선족’으로 자리매김한 우리들의 이기주의

적 발상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발표자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자성하는 심정으로 그간의 일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같은 자세야말로 향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와 중국선교, 나아가 통일과 민족화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사건의 실태

그간의 경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내국인들에 의한 재중동포 사기 피해사건’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5일 48개 시민·종교단체로 「재중국동포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김진홍 목사)를 결성하였다.¹⁾

이어 11월 27일에는 두 단체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1) 동 위원회는 ‘재중동포 사기 피해사건’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율적인 범사회 차원의 대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뜻을 함께 하는 모든 단체에 문호를 개방하였는데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륙선교회」, 「두레공동체」, 「한국대학생선교회」, 「한국선명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하였다.

기자회견을 가진 후 ‘재중동포에 대한 내국인 사기 사건’으로 접수한 9,300여 명분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조선족 1만 4백 가구가 피해를 당하여 피해액만도 330억 원에 달하였다. 이 자료는 「외국인노동자피난처」(소장 : 김재오 전도사)가 9월 23일부터 48일간 중국의 동북삼성을 방문하여 실시한 조사 결과로서, 전체 조사 대상의 50%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가구 수는 2만 여 가구에 7백억 원의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물론 이 『조선족 사기피해 사건에 관한 진상보고서』는 순전히 조선족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참고로 조사된 것이어서 신뢰도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²⁾ 현재로서는 조선족 피해사건의 실태를 짐작할 수 있는 유일한 보고서이므로 그 내용을 참고로 하여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 중에서도 국내의 언론에 소개된 기사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사례별 분석

재중동포들의 사기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①취업사기 ②결혼사기 ③유학사기 ④이민(永久移住)사기 ⑤무역사기 ⑥여권위조 사기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가운데 대형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취업사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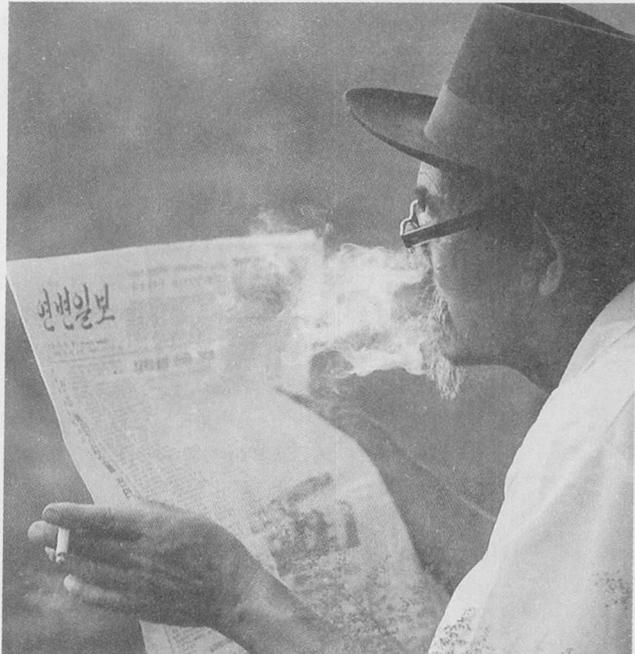
[사례1] 조선족 마을 최북단인 흑룡강성 나북현 동명향 려명촌은 연길에서 기차로 45시간을 달린 뒤 쌍발 비행기로 갈아타고 다시 8시간을 간 후, 또다시 버스로 4시간을 더가야 하는 오지(奧地)인데, 지난해 11월 하얼빈에서 합작사업을 한다는 김모씨가 찾아와 “서울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마을 사람들을 유혹하였다. 이 말에 솔깃해진 17세대에서 6만5천 위엔(한화 약 650만원)을 건냈는데, 김씨는 이 오지에서는 전 식구가 평생을 벌어도 만져 보지 못할 거금을 챙겨 달아나고 말았다. 이로 인해 피해자 모두가 한 움막에 처 박혀서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한다. ... 『중앙일보』 1996. 12. 4.

2) 당시 검찰측은 이 자료에 제출된 1만여 건의 사기사건과 10만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구체적인 혐의가 뚜렷한 660여 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사례 2] 길림성에 사는 김채순(61·여) 씨는 95년 중국여행을 하다가 중병에 걸린 한국인 이정석 씨(33)를 빗까지 내 가면서 가족들과 함께 치료해 주었다. 이로 인해 건강을 회복한 이씨는 한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은혜에 보답하겠다”며 한국으로 갈 사람을 모아 달라고 했다. 7명으로부터 한화 2천7백만 원을 모아 이씨에게 주었으나, 이씨는 이 돈을 떼먹고 달아났다. 그 후 피해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한 끝에 김씨의 세 자녀는 모두 이혼당하고 남편은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 『동아일보』 1996. 11. 19.

[사례 3] 지금까지 알려진 최대규모 사기사건은 전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겸 평화통일사무위원 김봉기 씨(54)가 재중동포 500명을 속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경제무역공사 사장실에서 이 회사 대표 정모씨에게 “조선족 동포를 모집해 주면 국내 원양업체에 노무연수생으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선원송출 수수료조로 1인당 60만 원씩 모두 1억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 『한국일보』 1996. 12. 23.

[사례 4] 한국인에게 사기당한 재중동포 최명옥(38) 씨가 18일 밤 7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 2명에게 얻어맞고 흉기에 찔린 뒤 공포에 떨다가 도피했다. 또 한국 입국을 위해 한족 3명으로부터 18만 위엔을 빌린 길림성의 허명철 씨는 구타당해 시력을 잃었다. 테러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 지 못하는 재중동포는 연길에만 수십 명이나 되고 있다. ... 『한국일보』 1996. 12. 27.



재중동포 사기피해는 전 조선족 사회에 좌절과 분노를 가져왔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재중동포에 대한 사기 피해 사건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비인간적으로, 대형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구체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르포 기사는 그 심각성의 정도를 잘 느끼게 한다.

「조선족들이 타국 하늘 아래에서 강인한 의지와 단결로 일궈낸 삶의 터전인 연변. 한민족끼리 오순도순 살던 그 땅은 이제 ‘절망과 눈물의 땅’이 돼 가고 있다. 전쟁이나 지진이 난 것이 아니다. ‘고국에서 온 동포’여서 무조건 반기고 철석같이 믿었던 한국인들의 사기극에 걸려 이들의 삶은 갈기갈기 찢겨졌다. 기자가 찾은 연변은 한국인에게 사기피해를 당한 조선족 동포들의 비탄과 한숨 소리가 짓누르고 있었다.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인이라면 이제 치가 떨립니다.” ... 요즘 들어서는 한국인에 대한 호칭이 ‘한국놈’으로 바뀌었다 ... “젊은 처녀들은 위장결혼으로 빠져나가고, 할머니는 친척 방문으로, 부녀자들은 밀입국으로 너도나도 한국으로 가 버려 지금 농촌에는 3대(代) 홀아비만 남아 있다”고 개탄했다. ...」 황의봉(黃義鳳), 『중 동포 사기에 운다』 중에서³⁾

물론 조선족 사회가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을 만큼 이같은 엄청난 사태의 책임이 한국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현지에서 활동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진상조사반」에 의하면, 조선족들에 의한 사기피해 또한 그 규모면에서 내국인들에 못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례 5] 중국 공안당국은 95년 12월 재중동포 천여 명을 상대로 인력송출 사기극을 벌인 재중동포 정현철 씨(35)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정씨는 지난해 초 「하얼빈 국제공사」 명의로 한 일간지에 노무인력 모집광고를 낸 뒤 하얼빈시 등에서 찾아온 재중동포 1천여 명으로부터 1인당 5천 위엔(한화 50만 원)씩 5백만 위엔(한화 5억 원)을 받아 챙긴 뒤 해외로 도피하려다 검거됐다.

[사례 6]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해 12월 신문에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중앙회가 본인의 상급회사인 중국해외무역총공사를 중국 내 인력송출기업으로 선정했다”고 선전한 뒤,

8백여 명으로부터 수속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위엔씩을 받아 가로챈 정병열 씨(52)를 구속 수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역으로 재중동포들에 의해 행해지는 한국 내에서의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족과 내국인간의 위장결혼을 주선한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내국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조선족 교포의 위장결혼 후유증으로 이혼 청구소송이 19건,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14건, 혼인취소 청구소송 2건 등 총 3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한다.⁴⁾

이처럼 한·중 두 나라간에 빚어지고 있는 사기 피해 사건은 정부 당국이나 건전한 의식을 가진 대다수의 국민들에 의해 발전되어 온 양국관계의 발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반세기 동안의 적대관계 속에서도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전통문화를 고수해 온 조선족 사회의 존립기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선교에의 영향

교회·선교사와의 관련성

중국에서 만연되고 있는 사기사건의 피해가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지난 수년 간 중국선교의 현장을 지켜본 발표자의 경우에도, 사실여부의 확인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선교를 구실로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다음의 기사는 그같은 사례의 일단을 나타내고 있다.

[사례 7] 서울 경찰청은 선교목적으로 중국에 갔다가 산업연수생으로 초청해 준다면 재중동포들의 금품을 가로챈 서울 H교회 집사 채성희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중국 길림성에서 알게 된 재중동포 남일룡 씨에게서 소개비 명목으로 85만 원을 받는 등 재중동포 22명으로부터 7천6백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 『한국일보』 1996. 2. 16.

재중동포 교회에 의한 사기사건 또한 마찬가지로인데, 한국에서 신학공부를 마치고 목사안수까지 받았

3) 『동아일보』 1996. 11. 29. / 12. 2.

4) 『경향신문』 1996. 12. 5.



던 「재중동포 김○○ 목사의 노무수출 사기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선교활동에의 영향

‘재중동포 사기 피해 사건’이 한국 교회의 선교활동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불문가지의 일이다. 아직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활동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중국은 ‘창의적 선교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대표적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각종 선교외적 사업(Project)들을 통해 현지의 황폐한 토양을 복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옥토로 바꾸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런데 최근의 ‘내국인에 의한 사기사건’은 이러한 노력들을 일거에 무산시킬 수 있는 위협성을 내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여파가 장기화 될 경우, 선교사들의 활동은 물론 거주 자체까지도 위협받을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상황을 취재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 사기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 당한 조선족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 한국 초청사기 피해협회’가 결성되어 활동 중이어서, 이들에 의해 보복 결사대가 조직되고 앞으로 중국 내 한국인들과 관광객들에 대한 테러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⁵⁾ 실제로 금년 1월에 이 지역에서 활동

하던 미국 국적의 한국인 선교사가 테러를 당해 미국으로 돌아간 사건이 발생하여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 정부 당국에 의한 제재도 우려되고 있는데, 조선족 문제가 불거진 이후 동북 3성에서 활동 중이던 한국인 선교단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 지난 12월 들어 4~5명의 선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처음으로 인신을 구속하는 구류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 교회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와 구제활동을 벌임으로써 도리어 복음전파에 새로운 기회를 맞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의 사례도 그 한 예이다.

[사례 8] 흑룡강성에 사는 김성모 씨는, 94년 3월 사이판의 자기 회사에서 일할 노무자를 모집한다는 한국인 신모 씨의 말에 넘어가 1인당 350만 원씩 27명분의 수수료를 주고 사이판에 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유령회사였다. 피해자들은 현지의 교회 등에서 기거하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다. ...⁷⁾

이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마치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교회의 지원과 한국 교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미증유의 대부흥을 이루었던 것처럼, 최근에 발생한

5) 『중앙일보』 1996. 12. 12.

6) 『중앙일보』 1996. 12. 24.

7) 『한국일보』 1996. 11. 19.

일련의 사건들이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중국선교의 호기를 맞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

한·중 관계와 재중동포들에게 있어서 현안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조선족 사기 피해사건'의 근본 원인은 「코리아 드림」에서 비롯되었다.⁸⁾ 그러나 문제의 발단은 재중동포들이 합법적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문이 지나치게 비좁다는 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중동포들의 밀입국과 그에 관련된 사회문제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서는 재중동포들의 방문요건을 크게 완화하기로 하였다. 즉 조선족 사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조선족 동포의 국내 방문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기술 연수생 배정규모를 단계적으로 늘이기로 한 것이다. 또 중국 동북삼성에 대한 투자확대와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지원을 통해 조선족 사회의 소득증대를 꾀하고, 현행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으로서 55세 이상인 자로 한정된 초청방문 요건에서 연령을 41세로 낮춰 초청대상을 늘이기로 하였다.⁹⁾

이러한 정부의 조치와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에 호응이라도 하듯, 최근 중국 내에서도 이처럼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파생된 데 대해 자성론이 일고 있다. 「한국의 사기꾼들이 조선족의 한국 꿈을 이용해 사기한 돈이 1억위엔(한화 1백억 원)이 넘고, ... 부산 앞바다에서 조선족 노무자들이 한국 선원들을 11명이나 죽였다고 하며, 서울 사람들은 연변 사람이란 말만 들어도 치를 떠난다. 깨어지는 한국 꿈, 누구를 탓할 것인가. 어찌 보면 깨어지고 깨어지는 한국 꿈은 필연적인 결과이며 또 좋은 점도 있다. 요행을 바라고 피땀을 전혀 흘리지 않거나 적게 흘려 많은 재부(財富)를 점유해 보려는 생각도 유치하거니와, 자기의 운명을 남에게 기탁하고 남의 동정을 바라면서 행운만 바라보는 꿈은 허황될 수밖에 없다. 이런 꿈의 깨어짐은 우리가 보다 충실한 삶, 풍요로운 삶

8) "중국에서는 한달 봉급이 5백 원도 안되지만 한국에 가서 2년만 일하면 수속비용 5, 6만 원을 제해도 10만 원이 넘는 목돈을 벌 수 있다. 이 돈이면 30평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다. 『동아일보』 1996. 12. 2.

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 『연변일보』, 「깨어지는 한국 꿈과 우리의 생존자세」¹⁰⁾

따라서 지난해 12월 18일, 중국을 방문한 한국시민대표단과 현지 동포 지도자들 간의 간담회에서 연변과학기술대 김진경 총장이 "한국에서 피해조선족 돕기운동이 일어나 반한 감정도 서서히 바뀌고 있으며, 중국 정부도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대로, 일단 이 사건은 수습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재중동포들이 가지는 두 가지의 특별한 의미를 생각하면 지금부터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남북통일의 가교로서의 역할이며, 둘째는 최근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교섭 상대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과의 접촉 창구로서의 역할이다. 이런 점에서 연변대학의 노동일 교수가 간담회 석상에서, "50만 안팎의 조선족 노동력을 수용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가 2천만 북녘 동포들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것이나, 재중 소설가 김학철 용이 "중국동포를 서자(庶子)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들을 진정으로 감싸 안아야 한국에도 이롭고 동포들도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한 조언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재중동포들의 역할은 마찬가지이다. 중국선교 초기 한국 교회가 이들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북한선교와 중국선교의 교두보로서 역할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재중동포들이 북한선교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감당하고 있는 반면, 중국선교(주로 한족)에서의 역할은 기대치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역사(歷史)를 통해 역사(役事)하시는 선교적 의미'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형석/ 전 총신대 교수, 역사학 박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초대 사무총장·상임 부위원장, 현, 「재단법인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대륙선교회·한민족의료선교회 총무(겸임)

9) 『한국일보』, 『경향신문』 1996. 12. 5.

10) 『경향신문』 96. 12. 1. 재인용

선 주어

我們全家都信主

Wǒmen quán jiā dōu xìn zhǔ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한 대학생이 한국에 산업연수 온 중국인 청년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 중국어를 가르쳐달라며 주일의 가족 모임에 그를 초청한다.

學生: 你好, 我是外大中文聖經班的學生, 想請你教我中文。

xuéshēng: Nǐ hǎo, wǒ shì wài dà zhōngwén shèngjīngbān de xuéshēng,
xiǎng qǐng nǐ jiào wǒ zhōngwén.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어대 중국어 성경반 학생입니다. 중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中國 青年: 我每天都要工作12小時, 星期天才有空。

zhōngguó qīngnián: Wǒ měitiān dōu yào gōngzuò shí èr xiǎoshí, xīngqītiān cái yǒu kòng.

중국 청년: 저는 매일 12시간씩 일해야 해요. 일요일에야 시간이 남니다.

學生: 這個星期日, 我們家有慶生會, 歡迎你來。

xuéshēng: Zhè ge xīngqīrì, wǒmen jiā yǒu qīngshēnghuì, huānyíng nǐ lái.

학생: 이번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생일 파티가 있는데, 그 때 오세요.

青年: 我是個外人, 方便參加你們的家庭聚會嗎?

qīngnián: Wǒ shì ge wài rén, fāngbiàn cānjiā nǐmen de jiātíng jùhuì ma?

청년: 나는 손님인데, 맥의 가족 모임에 참석해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學生: 沒事, 我們全家都信主。家人都喜歡接待客人。

xuéshēng: Měishì, wǒmen quán jiā dōu xìn zhǔ. jiā rén dōu xǐhuān jiēdài kèrén.

학생: 괜찮아요. 우리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식구들은 모두 손님집대를 좋아해요.

青年: 我老家只有妹妹信主, 其他人都不相信有神。

qīngnián: Wǒ lǎo jiā zhǐ yǒu mèimei xìn zhǔ, qí tā rén dōu bù xiāng xìn yǒu shén.

청년: 우리 고향집에는 여동생만 예수 믿지, 다른 식구들은 모두 무신론자예요.

中文聖經班(zhōngwén shèngjīngbān) 중국어 성경반

老家(lǎo jiā): 고향집

妹妹(mèi mei): 여동생

有空(yǒu kòng): 시간이 나다, 한가하다

慶生會(qīngshēnghuì): 생일파티

外人(wài rén): 낯선 사람, 손님

方便(fāngbiàn): 편리하다

家人(jiā rén): 식구, 가족

차이나/ 본지편집기자

중국을 깊이 인식하자

재중동포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김영환

작년

말경 TV나 신문, 잡지 등이 중국 조선족들의 사기사건을 대서특필하면서, 우리 모두 중국 동포인 조선족에 대해 새로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 국민 모두가 이럴 수가 있는냐고 치를 떨었으리라. 내 형제가 사기꾼이며 국제적인 거짓말쟁이라고 전세계를 향해 '광고'함으로써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 되고 나니, 이 부끄러움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세계인을 바라보며 무엇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한국민의 손실된 위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막연하기만 하다.

조선족 문제는 중국의 문제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산업연수생, 그리고 혼인관계로 들어오는 것인데, 요즘에는 대략 한화로 약 400~70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이 중에서 막상 한국인 브로커가 가져가는 돈은 1/5 이하이고, 나머지 4/5는 중간에 개입된 중국인에게 돌아가는 돈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한국인 혼자서 중국에서 사기를 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경우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사업을 하기 위해 중국에 간 많은 한국인들 중 성공한 경우가 막상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한국인들 중에서도 역시 갖가지 형태

로 중국 동포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조선족들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중국인으로 살아오면서 그들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에 더 우호적이다. 여행자는 좋은 대접을 받으면 좋은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초창기 헤이룽장(黑龍江)성 사람들은 한국에서 한약으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비교적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 반면 그후에 약을 팔러 왔던 지린(吉林)성 사람들은 많은 시달림을 받고 돌아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우호적이지 못한 사람이 많다. 어쨌든 그들이 아무리 한국을 동경하더라도, 국적을 택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중국 국적을 그대로 갖기를 희망할 것이다.

호의가 내정간섭으로

지난 연말에 취업사기 사건을 규탄하는 군중집회가 조선족 거주지역에서 있었다. 그리고 이후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시민단체 대표들이 중국을 조사차 방문하였고, 이 일이 있고난 후 중국 정부가 한국 선교사 다섯 명을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이유는 한국인들이 중국의 내정을 간섭한다는 것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자국민(조선족)의 문제는 자국에서 해결할 문제이므로 정부 대 정부가 해결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55개 소수민족의 일부인 조선족에

게 벌어진 이번 사기사건은 중국 정부에서 보면 아주 작은 사건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이러한 사기사건의 이면에 중국 내부의 총체적인 부조리가 있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인 한국의 개별 시민단체들이 중국 국민인 조선족을 조사하겠다는, 중국 정부에서 볼 때 문제가 안 되겠는가?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정부 대 정부라면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 단체의 몇 사람이 중국인을 조사하게 되었으니 내정간섭이라 간주해도 할 말이 없지 않은가?

물론 사람의 생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인정하며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선교사로부터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매사에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한다.

일부 조선족과 한국인들의 나쁜 행태 때문에 서로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유입된 사우나, 나이트클럽이 즐비한 옌지(延吉) 시가지.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의 취업 사기사건 조사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를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 정부에서 선교사를 어느 때라도 추방해도 된다는 구실을 만들어 주었다. 또한 사회주의 고정관념을 재교육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둘째, 과거 아편전쟁 당시 선교사의 나쁜 점을 부각시켜 요즘의 선교사도 중국을 내정간섭하는 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과거에도 중국에서는 선교사가 아편매매에 관련된 것이 화근이 되어 유럽 8개국과 아편전쟁을 벌였고, 결국 중국이 패배했다. 선교사들은 중국과 서구 국가 간의 조약 문안을 만들 때 중국이 불리한 쪽으로 모든 조약을 작성하였으며, 교회 역시 치외법권 지역으로 당당한 권리를 주장했다. 이로 인하여 '선교사'란, 중국의 모든 국민이 저주하고 더 나아가 해외 반혁명 침투세력으로 간주하는 호칭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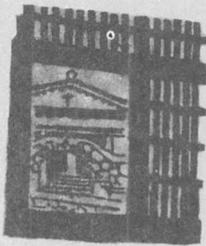
셋째, 중국 내의 모든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는 똑같은 '선교사'란 이름 때문에 추방당해도 할 말이 없다.

넷째, 정부에서 선교사를 탄압, 억압하는 가운데, 중국 국민들도 역시 외국 선교사를 내정 간섭자로 여기는 등 누명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다섯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홀으시고 홀어진 성도가 다시 안디옥 교회를 세워 선교의 기반으로 삼으셨듯이, 동북삼성 지방에만 몰려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전국으로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 들이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계기로 생각할 수도 있다.

코끼리의 한쪽 다리만 잡고 코끼리를 다 본 것처럼 이야기 하지 않았나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다. 한 사람이 깊은 물속을 관찰하기는 어려우나 각자의 말은 바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깊은 물의 윤곽이 들어날 수 있다면 누군가는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에 적극 참여해야 될 줄로 믿는다.

김영환/ 사업가, 중국선교 관심자



장저우 교회 (漳州教會)

장저우

(漳州)시는 푸젠(福建)성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로, 하나의 행정구(行政區)와 하나의 시(市) 그리고 8개의 현(縣)을 관할하고 있다. 장저우시는 서부와 북부에만 산이 있고, 그 외엔 모두 평원이며 주요 특산품으로는 바나나, 굴 그리고 파인에플 등이 있다.

이 지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처음 샤먼(廈門)에서 시작되어 스마(石碼)에서 텐빠오(天寶), 그리고 난징(南靖)을 거쳐 각 지역에 퍼져갔다. 지금 장저우시를 포함한 각 현의 집회처 중 종교국의 허락을 받고 개방한 곳은 60개 썸 되며 신도수는 2만 명 이상이다. 교역자는 총 9명의 목사와 37명의 전도사(신학교 졸업)들이 있다. 과거 고난의 역사 속에서 장저우 지역의 교회는 부흥될 수 없었지만 '93년도에 드러진 성탄예배는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

동판허우(東板後) 교회는 19명의 당회가 결성되었고, 다소 민주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 이 교회에 모이는 신도 수는 천여 명이 넘으며, 상청구(薌城區)에 새 예배당을 두 군데나 건축했다. 푸젠(福建)신학교가 설립될 때, 동판허우(東板後) 교회 성도들은 한 주일에 무려 2만 7천위엔(元)의 건축헌금을 거두었으며, 이 외에도 난징현에 있는 농촌 교회 한 개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로잔치 및 성경퀴즈대회 등을 개최하여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구심력과 관심도를 더욱 높였다.

장저우 산간지대에 위치한 허시(和溪)교회

허시는 장저우와 롱옌(龍岩)의 접경, 푸젠성 서부 산간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일찍이 1930년대에 이미 기독교가 이곳에 들어와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이후 문화대혁명기에 교회는 폐쇄되었고 성도들은 각지로 흩어졌으며, 교회 건물도 용도 변경되어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1981년 허지에 사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장평에 가서 우연히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와 자기들의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 모임에는 세 사람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 후 1983년 성탄절에 모인 신도들의 숫자가 50~60명까지 늘어났으나 세례 교인은 단지 세 명뿐이었다.

1990년이 되어 한 신도의 아들이 미국에 친척을 방문하러 가는 차에, 자기가 살던 집을 교회에 헌물하였다. 이렇게 해서 그 해 9월에 정식으로 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교인수는 약 100명쯤 되었다. 다만 대다수의 교인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얻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자 교인수가 많이 감소되었다. 그러다가 '93년 성탄절에 200명 정도로 교인이 늘어났으며, 이중 세례를 받은 자는 62명이나 되었다.

허지 지역 판창(板場)이라는 마을에 리(李) 선생이라는 사람이 결혼하여 새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얼마 후 첫 딸을 낳았다. 그런데 새 아기 탄생의 경사에도 불구하고 리씨 부부의 얼굴에는 항상 근심이 가득했다. 알고보니 그 아기가 태어날 때 땃줄을 통해 감염된 세균이 온 몸에 번져, 병치레를 하고 날로 야위어만 갔기 때문이었다. 세 살이 되었는데도 5, 6개월된 갓난아기처럼 보일 정도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은 그렇게 골치아픈 아기를, 그것도 여자아이인데 왜 버리지 않느냐고 성화였다.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예수를 믿은 한 부부가 이 사실을 알고 리 선생 부부를 교회로 인도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을 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아기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렇게 1주일을 기도했더니 돌같이 딱딱했던 아이의 배가 어느덧 부드럽게 되었고 몇 주 더 지나자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에 리 선생 부부는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간증이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교인이 200명이나 늘어날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교회터 위에

'93년 판창(板場) 마을에 13가구 60명이 새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는데, 대부분이 젊은 이들이었다. 그들은 허지교회의 핵심 교인이 되어 기도회가 있을 때면 먼길을 걸어서라도 꼭 참석하였다.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자, 집회 장소를 확장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이 되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여 3만 위엔이라는 거액을 모았다. 마을 근처에 교회 건축부지를 찾아 다녔지만 마땅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시 중심에 있는 정부 소유의 조달청 건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알아봤더니 가격이 6만 4천 위엔이었다. 면적 440㎡의 이 건물은 변화가에 위치했지만 나무와 돌이 어우러지고 매우 조용해서 교회로는 이상적인 장소였다. 교회는 이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계약금을 치루었다. 나중에 알고보니 이 건물은 과거 문혁시대 이전에 교회로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곳 대지를 구입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될 비용을 위해서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헌금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출처: 『橋』 66기

원제: 漳州教會現況

번역: 차이나 / 본지 편집기자



판창 마을 리씨 부부와 건강해진 아기의 모습

위대한 전도자 쑹상제(宋尚節)

(1901-1944)

편집부

쑹상제

(宋尚節) 박사는 4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하기까지 불같은 열정으로 중국인들

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다. 오늘날 중국 대륙, 대만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서 그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과 그의 열정에 영향을 받아 기도와 전도에 열중하고 있는 교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중국 교인들의 가슴속에는 중국 교회의 회개를 외쳤던, 부름 받은 중국의 세례 요한 쑹상제에 대한 감사의 추억이 솟아나고 있다. 레스리울 선교사는 그를 가리켜 ‘중국인 중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였다.

어린 시절과 오순절 사건

쑹상제는 1901년 푸젠성(福建省) 싱화(興化)시 푸텐(莆田)현 평지(鳳跡)촌에서 쑹취에리엔(宋學連) 목사의 열 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처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고 이름을 ‘주언(主恩)’으로 지었다. 그러나 어릴 적 그는 반항적이고 조금한 성

격 탓에 아버지와 끊임없이 충돌하였으며, 분을 참지 못해 종종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였다.

여섯 살 되던 해 아버지 쑹 목사가 싱화에 있는 감리교 성경학교 부교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가족 모두 싱화시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싱화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 것은 1909년 고난주간의 금요일이었다. 린이라는 목사가 예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설교 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곳에 참석했던 300여 명 가량의 회중들도 울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고 그 중에는 아홉살난 어린 쑹상제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싱화에는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 불과 한두 달 사이에 3천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냉랭하고 형식적이었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곳곳에 새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훗날 레스리울 선교사는 “쑹상제는 싱화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주님을 그의 구원자로 발견했다”고 했다.



난항을 거듭한 진로문제

쑹상제는 열렬한 독서가였으며 필기광이었다. 책을 너무 좋아하여 아버지의 서재에서 새로운 서적을 탐독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1917년부터 시작된 일기쓰기는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 학교에서는 주간학보의 편집인으로서, 교회에서는 아버지를 도와 「復興」이라는 잡지를 출판, 배포하는 일에 그의 온 힘을 다 쏟았다.

그러나 아들이 성격상 화를 잘 내고 괴팍하여 교역자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의 부모는, 태어날 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복건해군사관학교'에 보내기로 결정한다. 그런데 시험 날이 다가오자 갑자기 다리가 부어 올랐다. 통통 부어 오른 다리를 이끌고 400마일이나 되는 푸저우(福州)까지 갔지만, 결국 신체검사와 논문시험에 모두 불합격하고 말았다. 그는 진로를 바꿔 난징(南京)에 위치한 진링(金陵)대학에

가기로 결정하고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중 큰 누나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큰누나의 돌연한 죽음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그는, 한 동안 학업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포기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 그를 향한 다른 계획으로 환경을 열어가기 시작하셨다.

미국 유학의 길로

“아버님, 저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아버지 쑹 목사에겐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이었다. 실낱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만 한 지 일주일이었을 때, 베이징의 한 미국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미국 웨슬리안대학교에서 그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과, 그가 미국에 오면 일자리를 알아봐주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1920년 3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태평양 바다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에 눈물을 흘리며 쑹상제는 미국을 향해 떠난다.

그러나 미국 유학생생활이란 혹독한 가난과 질병, 고된 학업의 연속이었다. 과거의 여러 가지 체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혼란과 어둠으로 가득차, 점점 하나님을 떠나 의심과 회의에 가득찬 생활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공부하여 중국에 돌아와 복음전도자가 되겠다던 꿈은 희미해져 갔지만, 학생으로서 그는 매우 탁월하였다. 3년만에 학부과정을, 2년 3개월만에 화학분야의 석·박사과정을 마쳤다. 학부를 졸업할 때는 330명 졸업생 중 최고 우등생 4명의 하나로 뽑혔고 물리학, 화학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이와 동시에 파이베타카파(미국 내의 가장 우수한 학자들만 가입되는 클럽)의 회원으로 뽑히기도 했다. 그의 명성은 미국 전역 뿐 아니라 유럽에까지 알려졌다. 미국, 중국, 독일 등지에서 최고의 대우로 그를 초청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명예와 부를 동시에 얻고 과학자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다. 이제

더이상 가난에 시달릴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진로를 놓고 고민하던 어느 날 밤, 그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향의 빛을 내리다

1926년 가을, 송상제는 과학자로서의 걸음을 잠시 미루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유명한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 곳에서는 성경과 기독교 신앙이 모두 인간의 이성으로 논의되고 있었다. 송상제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은 모두 신앙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대속적 가치와 부활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그의 믿음은 날로 식어갔고 기도는 형식으로 전락하고 만다. 그는 이 시기의 자신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 영혼은 황야를 헤매었다.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다. 내 영혼은 마치 풍랑 속에서 선장도 나침반도 없이 떠도는 난

파선과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의 갈보리교회에서 전도대회가 열렸다. 그 곳에서 그는 성령체험을 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숙사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근 채 영적 전투에 들어갔다. 그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 이제 그에게는 기쁨이 가득했고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올 것을 눈물로 권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본 교수들은 그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여겨 브루밍 데일 정신병원으로 보내게 된다.

모든 자유를 빼앗긴 엄중한 감시 속에서 고독한 감금생활이 시작되었다. 비참과 암담 그 자체의 생활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밖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고 계셨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는,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데 온 정신과 시간을 들였다. 193일 간의 정신병원 생활을 통해 조급하고 고집 센 성격이 바뀌어 순



종의 사람이 되었으며, 성경을 40번 통독하는 가운데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결과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한 권의 큰 책이 될 만한 분량이었다.

세상 명예를 바다 속에 던지고

1927년 10월 4일, 드디어 7년여 간의 미국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서 송상제는 전도자로 부름받는 환상을 보게 된다. 자기가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고 관속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송 박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음성이 들리자 천사들이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시체였던 그가 벌떡 일어나 “울지 말라 천사들아! 이제 나는 세상과 나를 버리겠노라”고 외치니 천사들이 울음을 그쳤다. 이 환상을 체험한 그는, 중국으로 돌아간 이후 미국에서 획득한 학위가 자신을 유혹할 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마침내 그는 부모님에게 보여드릴 박사학위 증명서를 남긴 채 졸업장, 메달 등을 모두 바다 위에 던져 버린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대한 포기가 있어야 한다는 말 그대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나타날 그의 위대한 사역의 첫 비결이 되었다.

순회전도자로 나서다

예상했던 대로 부모님은 그가 국립대학에서 일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전도자로서의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처음엔 감리교 재단의 고등학교에서 시간제 강사로 화학과 성경을 가르치면서, 신화와 그 인접지역에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다 바쳤다. 당시의 중국 상황은 모든 지역에서 민족주의 물결이 고조되면서 반기독교 운동이 절정에 달하고 있던 때였다. 목사들은 갈기갈기 찢겨 죽기

도 했고, 신자들은 갖은 박해를 받았다.

쑨원(孫文)에게 절하는 것이 이상승배라고 규탄한 송상제는 국민당으로부터도 반혁명분자로 몰려 체포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의 전도활동은 정부와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전도대를 만들어 작은 도시나 시골지역으로 돌아다녔다. 이것이 순회전도자로서의 삶의 시작이었다. 이 전도대가 가는 곳마다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시작했다.

송상제는 설교를 담당했는데, 그에 대한 인상을 그 당시 푸젠성 감리교 선교본부 전도부장이었던 카트라이트 목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송 박사의 설교는 감동적이었다. 그는 강단 위에서 앞뒤를 왔다 갔다 하였고, 성찬대를 넘어 회중 사이의 복도에 나와 서기도 하였다. 또는 복도에 나와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나와서 어떤 청중의 얼굴에 손가락질하기도 하였다. 그러다간 급히 되돌아가서 성찬대에 서서 곧 설교를 끝냈다. 집회마다 집회가 끝난 후에는 상당수의 청중이 강단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는 푸젠성에서 좀더 먼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하길 원했다. 그러나 때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인내하지 못하고 앞서 나가려고 하면, 하나님은 질병을 주시면서까지 그의 걸음을 막으셨으므로 여전히 그의 전도여행 지역은 푸젠성에 머물러 있었다. 1930년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하이로 가도록 문을 열어 주셨다. 푸저우(福州), 난징(南京), 텐진(天津), 베이징(北京)을 돌아보면서, 미지근한 중국 교회들을 일깨우도록 그가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가는 곳마다 타오르는 회개와 부흥의 불길
난창(南昌)에서 열린 전도집회를 통해, 송상제는 앞으로 전도여행에서 그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발견하게 된다. 집회를 시작한 첫 날 매우 적은 사람들이 참석했을뿐만 아니라, 뚜렷한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쑹은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에게 ‘죄의 장막을 걷어야만 영원한 빛이 마음속에 비추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다음날 그는 사람들의 삶을 덮고 있는 죄의 세력을 대적하는 내용의 설교를 했다. 그러자 이제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사람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눈물로 회개하고, 모인 사람들 속에서 자원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왔다. 계속되는 집회마다 죄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었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령 앞에 완전히 굴복하였다. 쑹상제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께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던 신자들끼리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는 일들도 일어났는가 하면, 처음엔 그를 비난하며 회개치 않던 보수적인 목사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였다.

난창에서의 집회를 경험한 후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곳에서의 체험에서 부흥의 삼대 비결을 배웠다. 첫째 철저한 죄의 고백, 둘째 성령충만을 위한 기도, 셋째 그리스도에 대한 공적 증거이다. 나는 과거에 요한 웨슬레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가 전도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되는지 놀란 적이 있다. 나는 그와 같은 체험을 갈망했었다. 그런데 이제 나도 그와 비슷한 증거를 시작하였다. 진리의 영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위해 보다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한다.”

1931년 드디어 그는 뎬엘선교부와 함께 3년 여에 걸쳐 북부, 남부, 그리고 다시 북부로 이어지는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당시 북부지역은 일본의 침략으로 매일 일본 폭격기가 폭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천(奉天), 하얼빈, 장춘, 지린(吉林)을 포함한 동북삼성에서 3천여 명에 이르는 결

신자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언제나 집회가 끝난 후에는 성경공부 모임과 전도대가 조직되었다. 홍콩을 포함한 남부지방 전도여행에서도 예외없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다. 형식적이며 부와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홍콩 교회들 가운데도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다.

광시(廣西)성의 우저우(梧州), 쑤저우(潯州) 그리고 광둥(廣東)성을 거쳐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제2차 부흥운동을 전개하는 동안, 쑹상제를 통한 성령의 역사는 그치지 않았다. 시험기간 중인 대학생들은 그의 낮 집회에 참석하려고 밤을 새워 공부하기도 했다. 유물론을 신봉하며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적대시하던 천여 명의 학생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다.

1932년 베이징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베이징시 경찰국장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그뿐 아니라 과거에 살인자에게서 돈을 받고 봐준 죄를 참회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부정한 돈으로 얻은 집임을 고백한 후 사죄의 기쁨으로 새 생활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군대장교 한 사람도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을 회개하였다. 나이 많은 한 관리는 부인과 첩이 함께 참석하였는데,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관리도 첩과의 생활을 청산하였다. 어느 원로 목사는 이와 같은 일은 지난 40여 년간의 목회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교회선교사협회의 월슨 목사는 그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의와 열성을 다해서 설교제목에 합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복음의 영광에 가득 찬 바울과 같은 인물을 만나보려고 갈망한 적이 있습니까? … 중국인들의 예배는 대개가 지루하고 생기가 없습니다. … 그러던 중 돌연 복음의 강한 불꽃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쑹 박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큰 부흥의 불길을 가져왔습니다. 한 주일 내내 하루에 두 번씩 집회를 가졌는데, 집회 때

마다 그는 2시간 또는 그 이상을 성경의 철저한 가르침과 필사적인 기도, 그리고 황홀한 찬양의 생수를 쏟았습니다. 이 모두가 그의 통쾌한 풍자와 풍부한 유머로써 강조되었습니다. ... 열렬한 그의 기도는 생명 자체를 내 쏟는 듯 했으며, 그의 설교가 절정에 이르면 기쁨과 영광으로 청중을 도취시켰습니다.”

1933년 말까지 6개월 동안 이 전도대는 33개 도시를 방문, 66회의 집회를 열었으며 이를 통해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께 봉사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수는 14,000명이 넘었다. 또한 그동안 729개의 전도대가 조직되었고, 전임 사역자로 자원한 젊은이만 해도 3,000명이나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중국 전지역으로 알려졌다며 부흥집회를 인도해 달라는 초청이 전국 각지에서 쇄도했다.

1934년에는 이미 그는 중국 기독교계에서 국가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중국기독교협의회에서 발간한 지도적 복음전도자 명단의 6명의 저명인사 중 첫 번째로 소개되었다. 하나님께서 중국 역사와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모든 부흥집회마다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명성은 계속해서 퍼져 나갔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1935년 필리핀의 집회를 시작으로, 해외에 살고 있던 화교들에게서 까지 집회요청이 들어오게 되었다.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 반도에 있는 각 지역들과 수마트라섬으로 다니는 동안 5천 명 이상의 결신자가 나왔다. 이후에도 4차에 걸쳐 동남아지역을 순회하며 주님을 증거했다.

죽기까지 순종한 중국의 예레미야

‘나는 내 생애를 나 자신을 위하여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기쁨으로 내 길을 다 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 예수님께 위임받은 사역을 마치고자 한다’고 송 박사는 가끔 사도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그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다. 오늘날 중국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된 것은 그의 기도 생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매우 부지런하여 1분도 허비하는 일 없이, 여행 중이나 전도시에 잠시의 여유라도 생기면 공부하고 글을 썼다. 결핵과 암으로 투병하는 와중에서도 성경공부와 집회인도를 쉬지 않았다. 거듭된 수술과 건강의 악화로 몸은 점점 쇠약해졌으며 고통은 심해져 갔다. 어떤 때는 의자에 누워서 설교를 하기까지 했다. 설교를 할 수 없는 시간은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데 바쳤다. 1944년 8월 18일 새벽, 그는 42세를 일기로 고이 잠들었다.

그의 장례를 맡았던 왕밍다오(王明道)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송상제 박사는 예레미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와 사회의 죄악을 책망하였으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쇠기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정리/ 편집부



공산 정부 수립과 하나님의 위로

방지일

“공산당 첫 입성 후 환심사러 민폐 철저 단속”

포성 이 며칠 동안 울렸다. 적대 행위는 없었지만 포성으로 인해 마치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전투할 대상은 없었다. 포성이 그치면서 지프차들이 시가지를 돌았다. 얼마 후 내가 사는 집 앞에 포고문이 붙었다. 외국인의 생명·재산 절대 보호, 신교(信敎) 자유, 거주자유 보장 등등의 조항이 열거되었다.

공산군 4~5인이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 문 앞에 와서 보초를 섰다. 선발대들은 무기 없이 인해전술로 들어왔고 후방부대들만이 무장을 했다. 나뭇잎으로 물들인 탓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복장을 보니 이런 군대에게 국민당이 쫓겨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5~6명, 7~8명씩 한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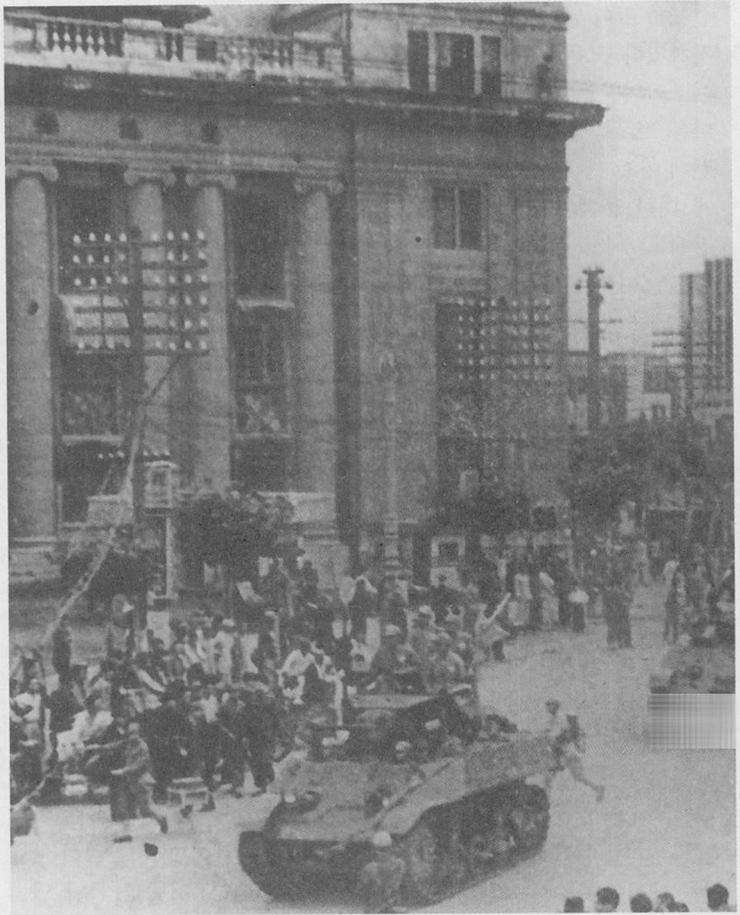
가 되어 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총을 가진 군인은 두 사람뿐이었다. 집 앞에 있던 군인들에게 좀 나갈 수 있겠느냐고 물으니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여 자전거를 타고 시가지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어느 곳이나 많은 군인들이 들어와 있었다. 그러나 무장한 군인은 극히 적었다. 전위대는 신문화(新文化)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전기불과 수돗물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기등에다 담뱃불을 붙이려는 사람도 있었으니 보지 않아도 알 만한 것이다.

1949년 6월 2일, 후방부대가 들어왔다. 정렬부대로 알려졌으나 중무장만 하였을 뿐 초라함은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치안만 겨우 유지할 정도였고 행정은 제대로 펴지 못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행정도 펴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에게도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비슷한 옷을 입도록 하였는데, 모양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색깔도 선명하지 않아 아주 초라해 보였다. 전에 사용하던 경찰 파출소 대신 민간인의 집을 정해 사용하면서, 담을 다 헐고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동네 아이들을 칭하여 장난을 치기도 하면서 공산당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경찰관은 군인과 복장만 좀 다를 뿐 아무 것도 소지하지 않았다. 가나 오나 누구에게든 친절하게 대했다. 일부러 남의 것을 빌려가지고선 언제 가져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꼭 그 시간에 가져오곤 했다.

이런 행동은, 전에 국민당 군인들은 민폐를 많이 끼쳤는데 공산당은 민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계획적인 것이었다. 이것이 공산당의 수단이었고, 군인들은 놀랄 만큼 잘 훈련되어 있었다. 그전의 군인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규율도 엄격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에게 무슨 약을 먹이는 모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자를 보고도 본체만체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군인 중에 비행(非行)이 있을 경우에는, 군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음을 수십 번 고백하게 한 뒤 자신의 성분을 밝히고 부대마다 다니면서 범죄의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게 했다. 이렇게 하는 동안 공산군 측에서는 그들을 극진히 위로해 주며,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은 것은 위대한 마오(毛) 주석의 은덕이므로 잘만 하면 민주반열에 큰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치켜세워 주



난징(南京)을 해방한 인민해방군의 입성식

었다. 뿐만 아니라 더 큰 공을 세우라는 등의 찬사와 격려도 잊지 않았다. 범칙한 사람은 이 길만이 살길인 줄 알고 하라는대로 순순히 따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군인들만이 모인 가운데 자아검토와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이 동무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과오를 뉘우치므로, 우리 당에서 큰 업적을 세워 주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사형을 위한 형식일 따름이었다.

군대를 깨끗이 하기 위해 총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게 하면서, 동의하면 합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 일제히 “울소! 총살이오!” 하였다. “우리 당 으로서는 그가 세운 공을 알아주고 싶지만 대중이 허락하지 않는 군인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엔 총살해버렸다.

공산당이 채택한 서력기원

이런 방법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며 전국을 장악한 공산당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전선마저... 신년

버스를 타고 베이징 거리에 들어서면, 삐딱한 전봇대에 전선은 온데간데없는 광경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1996년 11월 말 현재, 베이징에서부터 교외지역에 이르기까지 총 533만 위엔(元)어치에 달하는 전선이 탈취, 도난당했다고 한다. 이 손실액은 1995년 같은 시기에 비해 14배나 증가한 것이다. 얼마 전 전선을 훔쳐간 20여 명의 절도범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들 중에는 조직적으로 범죄단을 결성, 무장한 채 날렵한 솜씨로 훔친 전선을 큰 화물차에 운송하는 수법 등을 사용한 이들도 있다. 한 건당 약 70만 위엔의 전선을 탈취해갈 수 있었다고 한다.

베이징 전신국은 순찰인원을 늘려서 파견하기로 하는 등 전선 도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포하고 이 날을 건국 국경일로 정하였다. 모든 신문을 통폐합하여 「인민일보(人民日報)」라는 이름으로 북경에서 발행했다. 그런데 어떤 연대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뜻밖에도 제1호 신문에 '1949년 10월 1일'이라는 연대가 표기되었다. 모든 포고문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 일이 있고나서 어떤 사람이 신문사에 건의를 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유물사관을 토대로 세워진 국가이므로, 세워진 해를 원년으로 삼든지 아니면 최초로 나라를 세운 황제(黃帝)를 원년으로 하여 연대를 삼든지,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자(孔子)의 연대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을 하필이면 기독교의 연대를 사용한 것은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산 정부는, 당신의 염려는 가상하지만 1949년이라는 연대는 공원(公元)이지 어떤 특정 종교의 연대는 아니기에 세계가 다 쓰는 연대로 쓰는 것일 뿐이라고 대답하였다.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성직자들은 모두 감격하였다. 이 기원의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려면 예수께서 강생한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한 번씩 이 설명을 듣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 사원을 건립하는 데도 예수님이 강생하신 연대를 기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서장(西藏), 신강(新疆) 지

역처럼 오지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민족들에게도 처음 들어보이는 연대를 설명하려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해 주어야만 한다. 결국 그들 스스로 전도하게 된 셈이다.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사 11:12)’,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사 45:22)’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었다. 이 기호가 모든 산 위에 들리어졌고 아무도 이 기호를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20세기 말엽에 가장 큰 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시국이 바뀐다면 연대를 통하여 전도의 길이 크게 열릴 것이다. 시골로 가면 간지(干支)의 연대를 아는 이는 노인들일 뿐 그 밖의 부녀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공산정권이 매일 열었던 독보회(讀報會)를 통해 전도의 전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신론 공산당 치하에 사는 공포감이 있었지만, 많은 신자들이 신문을 받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에 감사했다.

「福音歷史半百年」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학교교육의 사각지대 외지노동자 자녀들

현재 중국의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날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지노동자 문제이다. 다음 글은 방치되어 있는 외지노동자 자녀교육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외지노동자들의 노력이 좌절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어린이들은 바로 미래를 상징한다. 어린이들이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고 할 때 중국의 앞날은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실는다. 이 문제는 지금 중국의 수많은 도시가 동시에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편집자]

현재

광둥성(廣東省)에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수가 이미 1천5백만 명을 넘었다. 그 중에는 6~14세 가량의 어린이 수십만 명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현 중국 정책에 의하면 외지에서 온 어린이들은 호구(戶口)가 없는 상태라 도시에 있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다. 그런데 최근 광저우(廣州)에는 외지노동자(外來工: 다른 성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 이주해온 노동자·편집자 주)들의 자녀를 위한 초등학교(小學校)가 생겼다.

해산당한 '불법' 소학교

얼마 전 광저우에서 출판한 『남방주간(南方週末)』에 「평민학교(平民學校)가 광저우에서 저지당하다」, 「평민학교 봉쇄당하다」라

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광저우시 하이저우구(海珠區) 정부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세운 소학교를 단속한 사건이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광둥성 메이저우(梅州)에서 올라온 뤼웨이첸(羅偉權)과 쓰촨(四川)성에서 올라온 스성후이(石勝會) 두 사람이, 95년 말 경 광저우시 하이저우구 신룽(新滘)에 “흥락소학교(興樂小學校)”라는 외지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소학교를 세웠다. 설립자들은, 교장은 15년 이상의 경력에 중등 1급 자격증을 가진 교사여야 하는 등 교사의 자질과 수준, 교육시설과 교과과정 등 모든 부문에서 학교 설립에 적합한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했다. 그리고 한 학생이 한 학기에 내야 하는 학비를 680위엔(한화 약 6만 8천 원)으로 정했다. 첫 모집에 응한 학생은 무려 320명이 넘었다.

그러나 개학 첫날 ‘뤄’와 ‘스’ 두 사람은 그 지역 공안국에 끌려갔다. 그리고 열흘 후 하이저우구 교육국은 ‘행정처리결정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흥락소학교를 해산시켰다. 이유는 흥락소학교가 학교 개설 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정식으로 비준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곧이어 하이저우구 교육국은 ‘행정처리결정서’ 사본을 광둥성 공산당위원회 선전부(宣傳部)에 보내 『남방주간』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이 두 보도에는 하이저우구 인민정부의 법에 의거한 치리와 공정한 법 집행을 유린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 불안정 요소를 더욱 부추기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 기사를 실었던 기자에게 사과할 것과 다시 사실에 의거한 기사를 실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사회문제로 비화된 흥락소학교

사건이 다시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 광저우시 정협(政協)은 부주석 허자쑹(何家松)을 책임자로 하는 조사반을 하이저우에 보내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베이징(北京)의 「인민정협보(人民政協報)」가 한 면의 절반을 할애하여 이 문제를 다루면서, ‘불법 학교개설’ 문제는 도시로 밀려들어온 외지 노동자들의 자녀 교육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신문은 흥락소학교가 조사당한 후 폐교당한 내용을 실으면서, 외지노동자 자녀 교육문제는 6천만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도시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했다. 또 국가 교육위원회의 한 간부의 말을 빌어, 현재 중국의 도시는 새로운 문맹을 산출해내는 기지인 동시에 새로이 ‘건달들’을 산출해내는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뤄웨이첸의 자녀는 본래 텐허(天河)구에 위치한 하성소학교(河城小學校)에서 공부했었는데, 이 학교 역시 외지인에 의해 시작된 ‘평민학교’이다. 수많은 외지노동자 자녀들이 하성소학교에서 지식을 습득하고 있어, 전체적



으로 보면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사방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것보다 훨씬 낫고, 부모 역시 안심하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래서 뤼는 소학교를 시작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이저우구 신릉에 건물을 세내어 흥락소학교를 열었던 것이다. 하지만 ‘흥락(興樂)’이 하루 아침에 ‘몰락(沒落)’으로 바뀔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공사례 하성소학교

흥락소학교와 비교해볼 때 텐허구에 있는 하성소학교는 그나마 운이 좋았다. 4명의 외지인들이 함께 투자하여 텐허구 시춘(洗村)에 있는 땅을 임대하여 약 30만 위엔(한화 약 3천만 원)을 들여 소학교를 시작하여 그 지역에 있는 외지노동자 자녀들을 모집, 공부를 시작하게 했다. 95년 9월에 개학했는데 학생 수가 170명이 넘었다.

하성소학교의 설립자 중 하나인 뤼용룽(羅永榮)은 80년대 초부터 살길을 찾아 광저우로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길렀다. 그는 주로 설비 일을 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사방으로 다녀야만 했으

므로 불편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선전(深圳)에서 외지노동자들이 학교를 잘 운영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자기도 이런 학교를 시작해서 외지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다.

홍락소학교가 문을 닫은 지 오래되지 않아, 텐허구의 교육국에서 하성소학교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직원을 보냈다. 뤼용룡은 '이제는 끝이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조사 나온 직원은 그에게, 이 학교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었다. 뤼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비록 타당한 수속을 밟지는 않았지만 나는 외지노동자의 자녀들을 위해 나라 돈은 한푼도 쓴 일이 없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만약 먼저 신청해서 정부의 허락을 받은 뒤에 학교를 시작한다면 언제 하게 될지 몰라서 먼저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텐허구 교육국은 뤼에게 학교를 시작하는 필요한 수속을 밟으라고 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소학교를 운영하는 데 적합 여부를 알기 위해 시범적으로 1년

동안 실시해보라는 회답을 보내겠다고 했다. 그야말로 어둔 밤이 지나고 광명이 찾아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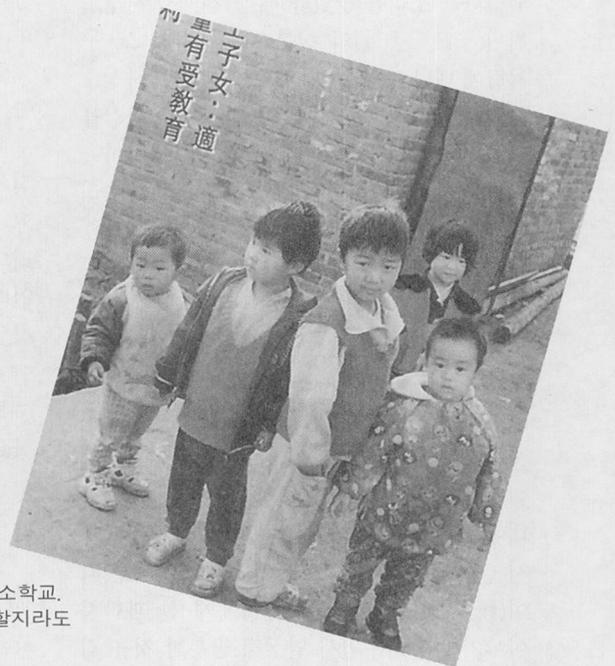
하성소학교는 1,500㎡(약 500평)의 대지에 임시로 지은 건축물이다. 교사(校舍)는 비록 초라하지만 교사들은 열심히 수업을 준비했고, 수업 후에도 일일이 학생들의 숙제를 검사하는 등 열성을 보였다. 학교는 소년선봉대까지 조직했고, 소량이지만 악기도 구비했다. 월요일 아침에는 국기계양식을 거행하고 학생들은 모두 교복을 입는다. 현재 학교는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모두 11개 반이 개설되었고, 학생수는 500명이 넘는다. 교사는 14명인데 그 중 전문대학 졸업자가 2명, 퇴직 교사가 2명, 그리고 대부분은 중등사범학교(中等師範學校-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소학교 교사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학하는 학교로, 졸업 후에는 도시 교외 지역이나 농촌에서 소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나 고등학교 졸업자이다.

지지를 얻어가는 외지노동자 소학교

이런 류의 학교가 연이어 세워짐에 따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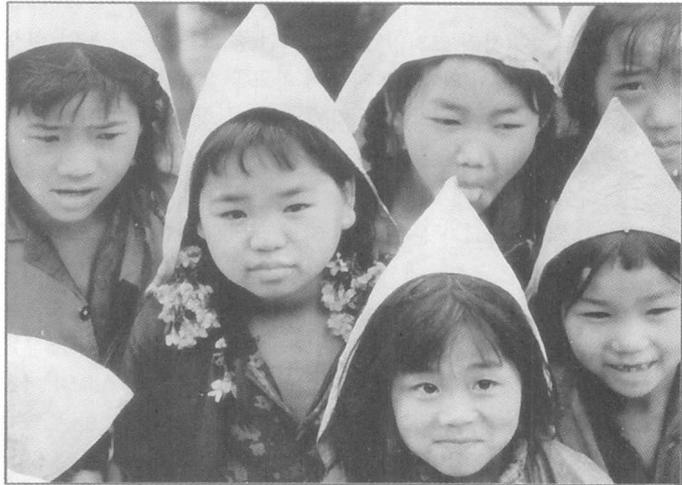
외지노동자 자녀들을 위해 세워진 하성 소학교. 비록 호적없는 외지노동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는 있다.



적인 논쟁이 야기되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만약 이런 학교들을 무조건 승인해 준다면 틀림없이 외지노동자들이 한 자녀 낳기 정책을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학교가 생기게 될 경우 손실보다는 유익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외지노동자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에 호구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조차 취학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큰데, 하물며 외지노동자의 자녀들이라면 그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외지노동자 자녀들의 학교 교육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개인이라도 이런 류의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적극 지지해 주어야 한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야만 다닐 수 있는 '귀족학교(貴族學校: 최근 중국에서 돈 많은 부자들이 교액의 학비를 내고 다니는 사립학교를 지칭-편집자 주)'같은 큰 규모의 학교는 설립하도록 하면서, 왜 '평민학교'는 열 수 없는 것인가?

일부 교육계 관계자들은 평민학교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광저우시의 한 중학교 교장은 흥락소학교의 설립자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자진해서 시정협 위원(市政協委員)의 신분으로 '뤄'와 '스' 두 사람에 대한 보증을 서기도 했다. 또한 하성소학교가 알려진 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방송국에 근무하는 장이라는 사람은 자비로 8대의 중고컴퓨터를 사서 수리해 기증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텐허구 정부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이다. 뤼에 따르면, 구교육국(區教育局)의 승인을 받은 후부터는 정부가 이 학교를 다른 일반 학교와 같이 대우해 주었다고 한다. '96년 12월 말 하성소학교는 새로운 선물 하나를 받았다. 광저우시 어린이도서관에서 1천 권의 책을 기증하고 1천 권의 책을 대여해준 것이다. 이것은 텐허구 정부가 뒤에서 밀어준 결과였다. 도서관장에게 참여한 라이(賴) 도서관장은 어린이들에게 한 과학자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을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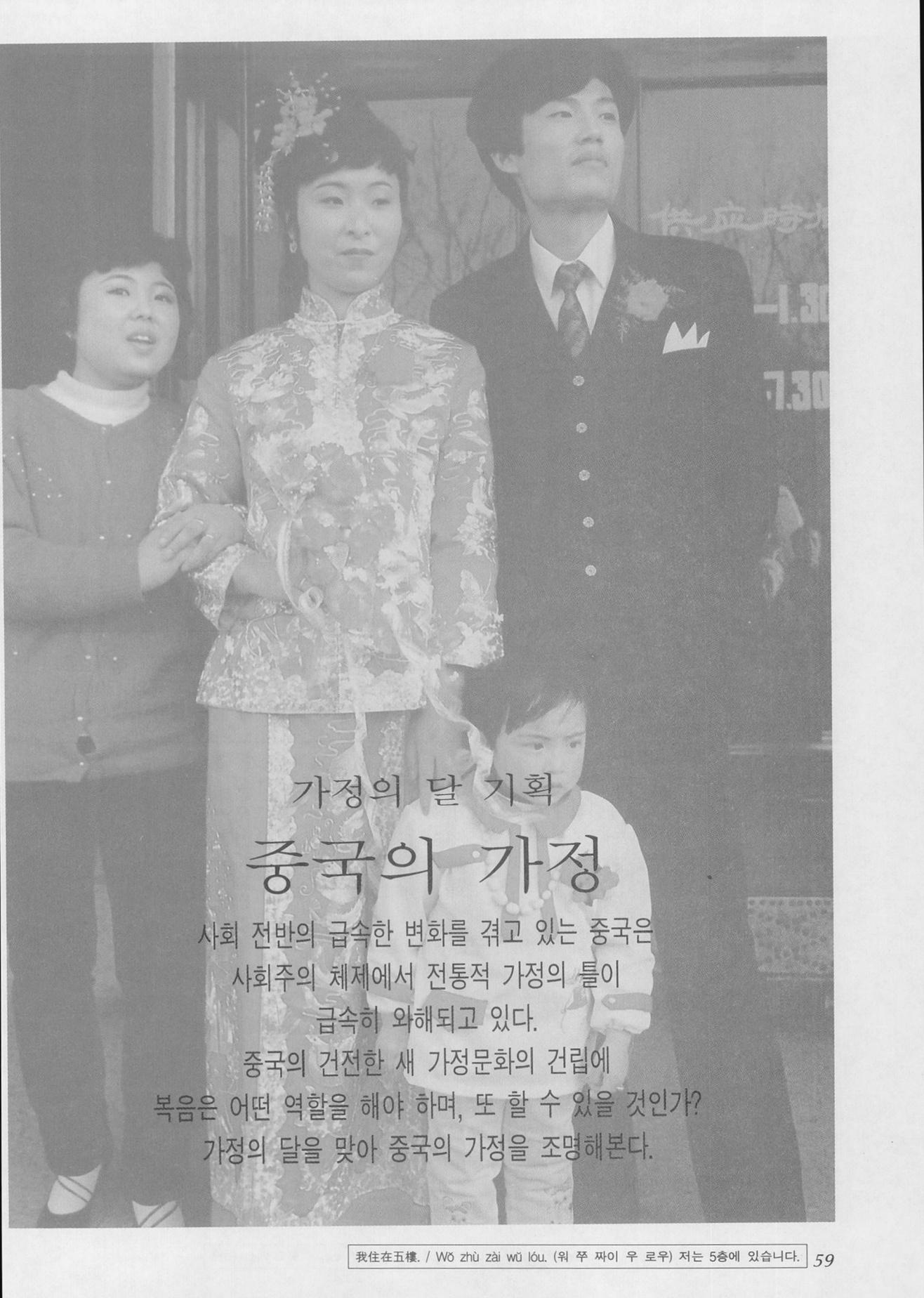


려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직원을 보내어 어린이들에게 동화도 들려주고 미술과 무용도 지도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어린이들은 크게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매우 감동했다.

하이저우구에서 실패를 맛보고 도망하다시피 한 뤼웨이첸은 텐허구로 돌아와서 새로운 학교를 시작했다. 현재 텐허구에는 하성소학교를 비롯하여, 비슷한 종류의 학교가 세 군데 있다. 광저우시 어린이도서관에서는 같은 날 다른 두 학교에게도 각각 1천 권의 책을 기증하고 1천 권의 책을 대여해주었다.

텐허구의 부구청(副區長) 루광시(盧光熹)는, 외지노동자가 개설하는 학교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로부터 또 다른 압력을 받게지만, 점차적으로 이 학교를 적극 지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수의 직함을 가진 '루'는, "우리의 교육사상은 교육은 있지만 종류(형식)는 없다. 외지노동자의 자녀들도 중국 국민인 이상 그들에게서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학교가 날이 갈수록 잘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외지노동자 학교(外來工學校)'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고 '사립학교'라고 불러야 한다고 했다.

출처 및 원제 : 아주주간(亞洲週刊) 1997. 1. 13.
"別讓新文盲溫床出現"
번역/ 김중하 · 중국 사역자



가정의 달 기획 중국의 가정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전통적 가정의 틀이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중국의 건전한 새 가정문화의 건립에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중국의 가정을 조명해본다.

중국의 가정이 흔들린다

변모하는 결혼, 이혼 풍속도

편집부

빈발했다. 문혁이 끝난 후 각 성(省)·시(市)의 부녀조직들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1980년 8월, 일부 대중형 도시에서 연이어 결혼소개소가 문을 열었다.

1984년 상반기에 만 53개의 결혼소개소가 생겨났고, 소개를 신청한 인원만 약 12만 명을 헤아렸다. 결혼소개소가 중국에 첫선을 보인

1980년대 들어 중국에 개혁 개방의 물결이 밀어닥치면서 사회 변화는 그 폭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보수적인 영역은 가정이었다. 이제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 이것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개방 이후 연애, 결혼에 대한 기존의 관념 또한 크게 변했다. 그 결과 과거의 중국인들에게는 전혀 생소했던 단어들이 양산되고 있다. 혼외정사(婚外戀), 제3자 개입 이혼, 성 해방, 혼인광고, 해외결혼(涉外結婚), 동거, 시험결혼(試結婚), 독신자(獨身貴族), 정부(情人), 이혼학교 등의 단어들이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그 중에서 중국 가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새로운 현상들을 살펴보자.

결혼소개소

결혼소개소는 발생 과정 자체가 무척 독특하다. 10여 년 동안 지속된 문화대혁명 당시 수많은 청년 남녀들이 중국 각 지역으로 분산되어 활동하다보니, 당시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대부분 결혼 적령기를 놓치는 사태가

혼외정사, 제3자 개입 이혼, 성 해방, 혼인광고, 해외결혼, 동거, 시험결혼, 독신자, 정부, 이혼학교 등의 단어들이 서서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다.

지 10년이 넘는 동안 다양한 변화가 생겨났다. 1984년에는 노인들을 고객으로 하는 ‘노년 결혼소개소’가 나타났고, 1992년에는 광둥(廣東)성을 시발로 상하이, 베이징 등에 ‘해외(涉外) 결혼소개소’가 속속 설립되었다.

구혼(征婚) 광고

1981년 1월 8일, 『시장보』에 중국 최초의 구혼 광고가 게재되었다. 구혼자는 나이 40세의 미혼으로 쓰촨(四川)성의 한 수학교사였는데, 광고가 나간 후 그는 중국 전역에서 날아든 300여 통의 편지를 받았고, 결국 지린(吉林)성의 한 아가씨를 배필로 받아들였다. 그 이후 이와 유사한 광고가 줄을 이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통계로 볼 때 1980년대에 게재되었던 중국 전역의 구혼광고는 약 140만 건에 달한다. 매



광고당 100여 통의 회신만 받았다고 가정해도, 무려 1억 4천 통 이상의 서신이 오간 셈이 된다. 이렇게 해서 구혼에 성공한 인원은 약 37만 명, 성공율은 27% 남짓하다.

지금은 보다 다양한 매체를 사용한 구혼방식이 사용된다. 컴퓨터 구혼이 나왔고, 아예 TV에 공개적으로 얼굴을 비치며 배우자를 구하는 경우나 라디오 방송을 이용하는 예도 있다.

독신클럽(獨身俱樂部)

결혼의 번거로움과 어려움, 경제적인 수준 미달 등으로 독신자의 수도 늘고 있다. 독신은 주위 여건으로 인한 강제독신(특히 농촌 지역)과 자발적 독신으로 구분된다. 현재 중국의 약 4,000만 명 이상 독신자 가운데 여자는 200만 명 남짓하며, 고등학교 이상의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70%, 대졸 출신도 7.8%에 이른다. 1991년 5월에는 중국 최초의 '독신클럽(獨身俱樂部)'이 베이징에서 만들어졌다. 회원의 입회 조건은 남자 27세 이상, 여자 25세 이상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40%, 여성 60%로 구성되어 있다는 소식이다.

제3자 개입 이혼

지금 중국에서는 전국 평균으로 10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고 있다. 유럽에 비교하면 아

직 낮은 수준이지만, 60년대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베이징 등 대도시에서는 이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2~3배나 높다.

1980년 신혼인법(新婚姻法)이 발표되면서 이혼에 대한 조항이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 그 중 제3자가 개입된 이혼이 늘어났 것이 특징인데, 제3자 개입이란 바로 '혼외정사'를 말한다. 1983년도 베이징의 경우, 제3자 개입 이혼건수는 전체의 40% 수준에 육박했다.

숨겨둔 여자, '상차오'

'상차오'란 원래 '항내가 배어있는 둥우리(香巢)'란 뜻으로 맨 먼저 대만의 매스컴에 등장한 용어이다. 중국이 1979년부터 개방의 기치를 높이 들자, 대만의 사업가들은 자연스럽게 대륙으로 눈을 돌려 분주히 드나들게 되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것은 당연지사. 이런 곳에 가면 돈많은 기업가들을 노리는 젊은 여자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대만이나 홍콩의 사업가들이 하나 둘 씩 현지 여자를 들어앉혀 꾸민 보금자리가 바로 '상차오'인 것이다. 최근 중국의 현지처로 인해 대만이나 홍콩의 중년 부부 사이에 이혼 소동이 잦아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샤오황띠 (小皇帝) 증후군

휴일의 베이징. 자금성과 북해공원 등 관광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수많은 나들이객들로 붐빈다.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아이 하나에 한 쌍의 젊은 부부, 노인 이렇게 네 명이 함께 붙어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는 다름아닌 중국에서 「4·2·1 증후군」이라 불리는 현상이다. 즉 조부모, 외조부모 등 4명과 부모 2명이 한 명의 손자 또는 손녀를 극진히 보살피는 광경이다.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이 가져온 「샤오황띠 증후군」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다.

“모든 유교국가들이 그런 것처럼 중국도 전통적으로 아들을 선호한다. 게다가 한 자녀만 낳도록 규정한 ‘계획생육(計劃生育)’의 실시가 아들에 대한 선호를 더욱 부추겼다. 결국 이로 인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온 집안이 달라붙어 금지옥엽 모시는 엉뚱한 현상이 생겨나고 말았다. 이런 모습은 이제 중국에서는 별로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중국사회학회 이사인 타오춘팡(陶春芳)의 말이다.

샤오황띠 증후군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주변의 애정어린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가 사회 생활에서 성공할 확률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훨씬 더 높다. 문제는 샤오황띠 증후군이 불러오는 부작용이다.

샤오황띠 증후군의 폐단은 젊은 근로자들의 노동관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어릴 때부터 응석 이 용납되는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도무지 열심히 일하려 들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라고 충고를 하거나 꾸짖으면 금방 다른 회사로 옮겨 버린다. 저렴한 노동력만 믿고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이 외동으로 자란 이들의 뒷감당을 해야 하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다. 앞으로 10년 이상이 지나면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하다.

젊은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노동력 저하 이외에도 샤오황띠 증후군이 불러오는 부작용은 많다. 이중에서도 낙태의 성행과 도에 넘친 조기교육 열풍은 특히 심각한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남아선호 사상이 지금까지 심한 농촌에서는 여아낙태는 물론이고, 태어난 여아를 그대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부모들은 많은 돈을 들여 하나밖에 없는 아이에게 외국어, 음악, 서예 등을 광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니, 좋아하는 장난감과 과자 등을 무한정 제공받는 샤오황띠들은 도무지 열심히 배우려들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샤오황띠 증후군의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다. ‘한 자녀 낳기 정책’을 통해 13억에 이르는 인구를 줄이지 않고서는 경제발전을 통한 21세기를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리/ 편집부

독생자 대수와 중국의 독자들

메이링

기회였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몹시 사랑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컸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징벌로부터 해방되었고 영생을 얻

필자

는 중국의 남부를 여행하는 동안 한 호텔의 인사 담당자인 엔(燕)씨를 알게 되었다. 어느날 그는 내게 그 지역의 공원을 보여주고 싶어했고, 나도 그의 제안에 기꺼이 승낙했다. 함께 공원을 거니는 동안 나는 그가 완고한 공산주의자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였고, 예수를 소개하기가 두려웠다.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나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가 그의 가족, 특히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나는 분명한 성령의 감동을 느꼈지만 다시 망설였다. 그러나 성령의 목소리가 너무 분명하였기에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성령께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신은 아이가 하나뿐인가요?”

“네.”

“당신은 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요.” 그가 힘주어 대답했다.

“만약 당신의 아이에게 좋지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매우 슬퍼하시겠군요.”

그는 잠시 동요하는 듯 하더니 이내 “그럴 겁니다” 라고 나지막히 얘기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생자’ 이야기는 오늘날 중국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증가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한 자녀 낳기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게 되었지요.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를 죽도록 한 것은 당연히 고통스러웠겠지요. 하지만 그분이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준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말해 주었다. 대화의 끝에 나는 그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또한 어린이용 기독교 소책자도 건네 주었다. 그는 그것을 자기 아들에게 읽어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몇 달 후 나는 연씨를 그의 가족과 함께 다시 만났다. 그는 내가 그에게 예수를 소개해 준 첫 번째 사람이었노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 역시 성경 읽기를 원했고, 원하는 그녀의 친구들에게도 그 책을 주었다고 한다.

독생자의 이야기는 정부의 ‘한 자녀 갖기 정책’ 때문에 오늘날의 중국과 관련이 깊다. 이것의 의미는 오늘날 한 자녀를 낳을 수 밖에 없는 중국인들에게 쉽게 이해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것이다. 이미 성령께서 시작한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수 있도록, 연씨의 가족을 위해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중국 어린이, 홍콩 밀입국 급증

오는 7월 중국에 반환되는 홍콩에 대륙의 어린이 밀입국자들이 줄을 잇고 있어 홍콩경찰이 긴장하고 있다.

홍콩경찰이 지난해 2월 체포한 중국의 꼬마 밀입국자수는 34명. 그러나 올 2월 그 수는

10배 가까운 33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월 1백명을 넘지 않던 어린이 밀입국자수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 윤곽이 드러난 12월에는 259명으로 치솟더니, 올해 들어서는 월 3백명을 넘어섰다. 홍콩경찰에 따르면 현재 중국남부 경제특구 선진(深圳)에는 “홍콩 반환을 기념, 홍콩에서 체포된 어린이 밀입국자들에게는 대특사(大特赦)가 내려진다”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이다.

밀입국한 꼬마들은 대부분 홍콩에 부모중 한 명이 먼저 이주해 살고 있는 경우이다. 밀입국선을 운영하는 선주들이 어린이 1명 당 1만~2만 홍콩달러(한화 약 115만~230만원)를 받고 어린이들을 홍콩에 밀입국시키고 있다.

반환 뒤 홍콩의 헌법 역할을 할 기본법에는 「홍콩영주권자가 중국 등 외국에서 낳은 자녀는 반환 뒤 홍콩영구민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 홍콩에 부모가 나와 있는 이들 꼬마 밀입국자들은 반환 후 자동적으로 홍콩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에서 홀홀단신으로 홍콩으로 넘어와, 홍콩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대륙에 가족이 남아있는 사람은 약 4만 명이다. 가족과 생이별 상태에 있는 이들이 하루 150명씩으로 제한된 이주순서를 기다리다가는, 1년이 넘어도 자녀와의 상봉이

어렵다고 판단, 거액의 밀입국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륙에 남아있던 자녀를 데려오는 것이다

【97. 3. 29. 중앙일보】

중국 기독교 가정이 거는 기대

라오관상(老冠祥) 외

중국

의 기독교 역사는 당(唐)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년이나 흘렀고, 중국 각지에 기독교의 씨앗이 뿌려졌다. 각 교파에서 복음을 전파한 결과 몇몇 지역은 온 마을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어 '기독교 마을(基督教村)'로 불리기도 한다. 이는 복음의 열매가 중국 가정을 통해 잘 정착된 증거이기도 하지만, 또한 중국인의 전통 윤리 개념에도 매우 적합한 것이었다. 중국인의 전통 윤리 개념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형제(兄弟), 친구(朋友)"를 기초로 두기 때문에 모든 인륜 관계는 가장 가까운 사이, 즉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므로 가정은 중국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중국이 건국된 이래로 약 40여년 동안 중국인들은 수많은 정치운동의 격랑에 휩쓸려왔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많은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무사히 보존되었다. 뤼주펑(羅竹鳳)이 편찬한

「중국사회주의 시기의 종교문제(中國社會主義時期宗教問題)」에 따르면, 모 지역 신학교와 단기 신학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91명의 학생 중 75명(82.4%)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고 한다. 그 중에는 태어나

기 전에 이미 부모의 뜻에 의해 하나님께 헌신된 학생들도 있다. 그리고 상하이 모 교회의 경우 성가대 대원의 대부분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이며, 3대 심지어는 4대째 기독교 가정 태생인 이들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수많은 기독교 가정은, 현재 중국 교회를 이끌어

중국의 수많은 기독교 가정은, 현재 중국 교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와 전도인을 양성해 내는 요람이자 중국 가정교회의 원천이기도 하다.

가는 지도자와 전도인을 양성해 내는 요람이자 중국 가정교회의 원천이기도 하다. 어떤 여전도사는 2대째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전도인들이 다 기독교 가정 출신은 아니며, 또 모든 기독교 가정의 2세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도 할 수 없다. 기독교 가정이라는 배경 속에서 신앙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신앙을 버리는 이들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이처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1949년 이전에 중국에는 "예수가정(耶穌家庭)"과 "집회소(聚會所)"라는 유명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졌었다. 이 공동체의 제1세대들 사이에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아름다운 간증이 많았지만, 그들의 자녀들 중에는 부모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당해야만 했던

술한 핍박과 고난을 목격하면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고생스러운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싫든 좋든 부모를 따라 교회에 나가 설교를 듣고 모임에 나가고, 심지어 기도하는 것도 그저 습관이 되어 버렸다. 부모의 신앙의 그늘에서 벗어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새로이 만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둘째, 어른 세대의 믿음이 주로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원색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진리를 현 세대의 상황에 맞추어 실천하는 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므로, 경제 개혁 개방의 물결로 인해 날로 복잡하고 다원화 된 사회 현상을 접하는 차세대 기독교인들이 계속 신앙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셋째, 중국이 공산화된 이후 공산당의 기본 정책은 종교를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모든 종교는 정부의 제재를 받아야만 한다. 이렇게 제한된 환경에서 종교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할지라도,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정치 상황에서 안정된 기독교 가정을 발전시키기란 당연히 쉽지 않다.

넷째,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바쁜 목회 활동으로 인해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자가 부족한 중국에서 이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집을 떠나,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돌보는 데 쓴다. 이러다보면 사역자의 2세대들은 오히려 가정에 방치된 채 버려진 ‘영적인 고아’가 된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기까지 한다.

이상 열거한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관만 할 일은 아니다. 열악한 환경이 기독교 가정의 발전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한 발 더 앞서가시기 때문이다. 공개적으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 집회를 여는 경우가 허다한 곳이 중국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은 무심결에 말씀과 기도를 배우게 되고, 찬송가도 어른들보다 더 잘 부르고 성경 퀴즈도 잘 푼다. 어릴 적부터 예배를 드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누구보다 풍성하다. 또한 이들은 가정집회를 통해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배우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자신들의 기독교 가정을 가꿀 때 확실한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을 변화시키려면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하며, 한 가정을 주께 인도하려면 그리스도를 그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가정은 중국 사회의 문화를 기독교 문화화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독교 가정이 중국 사회에서 굳건하게 서서 든든한 위치를 차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守望中華 130期
- 「初探中國基督化家庭」, 老冠祥
- 「代代相傳-中國基督化家庭的發展」, 梁帆鋒
- 「家家有本難唸的經」, 家晴

번역/ 차이나· 본지 편집 기자



폭죽부부

최근 중국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폭죽부부(爆竹夫婦)’라는 유행어가 있다. 폭죽부부라는 말은 장쑤(江蘇)성에서 이뤄지는 결혼식에서 유래된 말.

옛날부터 장쑤성에는 농민들이 결혼할 때, 결혼식 축하행사로 폭죽을 터뜨리는 풍습이 있다. 이러한 풍습은 언제부터인가 농민들에게 결혼을 증명하는 공식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관청에 결혼증명서를 내지 않고도 폭죽만 터뜨리면 부부로 인정되었던 것이다.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의 경우 폭죽은 결혼 증명서 그 자체였다.

그러나 이같은 아름다운 풍습이 최근 중국 내 변화가 가속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탈바꿈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개혁개방 바람과 함께 장쑤성 주민들이 타지로 나가거나 다른 성(省)의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폭죽만으로 결혼을 올린 사람들 가운데 결혼증명서가 없는 점을 이용, 새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례가 많아지기 시작한 것이다.

‘폭죽부부’들의 이같은 변신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당연한 결과. 사태가 심각해지자 장쑤성의 현지 신문은 「아름다운 풍습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쳐져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혼인증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간섭을 촉구했다. 현지 언론의 폭죽부부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재미있는 것은, 중복 혼인에 따른 윤리적 문제보다 이중결혼 이후 발생하는 새로운 인구 증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폭죽부부를 둘러싼 여론이 이처럼 악화되자 장쑤성 당국은 결혼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 '96년부터 장쑤성 일부 지역에서 강행하고 있다.

중국 교회, 21세기 향한 새 판짜기

제6차 중국기독교전국협의회 결과 보고

김종구

중국

교회가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본격에 올렸다.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제6차 중국기독교전국협의회를 1996년 12월 28일부터 1997년 1월 2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전국 교회 대표 288명(총대표 수는 299명, 사교 11명, 여성대표들은 전 대의원의 26.1%인 78명 참가. 이들은 자체평가를 통해 아직도 목표인 30%에는 도달하지 못했음을 애석해 하고 있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 협의회는 통상적으로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기독교삼자애국운동위원회 최고 의사 결정기관이다.

협의회 스케치

산시(山西)성 성경학교 교장 장관루(張冠儒) 목사의 사회와 저장(浙江)성 기독교협회 쑤시페이(孫錫培) 목사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림으로 협의회는 시작되었으며, 본 회의에서는 중국기독교협회 회장인 덩광선(丁光訓) 주교와 국무원 종교사무국 예샤오원(葉小文) 국장이 각각 축사를 하였다. 전국삼자

운동위원회 제5차, 중국기독교협회 제3차 상임위원회가 작성 제출한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 삼자원칙으로 교회의 더욱 원만한 건설을 이루자」는 제목의 사업보고를 중국기독교협회 총무대행 한원자오(韓文藻) 박사가 하였다.

이어 5개의 주제하에 이틀간에 걸쳐 분임 토의가 열려, 5년 간 지역과 중앙에서 문제가 되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진지하게 논의되었다. 5가지의 주제는 각각 다음과 같다.

- 1) 신학적 과제
- 2) 자양(自養)과 해외로부터의 지원
- 3) 자치(自治)와 교회장정
- 4) 해외 교회와의 교류
- 5) 중국인의 정신문명 건설에 있어서의 교회의 역할

토론의 결과는 폐막식에서 '결의문'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한편 전국협의회에 이어 1997년 1월 3일, 4일 양일간 중국기독교협회,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개최되어, 앞으로 5년 간 중국 교회를 이끌어 갈 새 임원들을 선출하였다. 중국기독교협회의 신임회장에는 전 총무대행 한원자오 박사가, 그리고 신임총무에는

전 부총무이자 상하이(上海) 화동신학교 원장이며 전국신학교육위원회 위원장인 쑤더츠(蘇德慈) 목사가 선출되었다. 또한 삼자에 국운동위원회 주석에는 뤼관중(羅冠宗) 전 부주석이, 총무에는 저장성 기독교협회 총무인 덩푸춘(鄧福邨) 목사가 각각 선출되었다. 또한 총 185명이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에 국운동위원회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중국 교회의 지난 5년 간 전면적 성장기록 사업보고서 대강

중국의 모든 회의가 그러하듯이, 중국기독교 전국협회의 핵심도 중국기독교협회와 중국기독교 삼자에국운동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출하는 '사업보고(工作報告)'에 있다. 이 보고서는 5년 간의 활동을 총괄하면서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사업보고'의 차원을 넘는 일종의 '지도방침'의 성격이 강하다. 이번 협의회에도 중국 교회의 지난 5년 간의 전반적 활동을 정리하면서 미래의 과제를 제시한 14쪽에 달하는 장문의 사업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총무 한원자오 박사에게 의해 대독된 이 보고서는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자 - 삼자원칙으로 더 나은 교회건설을!」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보고서는 상세하게 지난 5년 간 중국 교회의 변화 발전상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첫번째 장에서 「교회의 알찬 건설!(辦好教會)」을 미래를 위한 지침으로 천명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네 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각 해외 교회로부터 중국 교회의 자치 유지, 중국기독교인의 애국심 함양, 중국 교회의 일치, 그리고 '삼호(三好: 治好, 養好, 傳好)'의 강조이다. 이 네 가지 실천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긴급히 요구된다는 데 교회 지도자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도들의 신앙, 사상,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이는 바로 기독교신앙과 아울러 중국 사회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심화



한원자오 박사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시키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두 번째는 교회가 자기희생 정신을 새로이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 보다 강화되어야 할 10가지 영역이 있다.

- 1) 각급 교회조직의 지도력
- 2) 신학교육과 반성
- 3) 농촌 교회 사역
- 4) 출판
- 5) 삼자에국주의 교육
- 6) 교회장정의 전국적 이행
- 7) 장기 선교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
- 8) 개체교회의 경제적 자립
- 9) 교회의 합법 권익 수호와 종교자유 정책에 대한 정부의 지지
- 10) 전세계 교회와의 나눔과 친교

교회의 사역이나 삶과 교회의 삼자운동 고수, 그리고 해외 교회의 통제로부터 독립에 대한 강조가 보고서 전체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며 깔려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학교육, 농촌 교회, 출판 등에 대한 관심이 전자의 영역이라면, '사회주의 조국에 중국 교회가 더욱 잘 적응해야 할 것'이라든가 '해외침투'에 대비한 삼자에국주의 교육의 강조는 후자의 경우이다. 각급 조직에서의 지도력의 강화는 위의 두 경우 모두를 위해서도 필수적



쑤더츠 목사
(중국기독교협회 총무)



뤼관중 선생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인 과제임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교회건설'과 '삼자애국'이 공히 모든 단락마다에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번 사업보고 작성과정을 통하여 중국 교회의 전국 차원의 지도력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특히 원로지도자들이 이 사업보고에 합의하기까지 엄청난 난항과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번 제6차 중국기독교 전국협의회에 제출된 보고서는, 이전의 사업보고서와는 달리 미래의 사업방향에 대한 명쾌한 제시보다는 현재 중국 교회가 처한 현주소를 알려주는 과도적 입장제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중국기독교협회, 전면적 성장기록

중국 개신교회당 수는 1992년 7,000개에서 1996년 연말 현재 12,000군데 이상으로 성장하여 거의 배가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처소 및 가정교회는 20,000~25,000군데나 증가하였다.

신학교 17개(4개 성경학교 포함)가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992년 이후 12개 신학교가 증축 혹은 이전 신축하였다. 또한 현재 여러 성(省)에서 평신도 지도자 양성 성경학교가 개설되어 목회자 부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 졸업생은 모두 2,700명에 달하며, 현재 1,000명 가량의 전업신학생이 신학수업을 받고 있다. 한편, 남경신학교에서 운영하는 3년 과정의 성경·신학통신반에서 약 3,000명이 수업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력의 세대교체는 아주 천천히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부터 1995년 사이에 800명 이상의 목사들이 안수를 받았으나, 이중 45세 미만은 345명(41.6%)에 불과하다. 현재 23개 성(省) 기독교협회와 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가 젊은이들을 책임 있는 위치에 앉히고 있으며, 신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 61%가 4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다.

성경출판은 언제나 중국기독교협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꼽힌다. 성경출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4년에 220만 권을 인쇄출판하였고, 1996년에는 드디어 330만 권의 성경을 출판하였다. 1992년 이래로 약 1,000만 권의 성경이 중국 전역의 성도들에게 나누어졌는데, 이 중에는 휴대용 성서, 큰 글자 성서, 6개 소수민족언어 성서, 그리고 맹인용 점자성경도 포함되어 있다. 성경의 배포를 위해서 중국기독교협회는 전국에 45



덩후춘 목사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총무)



덩광선 주교
(전 중국기독교협회 회장,
전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

군데의 성경배포처를 두고 있다. 지금은 중국기독교협회와 정식관계를 맺지 아니한 교회와 처소교인들에게 성경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한편 지금까지 약 800만 권 이상의 찬송가가 출판, 배포되었다. 1995년에는 최초로 640곡의 단가를 포함한 새 찬송가가 발행되었다.

대부분의 신도들이 처해 있는 농촌 교회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 교회 사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1995년 농촌 평신도지도자 양성을 위한 특별 대규모 협의회가 열렸다.

한편 1993년 소수민족 사역을 위한 위원회를 설립하여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의 선교를 돕고 있다. 또 1994년 전체신도의 80%를 접하는 여성 신도들의 사역과 활동을 위해 '여성사역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4개 성 기독교협회에 여성사역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여성위원회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여성대회'에 주제적으로 참여한 바 있다.

해외 교회와의 교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2년 이래로 중국기독교협회를 방문한 교회 대표단은 203개이며, 중국 교회 대표단은 108차례 해외를 방문하였다.

젊어지는 중국 교회

이번 전국협의회 최대의 관심사는 '지도력의 세대교체'였다. 지난 40여 년 간 중국 교회와 모든 것을 함께 해온 덩광선 주교는 젊은 지도력의 대거 등용을 희망하며, 스스로 중국기독교협회 회장과 중국기독교 삼자애국운동위원회 주석직에서 은퇴함으로써 후진들의 미래를 열어주었다. 국내의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21세기는 그 세기를 살아갈 당사자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열려져야 한다는 그의 열려진 신앙과 신념으로 용퇴하였다. 그는 앞으로 신학교육에 정진하면서 중국 교회의 신학정립을 위해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겠다는 다짐을 해보였다.

세대교체의 열망은 대의원 선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결과 대의원 299명의 평균연령은 제5차 때보다 6.7세가 낮아진 53.9세로 하향조정되었고, 4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중앙위원으로 대거 진입함으로써 세대교체의 큰 걸음을 내디뎠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핵심 지도력에서의 세대교체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아직도 중국 교회의 일치와 단결, 그리고 독립자주를 위해서는 원로 지도력의 건재가 필요하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흔적도 보인다.

한편, 덩 주교의 은퇴로 양회는 새로운 지도력으로 일신하였다. 중심되는 변화는 1) 중국기독교협회와 삼자애국운동위원회의 최고지도력이 분리되어 덩 주교가 겸임하고 있던 양회의 회장과 주석직이 각각 한원자오 회장과 뤼관쥬 주석에게 물려짐으로써, 삼자애국운동위원회는 자신의 '정치적' 사업에, 그리고 중국기독교협회는 '교회적', '목회적'인 사역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2) 평신도들이 양회의 회장과 주석 등 중국 교회의 최고지도력으로 부상했다는 점, 그리고 3) 덩 주교라는 상징적인 지도력에서 실무형 지도력으로 이전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다.

특히 양회의 회장-총무, 주석-비서장의 배합은 황금배합이라는 평가이다. 네 명 모두가 명문대학 출신의 화려한 학력을 갖고 있다. 한원자오 회장과 덩푸쥬 목사는 성 요한대학에서 각각 토목공학과 신학을, 뤼관쥬, 구안중과 쑤더츠는 상하이 복단대학에서 정치학과 역사학을 각각 공부하였다. 공교롭게도 두 평신도 지도력(한, 뤼)은 YMCA를 통해 항일운동을 전개한 경력을 갖고 있는 진보적 지식인으로, 두 목사 지도력은 줄곧 목회에 전념해온 정통파들이다.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중국기독교협회는 한 회장의 원만한 대외관계와 포용력, 그리고 쑤 목사의 복음주의적 신학을 바탕으로 한 영적 지도력이 어우러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쑤 목사는 중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자위밍(賈玉銘)의 영향 하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하나되는 교회 - 중국 교회 장정(章程) 마련

이번 전국협의회에서는 지난 92년 제정되어 시범 시행되고 있는 교회 규장제도 시안을 세밀히 심의, 수정하였다. 수정된 내용의 요체는, 중국 교회의 일치와 단결의 강화, 목사 안수 규정, 신도들과 성직자들의 교회생활 및 사회생활의 경건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그리고 모든 성직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의지, 교회 재정관리의 투명성 보장 등이었다. 92년판 규장제도 시안의 경우에는 '시안'의 사용여부, 수정, 첨삭 등이 지방기독교협회에 전적으로 일임되어, 지방마다 교회 제도가 달라 상당한 혼란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채택된 규장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방의 교회역사나 현실상황에 따라 보충, 수정, 또는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으나 절대로 본 규장제도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장제도 전문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중국 교회의 일치와 단결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삼자운동의 내용적 심화

또 이번 전국협의회에서는 '자양추진위원회(自養推進委員會)'와 '자전연구위원회(自傳研究委員會)'의 신설이 모색되었다. 지금까지 중국 교회를 지탱해 온 '삼자원칙'에 대해서는 그간 심대한 토론이 전개되어 왔다. 두 위원회의 설립 의도는 바로 그 토론의 결과들이며, 이는 지난 40여 년 간 중국 교회는 이미 해외 교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자치'에 관한 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중국 교회가 온전한 독립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전히 '재정독립'의 문제와 '신학정립'의 과제가 남아있다는 평가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삼자운동'은 막을 내려야 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더욱 심화시켜 구호로 변해버린 듯한 느낌을 주는 '삼자운동'을 기층교회로 확산시키자는 강한 열의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 두 위원회가 설립에만 동의하고 구체적인 인선과 활동 내용은 3, 4월경에 있을 상임위원회로 위임되었다. 협의회의 일정상 더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실질적인 담당자를 선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양추진위원회'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관한 중국 교회의 총체적 입장을 연구, 정립하는 것과 기층의 가



베이징 제5차 기독교회의 광경. 기독교 전국양회와 베이징 기독교회 지도자들

난한 교회들의 자립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범 교회적인 대책마련을 기본과제로 삼고 있다. 현재 중국기독교협회는 매일 전국 각지로부터 수십 통에 달하는 재정지원(주로 교회당 건축과 평신도훈련반 운영지원) 호소 편지를 접수하고 있으나, 그저 쌓아 두고 바라만 볼 뿐 어떻게 손쓸 길이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차제에 이 위원회의 성립은 이 과제를 도시 교회와 농촌 교회 간의 상호 도움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천명으로 보이며, 중국 교회가 해외 교회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 자체적으로 중국 교회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겠다는 놀라운 선언이다.

‘자전연구위원회’는 중국의 복음화전략 수립을 기본과제로 하고 있다. 중국복음화를 위해 현재의 신도들의 수준을 높이고 지식인층 등에게 보다 널리 복음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식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더욱더 신학적으로 중국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물질듯이 밀려들어오는 해외 신학사조에 대해 중국 교회가 너무 무방비하고 허약하지 않느냐는 자기 반성도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

지금 중국에는 최소한 1,000만 명 이상의 기

독교인이 존재한다.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차고 넘치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만족하여 ‘부흥을 느끼기 즐기거나’, ‘교회건설의 과제를 소홀히 여기는 일이 있어서 안 될 것이다’라는 것이 이번 협의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이 행한 결의의 핵심이었다.

아직도 그들에게는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와 과제들이 있다. 예컨대 신학정립, 지도력 사이의 갈등, 교회 사이의 분열과 반목, 국가와의 관계정립, 교회 내에서의 남녀평등의 실현, 재정자립, 지도자 양육 등등의 문제들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며 간구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결조건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엡 4:3)에 있음을 그들은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깨닫고 있다. 지도력들의 하나됨, 성도들의 하나됨, 광대한 중국대륙과의 하나됨, 중국인들과의 하나됨, 유구한 중국문화와의 하나됨, 나아가 전세계 교회와의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이루는 것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그들의 기도제목일 것이다.

김종구 목사/ 애덕기금회(Amity Foundation)
해외연락사무소 간사



'97년 중공중앙 1호문서와 중국선교

왕쓰웨이

'97년도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최대 중요사업

'97년의 중국은, 정치권력의 핵심에서 장쩌민(江澤民)과 차오스(喬石)의 권력각축과 실력자 덩샤오핑의 사망설이 무성한 가운데서 시작하였다. '97년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이의 이목이 이 두 사건에 집중되었고, 그동안 덩샤오핑이 2월 19일 사망함으로써 십여 년 동안 난무하였던 사망설이 결국 종지부를 찍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의 전개 속에서 중공중앙과 국무원은 '97년도 <1호문서>를 지난 1월 6일에 발표하였다(1997년 1월 26일 홍콩 「명보(明報)」).

중국과 같이 공산당이 국가를 이끄는 통치구조 속에서 당 중앙 문서의 발표는 특별한 의미와 중요성을 지닌다. 당에서 중대한 문제와 결의를 표현하고 전달, 실천할 때는 반드시 문서를 발표하며, 발표된 문서는 그 어떠한 지침이나 행정 관습보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며 심지어 법률보다도 우위에 있다. 또 당 중앙에서 문서가 발표되면 정부 측에서 문서에 상응한 후속적인 행정조치나 법규를 마련하여 당의 문서가 각지에서 집행되도록 한다. 그러므로 당 중앙에서 문서를 발표하는 것은 당과 국가에 있어 중대 사항이 되는

것이다.

'97년도 당 중앙과 국무원이 함께 발표한 1호문서는 「한 발 앞서 정치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불안정 요소를 검사, 제거하는 것에 관한 통지(關於進一步保持發展政治社會穩定, 檢查消除不穩定因素通知)」라는 제목으로 각 성의 당위원회, 군구 당위원회에 하달되었다. 1호문서가 갖는 중요성이란 당 중앙과 국무원에서 '97년도의 최대 중요 사업에 대한 명시와 함께 중국 내 사회 불안정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담겨있다.

1호문서에서 “금년은 우리 나라의 역사발전에서 있어 중요한 해이다. 우리 나라는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고, 당의 제15차 전국대표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세계적 이목을 끄는 두 가지의 큰 일이다. 정치와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고, 전면적으로 또 확실하게 당의 14차 5중, 6중전회의의 정신을 관철하고 불안정한 요소를 검사, 제거, 잘 처리하는 것은 하나의 엄숙한 최우선 사업이다.”라고 하였다. 또 1호문서에서는 현재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 사회의 주요문제, 두드러진 문제, 주

요모순, 두드러진 모순 등을 해당 지역과 해당 당 부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사일정(議事日程)에 제기하여 해결, 완화, 방지, 극복 등의 처리 의견과 방법,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하고 있다.

주권행사와 국가통일의 첫걸음, 홍콩 반환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당중앙과 정부에서 「97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중대 사건과 업무는 금년 7월 1일의 홍콩 반환과 10월에 개최될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라고 천명했다는 사실이다. 홍콩 반환은 중국에게 있어 과거 식민지에 대한 단순한 주권회복이 아니라, 중국이 세계의 '유일한 중국'으로서, 그 유일한 대국인 중국이 자기 영토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나아가 마카오(1999년 포르투갈로부터 반환 예정)와 대만에게까지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넓고도 긴 의미를 지닌다. 이는 또한 중국의 국가 통일에 대한 숙원을 달성하는 데 있어 큰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홍콩의 중국반환은 중국의 주권행사와 국가통일을 향한 첫 발걸음이자 첫 열매인 것이다.

누가 중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

15차 중국 공산당대회

제15차 공산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방향성과 노선을 규정짓고 확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대회이다. 특히 중국의 최고 실력자 덩샤오핑이 사망한 시점에서 누가 중국을 이끌어가고, 누가 권력의 정점과 핵심에서 중국을 지도해 나갈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와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 형식적인 최고 권력자는 당의 총서기요,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장쩌민이지만, 실제적인 권력의 체제는 7명의 당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에 의해 집단 지도 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 중 장쩌민과 권력의 각축을 벌이고 있는 자는 당 조직과 검찰, 공안 조직에서 경력이 화려한 현재 전국 인민대표자대회의 위원장이면서 정치국 상

무위원인 차오스이다. 15차 공산당대회의 관건은 누가 실제적인 권력의 정점과 핵심에서느냐에 대한 판가름이며, 그것은 어느 인물 측 사람이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정치국 후보위원, 중앙서기처의 서기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의 위원 자리에 더 많이 선출되느냐에 달려 있다. 결국은 인맥포진이다.

〈1호문서〉의 주요 내용

1호문서에서 또 하나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현재 중국 사회의 불안정한 문제를 다음과 같이 열 가지로 파악하고 지적했다는 점이다.

첫째, 당 조직과 지방정부 사이에 영도의 위신과 호소력, 응집력의 문제가 있다.

둘째, 당정부 간부, 지도 간부, 고급 간부의 자질 향상력에 문제가 있다.

셋째, 당의 방침과 정책이 정착하고 관철되는 데 있어 간섭을 받고 지방주의와 파벌주의의 방해를 받고있다.

넷째, 사회 각 계층의 인생관, 가치관, 도덕관이 은연중에 변화되어 사회제도와 사회질서에 문제를 가져다주었다.

다섯째, 사회주의의 법제(法制)건설 사업과 법제가 간섭과 습관세력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여섯째, 지방과 지방 발전의 격차 그리고 각 계층의 경제 수입의 차이가 대립과 충돌을 낳고 있다.

일곱째, 국영기업의 개혁 진행과정에 있어 수많은 직공들이 직장을 떠나거나 취업대기, 조기퇴직 등으로 개혁사업과 당, 정부에 대해 대항하는 일이 조성되고 있다.

여덟째, 농촌과 농업 적체(積滯)의 문제가 여러 해 동안 좋은 해결을 보지 못하였기에 조직적인 반(反)정부 시위, 항의와 소요 사건들이 악화되고 있다.

아홉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반(反)중국·반공(反共)세력들이 중국을 향해 전복(顛覆), 침투와 선동활동을 하고 있다.

열번째, 중국 안에 있는 서양의 반중국·

반공세력의 지원과 조종을 받는 적대세력과 해외 적대세력의 전복, 파괴활동이 서양의 대 중국 전략에 발맞추어 나가고 있다. 중앙 당과 정부는 1호문서를 통해 한편으로는 '97년도의 가장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건이 홍콩 반환과 15차 당대회라는 것을 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중국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 열 가지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검사와 제거를 97년도의 최우선 사업으로 하여 전개 하겠다는 것이다.

1호문서로 우리는 '97년도의 중국은 정치 사회의 안정이 최우선 사업임을 알 수 있다. 당과 정부에서 「정치사회의 안정」을 최우선의 과제와 사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정치사회의 분위기를 「좌」적인 방향으로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즉 강경하게 정치질서와 사회질서를 잡겠다는 뜻이다. 우선 「정신문명 건설」을 수립한다 하여 각 지역과 기관에서 정치사상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고, 정치·사회 안정에 관계된 기존의 법규와 새로운 법규를 국가안전부와 공안국을 통해 집행할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전역에서 진행된 「엔다(嚴打)」와 같은 형사범죄나 사회범죄 소탕에 관한 운동도 전개할 수 있겠다. 또 사상과 정치, 민족독립에 관계된 사람이나 활동들에 대한 제재와 금지 활동을 보다 강경하게 착수해 나갈 수 있겠다. 해외나 외국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자들이나 적대조직, 세력이라 규정되는 활동들은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 97년도의 정치, 사회 분위기는 경색될 전망이다.

〈1호문서〉와 중국선교

과연 1호문서의 발표와 집행으로 인한 중국 정치사회의 「좌」적인 분위기의 조성은 중국 선교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사실 기독교 선교가 극도로 제약 받는 중국에서는, 공인된 삼자교회를 통한 제한된 선교와 정부 측을 통한 우회적 선교 이외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비공인 가정교회와 함께 진행되는 선교활동과 개별



적으로 실시하는 선교활동은 모두 불법·위법 활동임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중국을 향한 침투·전복·파괴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과 정부 특히 공안당국의 내부분서를 보면 이런 규정들이 더욱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공안부 부장 타오쓰쥬(陶駒駒)는 중국공산당 선전부의 내부간행물인 「시사보고(時事報告)」에서 해외의 여섯 가지 형태의 대 중국 침투 파괴 활동을 지적하였다. 그 중 다섯 번째가 종교를 통한 활동이다. 성경을 보내면서 성경을 통해 공산주의를 제압하겠다는 생각과 활동, 그리고 여러 가지 명의(名義)로 중국에 빈번하게 사람을 파견하여 종교 선전물품을 수송하고 비밀거점을 설립하며, 정부로부터 공인된 종교 조직을 와해시키는 일 등 이 모든 것을 종교 불법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1호문서에서 기독교 선교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사항이다. 당과 정부는 얼마든지 우리가 전개하는 기독교 선교 활동이 비공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전복, 침투, 선동, 파괴 활동이라 규정하여 제재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 결국 공인되고 합법화된 선교활동은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비공인 선교활동은 기존의 국무원 종교법규(1994년 1월 31일 공포)와 더불어 1호문서에서도 명백하게 제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7년도의 중국선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97년도의 중국선교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겠는가? 우선 97년도의 중국의 정치사회 분위기가 경색될 전망이다이라고 하였지만 이것은 전반적인 기후(氣候)이며, 각 지역에서의 실제상황 즉 각 지방의 날씨 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러기에 선교 대상 지역의 전반적이고 실제적인 상황과악이 급 선무이다. 예를 들어 보통 그 지역에서 과거 정치사회 운동의 과급성과 진행상황을 살피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작년엔 전개 되었던 「엔다」가 그 지역에서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살펴보자. 또 그 지역 당, 정부의 지도자의 성향과악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금년 그 지역의 정치 사회 분위기와 선교적 상황 전개를 전망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나의 선교 대상자에 대한 성격과 성향분석이 필요하다. 즉 이들이 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위 「불법」, 「위법」 조직인지, 아니면 「합법」 조직인지를 알아야 하고 만약 이들이 소위 「불법」조직이라면 이들의 신학사상과 교회관, 현실 세계관 등을 깊이있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과 동역할 때 이들이 만약 당과 정부, 그리고 공산주의에 대해 적대적이고 공인된 교회를 항상 공격하며, 현실도피적이고 강렬한 이분법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다면 이들은 정부의 표적이 된다. 선교사 또한 반 중국활동으로 강한 제재를 받을 것이다.

셋째, 공인된 교회와 선교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비공인 교회와 선교를 하든지, 선교 행위가 침투나 선동 또는 자기 세력확대라는 인상과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중국선교가 선교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그들을 섬기러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선교활동이 선교 행위자의 이익과 목적을 구하고 현지인을 단지 자기의 종이나 대리인으로 이용한다면, 우리의 선교는 분명히 다른 목적과 의도가 있는 침투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기에 선교는 반드시 현지인을 세워주고 내세워야 할 것이며

현지인의 부흥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선교를 하는 데 있어 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언사나 공산주의에 대한 저주적인 말투 그리고 공인된 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 현지인과 현지 사회를 무시하는 어조 등은 삼가야 한다. 이런 것들은 현지인과 정부로 하여금 선교를 정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선교에 불순한 동기와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의심받게 한다.

마지막으로, 97년도의 중국선교는 여전히 조용히 또 낮은 자세로 행해야 한다. 기독교 선교가 극도로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선교의 지속성과 장기성, 안정성을 위해 조용한 진행과 낮은 자세로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중국선교 활동이 중국 정부로부터 잦은 항의와 자제요청을 받는 근본적 원인은 요란한 소리와 고자세에 있다고 본다. 사실 중국선교의 문제는 방법론에서 생겼다기보다는 항상 동기와 태도, 자세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97년도의 중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과 안정

중국의 당 중앙과 정부는 1호문서를 통해 97년의 최우선 사업으로 정치사회의 안정을 채택하였다. 특히 덩샤오핑의 사망으로 인해 정치사회의 안정을 보다 더 강조할 것이고 「덩샤오핑 노선」의 견지를 대서특필할 것이다. 안정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은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조용히 중국인에게 증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97년도의 중국인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 글은 본래 「카타콤소식」(모퉁이돌선교회 발간) 통권 제79호에 실린 "혈관이 막혀있는 중국"이라는 글인데, 필자와 모퉁이돌선교회의 승인하에 본지에 실게 되었다. 제목과 발문은 필자가 쓴 원제를 달았다.

왕쓰웨 목사/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소장

中國政府
對香港恢復行使主權
倒計時
距1997年7月1日

365天

연재기획

1997. 7. 1 홍콩 반환을 논하다(3)

홍콩 주권 반환일까지 남은 일정

5월 영국군 주력부대 철수
6월 베트남 마지막 난민 송환
현 입법국 최종 회의(25일)
영국여왕 생일 축일 공휴(28일)
반환식 행사(30일)

홍콩 교회의 거듭나기

편집부

초임기에 돌입한 중국 반환

홍콩 반환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 각계 인사들은 착잡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82년 9월, 전 영국 수상 대처가 베이징(北京)을 방문하여,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과 홍콩의 장래에 대한 회담을 가졌다. 회담 결과 영국이 '97년 이후 계속 홍콩을 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때부터 많은 홍콩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외국으로 이민을 가기 시작했고, 이 중에는 적잖은 그리스도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치환경의 변화는 곧 홍콩인의 신분상의 변화로 이어져 그들에게 깊은 염려와 두려움을 안겨다 주었다.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

반환 문제가 대두되면서 홍콩 교회의 내향적이고 이기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이민 간 전문 인사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앞으로 전체 홍콩 사회의 발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에게 이 세상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와 국민들의 필요를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홍콩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제는 홍콩 교회가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할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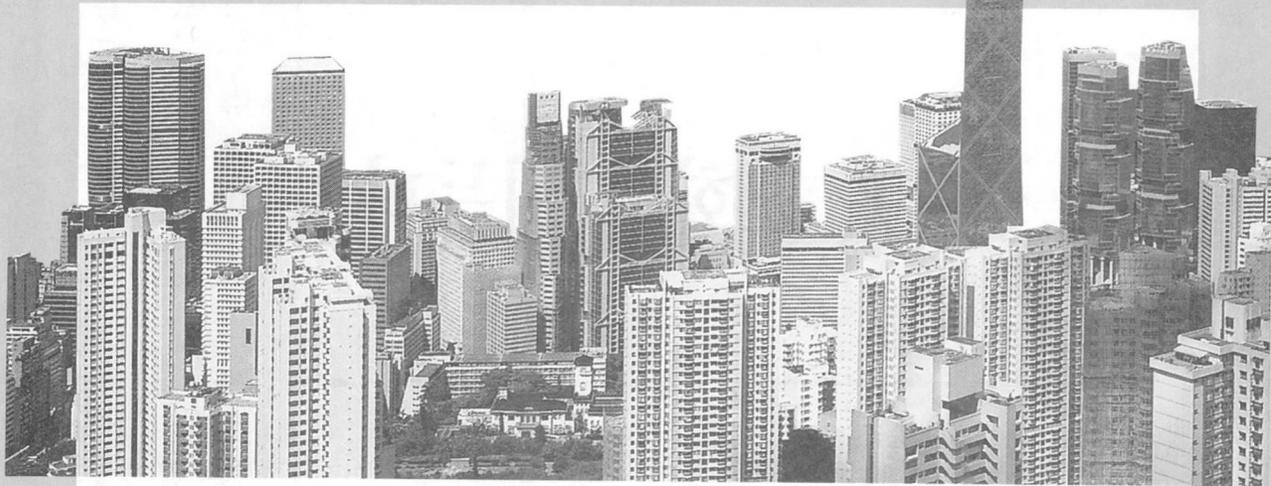
이전의 내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사회의 필요에 눈길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홍콩 역사의 전환점에 서서, 앞날을 불안해 하는 시민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용기를 전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지표를 넓혀야 한다

홍콩의 A선교단체의 경우, '중국사역 연락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했다. 홍콩이 중국의 일부가 되면 중국은 국내 사역이 된다. 앞으로의 중국 사역에 대한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의 정치상황과 종교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 단체의 주된 사역이다. 삼자교회와 가정교회에 대한 입장은 이미 정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선교 사역에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타선교단체나 교회의 경험을 수집, 정리한 자료들을 성도들에게 제공하며 자문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반환을 앞두고 B교회의 담임목사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해도 교회의 사역은 복음전파와 양육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역사적 환경이 아무리 크게 변한다해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사명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사명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



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지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이 사회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 줄 수 있을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앞으로 홍콩 교회는 개개인을 섬기는 차원을 넘어서 단체들을 섬겨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 사회의 악한 구조와 조직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해야 한다.

홍콩 교회, 먼저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몇 가지 견지해야 할 신념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해야 한다. 모든 관계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만 이 세상의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인생의 목표도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것은 많은 사역이 아니라 당신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고 목숨까지 위협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매우 강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신앙이었기에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끝까지 견지해야

한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가령 부부나 연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 헤어짐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하려 하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전과 변화의 기회로

영국의 식민지 홍콩은 이제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 이제 중국이 홍콩을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도전과 변화의 기회가 홍콩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홍콩반환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놀드 토인비(Arnold Toynbee)의 말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역사는 시대의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러므로 그 도전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문화는 살아남아 창대해지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패망할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守望中華」120期,
 ① 特區基督徒的身份,
 ② 困局和出路,
 ③ 共覓前路-面對九七教會如何更新?

번역, 정리/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사과를 한다는 게 그만...

赔礼

王家夫妻俩因为不善讲话，
常常得罪人。

왕씨 부부는 말재주가 없어서, 항상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



一次，邻居家死了
个孩子，托王家男
人去掩埋……

死了几个？死一个
我背着走，死两个
我用扁担挑。

몇 명이나 죽었어요?
아이가 한 명 죽었으면
제가 업고 가고, 둘이면
멀대로 메고 가지요.

어느날 이웃집 아이가 죽었다.
왕 선생에게 아이를 묻어 달라고
부탁했더니...



你千万别生气，你
大哥他不会说话。
以后你家再死了
人，千万别找他去
埋了。

우리집 양반이 말재주가 없어서 그래요.
다음 번에 당신 집에서 또 누가 죽으면
절대로 그이한테 물어달라고
하지 마세요.

邻居生气了，王家
女人去赔礼……



이웃집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매우 화가 났다. 그래서 왕 부인이
가서 사과를 하는데...

한국 여성 최초의 중국 여성선교사 김순호와 중국 여성 선교

김교철

한국 교회에서 중국에 여성선교사를 파송하여 중국여성계 지도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된 것은 1928년 9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17회 총회이며 외국전도부장 차재명 목사의 보고 중에 포함되어 있다.¹⁾ 남성 목회자만을 선교사로 인준하여 파송하던 조선장로회가 여성선교사 파송을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다. 여성선교사 파송을 희망한다는 보고에 이어 1929년 총회에서 여성선교사를 세워 중국여성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장래 경영에 포함시킴으로써 파송 의지를 분명히 하게 되었다.²⁾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중국여성계에 여성선교사를 파송하려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모종(某種)의 과정을 거쳐 1930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된 19회 총회에서 여성선교사 파송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기에 이른다. 여성선교사 파송사업의 실무기관인 여전도총회가 여성선교사 파송안을 발표하였다. ‘여전도총회’³⁾ 회장 도마리아(都瑪利亞) 씨의 여성선교사 파송과 관련된 보고는 다음과 같았고 보고대로 가결되었다.

“래년 경영은 중국 산동성 녀선교사 1인 봉급 520

원을 적립하였다가 명년 총회후 파송코자 함”⁴⁾

장로회 총회에서 여성선교사 파송 결의가 있게 되자 여전도회 회장 도마리아 씨 명의로 중화민국 산동 여성선교사 지원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교계신문인 ‘기독신보’에 내게 된다.⁵⁾ 1931년 3월 모집광고를 내고 3월 말일까지 통지토록 하였는데, 그 결과 김순호 양이 선택되었다.⁶⁾ 여자 선교사를 모집하되 장로교인으로 중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원 혹은 동등 이상 과정의 신학을 졸업한 자로 하였다. 또한 내외지에서 모집 당시 교역(敎役)에 종사하는 자로, 연령은 만 25세에서 만 30세의 충분한 성경지식과 사역 경험이 있는 여자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국 여성으로는 처음 선택하여 파송하게 된 고로, 중국 여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자격 있는 자를 선택하려 했던 것이다.

여전도회의 모집 규정에 합격, 선택된 김순호 양은 1931년 9월 11일 금강산 수양관에서 거행된 파송

2) 총회록, 제18회, 1929년, p.31.

3)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총회 라는 명칭을 ‘조선예수교장로회 연합여전도회’로 개칭하는 문제가 1931년 20회 총회에 상정되었다. 총회록, 제20회, 1931년, p.23.

4) 총회록, 제19회, 1930년, p.22.

5) 기독신보, 1931년, 3월 11일자.

6) 총회록, 제20회, 1931년, p.20.

1) 총회록, 제17회, 1928년, p.53.

김순호 선교사의 중국 파송에 대하여 주선에 써는 「장로교 여성사」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실로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의 여성이 대국(大國)이라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됨으로 한국 교회 여성 역사의 새로운 장(章)이 시작된 것이었다.”⁹⁾

김순호 선교사는 한국 교회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타문화권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동양인 여성 가운데서 교단총회의 인준과 장로교 여성들의 연합기구인 여전도회 인준을 거친 첫 중국 선교사라 할 수 있다.

김순호 선교사는 산둥(山東)성 래양(萊陽)에 거주하면서 중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성적은 양호하였다. 김순호 선교사는 방호원 목사가 거주하는 래양 남관에 거주하면서 어학공부를 하였으며¹⁰⁾ 어학 성적은 비교적 빨리 진보하였다.¹¹⁾ 김순호 선교사는 선교지 래양에서 1년쯤 어학 공부를 하다가 1932년 9월 북경(北京)으로 가서 중국어를 전습하고, 1933년 4월에 선교지로 돌아왔다. 김 선교사는 발음이 비교적 정확하고 어학이 진보되어 일반 강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¹²⁾

어학에 특재가 있던 김순호 선교사는 1934년 8월에 어학공부를 마치고 선교사업에 착수했다. 외촌교회에 가서 강도(講道·설교)하던 그녀는 가는 곳마다 큰 환영을 받았다. 1934년도 보고에 따르면 그녀가 방문한 교회 중 두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으며, 차차 일에 숙련되면 일반 부녀사업에 힘쓰려 한다고 하였다.¹³⁾ 김순호 선교사는 선교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선배 선교사들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았고, 그들이 수고한 지역에서 사역을 개척해야 한다는 부담없이 선교사역의 초년기를 보낼 수 있어 선교지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

김 선교사는 미혼의 독신여성 선교사로 현지에서의 안전을 위한 보호 및 관리를 현지 조선선교회를

中華民國山東女宣教師志願者募集

朝鮮에 수교장로회女傳道會總會가 一九二八年九月에 全朝鮮長老女傳道會를 창립하여 創立의역사온바 昨年 平壤總會에서 今年(一九三二年)九月부터 中國山東에 女宣教師一名을 派送하기로 決議되어 志願者를 募集하오니 中國 民女女子를 爲하여 聖役에 奉事하실분은 志願하심은 바라나이다

一九三二年二月 日

(住所) 咸北 咸津 趙町

朝鮮에 수교장로회女傳道會會長 都瑪利亞 氏

規 定

- 一、朝鮮에 수교장로회女傳道會의 敎人인 女子
- 二、中等以上の 學校를 卒業하고 聖道學院(或은 同等以上の 程度의 程度)을 卒業한者
- 三、內外地에서 現在 敎役(使役)에 從事한者
- 四、年齡 滿二十五歲로 滿三十歲까지의 獨身者
- 五、志願者는 三月三十一日까지 本會長에게 通知하면 詳細한 規定을 送來함

산동성 여성선교사 모집광고

식에서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게 되었다. 마침 20회 장로회 총회가 금강산 수양관에서 개최되고 있었다.⁷⁾

여성선교사로 선택된 김순호 선교사는 이미 중국 산동성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선교사 구역 내에서 동선교회 지도대로 사역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선교지와 선교사역의 범위, 행정적인 지도에 대한 배려가 이루어진 것이다. 김순호 선교사는 여전도회의 인선과 지도, 장로회 총회의 확실한 인준과 파송절차를 거친 후 선교지인 중국으로 파송되어 중국 여성들을 위해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김순호 선교사의 봉급과 어학비로 일금 600원, 여비로 30원이 예산 책정되었고 당시 조선의 기독교여성계를 대표하여 중국 여성들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⁸⁾

7) 총회록, 제20회, 1931년, p.20.

8) IBID., p.21.

9) 주선에, '장로교 여성사', 서울, 혜선문화사, 1979년, p.189.

10) 총회록, 제21회, 1932년, p.77. 종교시보, 소화 8년(1933) 11월 1일자, 18면.

11) 총회록, 제21회, 1932년, p.78.

12) 총회록, 제22회, 1933년, p.85. 종교시보, 소화 8년 11월 1일자, 20-21면.

13) 총회록, 제23회, 1934년, pp.111-113.

통해 받게 되었고, 또한 조선선교회 임원으로 참여하여 남성 선교사들과 동등한 자리에서 선교지 생활을 시작하였다. 많은 독신여성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직접적인 사역에 동참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갖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¹⁴⁾ 김순호 선교사의 경우는 직접적인 선교사역에 동참하여 중국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여성 사역에 착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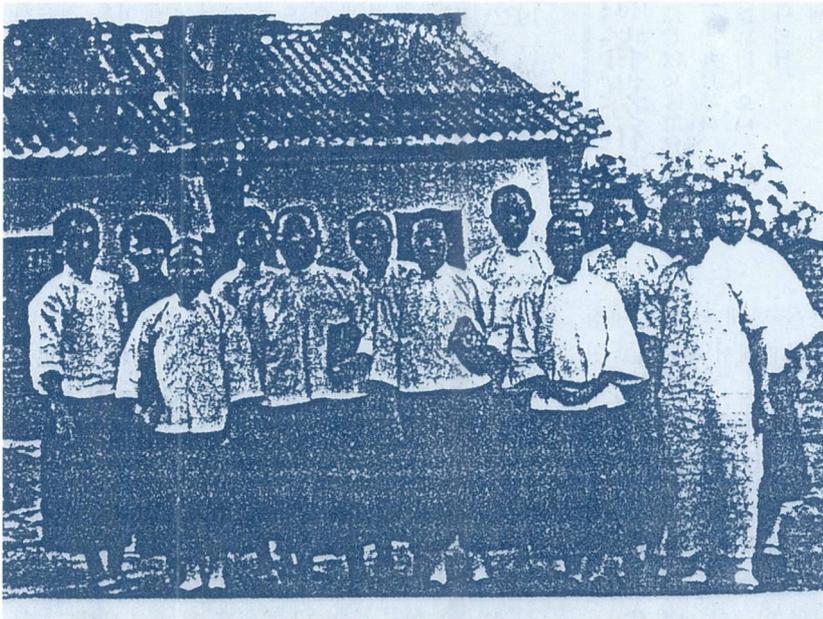
김 선교사는 1934년 가을부터 선교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1935년에 각지 교회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고 부녀사업에 많은 활동을 하였다.¹⁵⁾ 여성 선교사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열에 참여한 것이다. 김순호 선교사는 '김 꾸냥(姑娘)'으로 알려졌다.¹⁶⁾ 선교 초년병이었던 그녀는 선배 선교사들의 사역지에서 심방을 하고 도리반(道理班)을 인도하는 등 많은 수고를 하였지만, 좀더

"김순호(金淳好) 씨(氏)도 산동선교(山東宣敎)보다는 물론(勿論) 힘은 드나 재미는 무한(無限)하다고 하며, 이제야 선교사(宣敎師)의 취미(趣味)를 본다고 한다. 산동(山東)은 타인(他人)의 건설(建設)하여 놓은 것을 심방(尋訪)이나 하고 도리반(道理班)이나 할 것 뿐이었으나 만주선교(滿洲宣敎)는 그야말로 제일선(第一線) 개척(開拓)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한다."¹⁷⁾

산동성에서 사역하다가 만주국에서 일하면서 두 곳의 선교사역을 비교하면서 느낀 점을 표현한 것이리라. 김순호 선교사는 1934년과 1935년에 산동 조선선교사회에서 서기의 직무를 맡아, 선교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그녀는 래양노회에서 노회 회계로 선임되었는데 1935년 11월 25일 개최된 노회에서였다. 회장에 이대영 목사, 부회장 왕순청, 서기 수홍

창, 회계 김순호씨가 선출되었다.¹⁸⁾ 조선 여성 선교사가 중국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선교지에서 여성들이 성차별을 당하고 그것은 20세기에도 지속되었으며, 때때로 그 성격상 가장 신랄한 반목을 초래하였음을 생각해 볼 때¹⁹⁾ 김순호 선교사는 동등한 자격으로 선교사역에 참여하여 중국 부녀들을 주계로 인도하였다.

김 선교사는 산동성 래양에 거주하다가 산



1935년 경, 중국 산동성 죽목. 좌측 첫 번째가 김순호 선교사

개척적인 선교사역을 맡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산동성에서의 선교사역을 마치고 만주국에서 선교하던 김순호 선교사에 관한 기록에 그녀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14) 강성필, '한국 교회 여성 선교사의 실태와 문제점', 미션월드, 1992년 4·5월호, p.25.

15) 총회록, 제24회, 1935년, p.79.

16) 방지일, '복음역사만백년', p.41.

17) 김창덕, '만주광야의 부르짖는 소리', 기독교신문, 소화 17년(1942년), 7월 15일자. 원문에는 괄호 안의 한자로만 표기되었으나,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한글을 덧붙였다.

18) 총회록, 제25회, 1936년, p.45.

19) Ruth A. Tucker., '여선교사열전-원서명: Guardians of The Great Commission', 이상만 옮김, p.68.

동성 즉묵(卽墨)으로 옮겼다. 1934년 그녀의 주소가 즉묵 하남(河南)장로교회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어학공부를 마친 후 1934년 가을부터 즉묵으로 옮긴 것으로 보여진다.²⁰⁾

1936년 귀국하기 전까지 김 선교사는 전 선교지방 17처를 순방하면서 혹 1개월 동안 부녀도리반을 맡아 가르치고 사경회와 부흥회를 인도하여, 낙심한 자들이 통회하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다. 불신자들도 감화하여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가 많았으며, 특히 일반 부녀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다.²¹⁾

김순호 선교사는 만 5년 간 선교지 중국 산동에서 어학공부와 부녀 선교활동을 하다가 안식년을 당하여 1936년 8월 귀국하게 된다.²²⁾ 그녀가 안식년으로 귀국하게 되었을 때 즉묵성 교인들이 김 선교사에게 기념축자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안식년 기간은 1년으로하여, 6개월은 안식하고 6개월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즉묵에 성경학교를 건축할 건축비를 모금토록 하였다.²³⁾

그러나 김순호 선교사는 안식년을 1년 보내고도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937년 일제가 중국과의 전면전쟁을 시작하게 되어 선교지 산동으로 가는 것이 위험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국을 점령하려는 군국주의 일본의 시도는 1931년 만주를 장악함으로써 시작되었고 이것은 1937년에서 1945년까지의 전면적인 침략으로 이어졌다. 중일전쟁 8년의 기간 동안 중국 인민의 대부분은 일본이 점령한 지역 내에 있었고,²⁴⁾ 조선장로회의 중국선교지역도 역시 일본의 점령지였다.

1936년 8월 안식년으로 1년간 귀국했던 김순호 선교사가 산동성으로 다시 간 것은 1938년 10월 17일 이었고,²⁵⁾ 안식후 산동성 청도(靑島)시로 가기 전까지는 목단강교회를 돕다가 일본 횡민여자신학교에 가서 3개월간 수양하고 돌아왔다.²⁶⁾ 그녀가 선교지로 귀임하기 전인 1938년 5월 30일에 이대영, 김순호 선교사의 사택 가구 전부를 난민들이 약탈해 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²⁷⁾

김순호 선교사는 1938년 10월부터 청도시에 거주하면서 때때로 즉묵을 왕래하였고, 청도시 태평촌교회와 증가와교회 설립에 많은 협조를 하였다. 태평

촌교회에 도리반을 개최하여 인도하였고, 새로운 선교지 청도에서 활동하던 중 여전도연합대회의 소환 결정으로 1939년 9월 20일 중국 산동성 청도시를 떠나 귀국하게 된다. 이것은 1939년 9월 12일 신의주제일예배당에서 개최된 조선예수교장로회 여전도연합대회에서 산동 선교사 김순호를 시국관계를 이유로 당분간 소환키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²⁸⁾ 1939년 당시 여전도연합대회는 황군(皇軍) 위문금을 거두어 전달하고 황군을 위문하는 전보를 보내기도 하였고,²⁹⁾ 1939년 12월 29일에는 미나미 총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총력총회연맹 여자부 결성식을 가졌고 일천여 명의 여신도들은 결성식 후 조선 신궁에 나아가 참배를 하였다. 여전도연합대회 회장 이순남, 부회장 김마리아 등이 주요 순서에 참여하였다.³⁰⁾

김순호 선교사가 귀국하게 되면서 그녀의 중국 산동 선교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녀를 파송한 장로회총회와 여전도연합대회는 침략자 일본 황군을 위문하고 신사참배를 하는 등 신앙의 정조를 모두 버리고 있었다. 김순호 선교사가 산동성에서 활동한 기간은 만 6년인데, 그 중 3년은 어학공부를 하느라 준비시기로 보냈고, 산동성 여성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만 3년 정도라 할 수 있다. 산동성에서 그녀는 유일한 동양 여성 선교사로서 어학 준비와 심방, 설교, 전도활동과 도리반 지도 사역 등으로 중국 여성 선교 사역에 참여하였다.³¹⁾

1939년 귀국한 그녀를 여전도연합대회는 '만주선교사'로 파송하게 된다.³²⁾ 1939년 겨울, 만주국 선교사로 파송된 김순호 선교사는 최혁주(崔赫宙) 목

21) 총회록, 제25회, 1936년, p.43.

22) IBID., p.42.

23) IBID., p.27.

24) John King Fairbank, '신중국사-원서명: China a New History', 중국사 연구회 번역, (서울: 도서출판 까치, 1994년), p.408.

25) 총회록, 제28회, 1939년, p.37.

26) 총회록, 제27회, 1938년, p.16.

27) IBID., p.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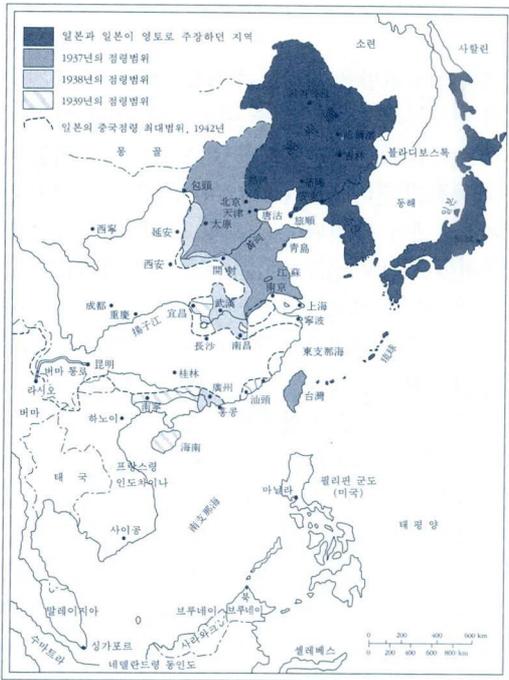
28) 총회록, 제28회, 1939년, p.80.

29) Loc. cit.

30) 장로회보, 소화15년(1940년) 1월 29일자.

31) 김순호 선교사가 1937년부터 1938년까지 방지일 목사님과 함께 선교활동을 하였다는 기록은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잘못 기록한 것이다. 이연옥, '여전도회화', (서울: 룬란 출판사, 1993), p.182. 김순호는 1936년 8월 귀국하였다가 1938년 10월 17일에야 산동성 청도시로 갔다.

20) 기독교신문, 소화 9년(1934년) 9월 26일자.



조선 장로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산동성과 만주국, 그리고 일본의 점령지역

사와 같이 새로운 입지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역지 만주국은 어떠한 나라인가. 1931년 9.18 사변(만주사변)이 발생한 후 1932년 3월 1일 만주국 성립이 선언되었고, 청조 최후의 황제 부의(溥儀)가 취임하였다. 만주국은 일본(관동군)의 괴뢰국가로서 대소련 전략기지, 철강·석탄·농산물의 자원공급지, 불황에 허덕이는 일본 농촌 과잉인구의 배출구가 되었던 곳이다.³³⁾ 일본의 괴뢰국가 만주국은 신경(新京) 특별시 외에 19개의 성(省)을 두었고 4,312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었다.³⁴⁾

만주국 쌍양(雙陽)에서 최혁주 목사와 함께 사역하게 된 김순호 선교사는, 유창한 중국어로 만주 부녀자들을 모아서 도리반을 열어 성경말씀도 가르치고, 글을 모르는 부인들에게는 중국언문, 즉 쾌자(快字-주음부호 발음표기법)를 가르쳐서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다. 글을 가르쳐서 성경도 읽게 만들어 일반 사회에서나 부녀자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게 되어 만주인들 사이에서 천사같이 특우(特遇)하게 되었다. 김순호 선교사는 산동성에서 사역하던 방식대로 만주국 쌍양현에서도 만주국 부녀자들을 상대로 활동을 했다. 김순호 선교사와 최혁주 선교사가

활동하던 쌍양현이란 곳은 신경(新京)에서 남(南)으로 120리 밖에 위치한 작은 도시였다.

만주국 쌍양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최혁주 선교사는 1937년 4월 14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방지일 목사와 같이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 후 만주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1939년 12월부터 산동성에서 사역하던 김순호 선교사가 동사(同使)하게 되었다.³⁵⁾ 만주국 쌍양현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던 김순호 선교사는 만주국 선교사직을 사면하게 되는데, 1942년 9월 22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개최된 제12회 여전도연합대회에서 사면을 허락받았다. 김순호 선교사가 만주국 선교사직을 사임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 지속적으로

선교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기간 사역으로 진행되었던 이유 중에는 시대적인 상황과 여건들이 상호작용을 했을 것이다. 선교사직을 사임하고도 김순호 선교사는 1년 간 선교사역을 계속하였는데 예산 1,200원 중에 1,000원은 김순호 선교사가 만주에서 활동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하고, 200원은 여전도연합대회가 부담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김 선교사는 선교사직 사면을 허락받고도 1년 간 더 만주선교를 하면서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사역한 것이다.

김순호 선교사가 만주국에서 만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활동을 한 기간은 1939년 12월부터 1943년 9월 전까지로 보여지나, 1년 간 더 사역하기로 했다는 기록 외에 또다른 사적(史的) 기록이 발굴되지 아니한 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만주국 사역기간은 대략 4년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며, 만주국 부녀자들에게 대환영을 받아가며 보람있는

33) 小島晋治·丸山松幸, '중국근현대사', 朴元燾 역, (서울: 지식 산업사, 1994년), pp.123-128.

34) 기독교신문, 소화 17년(1942년), 9월 16일자.

35) 남궁혁, '선교사 최혁주, 방지일 양 목사를 보내면서' 게재, 제69호, 1937년 5월, p.32.

32) 총회록, 제29회, 1940년, p.23.

사역을 감당하였다.

김순호 선교사는 1942년 여전도연합대회가 신설
기로 한 여자신학부 이사 중의 한 명으로 피선되었
다. 신학부 이사로 피선된 이들은 김순호, 김마리아,
류안심, 배명진, 리순남 씨 등이었다. 김 선교사는
1942년 제12회 여전도연합대회에서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³⁶⁾ 김순호 선교사를 지원하고 파송하였으며
표창까지 수여한 여전도연합대회는 사실 이미 언급
한 바대로 대다수의 임원들과 회원들이 신사참배에
참여하였고, 국방헌금, 필승선언문 낭독 등 일제에
순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심지어 1943년 3월 5
일 저녁부터 열린 “전선여자대표자연성회”에 22개
노회 대표와 여전도연합대회 임원들까지 합하여 80
명이 참석하여, 개회식 후 다음날 조선 신궁(神宮)에
나아가 신사참배 등 일제의 강요를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³⁷⁾

일제는 장로회 여성들에게 ‘징병제도 취지 철저’,
‘징병제 실시와 총후여성의 각오’, ‘기독교는 일본 국
체를 지키는 종교가 되라’ 또는 ‘기독교는 사교 배척
의 구호선이 되고 전쟁 수행과 징병제도에 매진하
라’ 등의 내용으로 정신교육을 강도있게 시켜 나갔
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복음 선교사업에 힘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웠다.

김순호 선교사가 산동성으로 파송되던 시기와 그
녀가 산동성 사역을 마무리하고 만주국으로 가게 된
전후의 상황에서 여러 면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그러한 시대적 여건 속에서도 김순호 선교
사는 중국 산동성에서 6년 간, 그리고 만주국에서
수년 간 중국 여성들을 위해 복음의 역사를 일으켰
으며 많은 중국 여성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 구속주
를 알게 하였다.³⁸⁾

김순호 선교사는 일제하 한국 교회가 중국 여성들
과 만주국 여성들을 위해 파송한 유일한 여선교사였
으며, 헌신적인 선교사로 중국 여성들에게 환영받으
며 사역을 한 인물이다. 시대적인 상황과 맞물려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동안 사역하지는 못하였으나, 그
녀의 헌신과 사역을 기억하고 중국 여성들을 위해
사역하려는 귀한 헌신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겠다.

맺는 말

중국 여성 선교를 위하여 1931년부터 여선교사를 중
국에 파송하여 사역케 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며 소
중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겠다. 여선교사의 인선과
파송, 후원관리와 현지지도, 안내, 기존선교사들과
의 협력과 지도 그리고 여성 선교사도 선교회 및 현
지도회 임원으로 사역하였던 사실 등을 우리의 선교
역사에 나타난 귀한 교훈으로 받아 여성 선교사 파
송 사역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서양 여선교사들이
의료, 교육, 번역 분야 등지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고
사역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국의 여러 분
야에서 사역할 귀한 여성 선교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야 하겠다.

김순호 선교사를 여성 선교에 투입한 일 외에도
조선장로회는 여러 명의 중국인 여전도인들을 세워
전도하는 일에 참여케 하였다. 중국 각지에서 선교
사역에 임한 오천 명 가량되던 미국 선교사들 가운
데 상당수가 여성들이었을 것이다.³⁹⁾ 그들과 비교할
수는 없으나 조선장로회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였다.

김순호 선교사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사 부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중국 여성 선교사역에 헌신하였던
개척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여성의 해방
이나 그들을 위한 이렇다 할 사회사업을 벌이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중국 여성들에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기 위해 수고하였던 것이다. 한국
교회는 중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가운데 여성선교의 주역이 될 신실한 여성 선교사들
을 발굴, 훈련, 지원 등에 힘쓸 뿐 아니라, 선교사
부인들에게도 역량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사역훈련
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37) 기독교신문, 소화 18년(1943년), 4월 14일자. 이연옥, ‘여
전도회학’, pp.53-54에는 신사참배운동에 항거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나 사실과 많은 차이가 난다.

38) 김순호 선교사에 관하여는 지속적으로 연구할 것이며
귀국 후 사역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아니하겠다.

39) 에이.엘.완슈스, ‘중국에 있는 선교사 퇴퇴문제에 대하
야’, 기독교신문, 1927년 5월4일자.

이 글은 중국선교연구협회가 주최한 제20회 중국선교역사세미나(1996. 4. 26) 연구발표 논문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36) 기독교신문, 소화 17년(1942년), 10월 7일자.

김교철 선교사/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 연구원

나의 중국 생활기

박은정

필자

는 2년 전 중국의 S성에 와서 대학에 입학,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처음에는 언어 학습에만 전념하다가, 한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언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중국선교 훈련을 받았던 것이 예상외로 많은 도움이 되어 대학생들에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일단 사역에 뛰어들고 나니, 자연히 중국 사회의 단면들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인구 밀도가 높은 이곳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자전거 문걸을 잠깐이라도 보고있으면, 사람들의 까만 머리만 점점이 보여 현기증이 날 정도이다. 최근 이곳에서도 위성도시 건설붐이 일고 있어 경제개발의 위력을 실감케한다. 이러한 와중에도 이곳의 '인간시장'에는 고용주를 만나려고 한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때 개혁개방에 따른 부작용 또한 큰 것을 알 수 있다.

교통경찰이 장애가 되는 교통

중국인들이 워낙 '만만디'라 우리 나라만큼 급하게 차를 몰고 다니지를 않아서 그런지 차나 사람이 마주쳐도 서로 알아서 잘 피해 간다. 중앙선도 없이 차들이 다니는데, 차나 사람이나 자전거나 서로를 무시위할 줄 모른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몇 차례씩 접촉사고가 난다. 게다가 교통경찰은 질서를 정리한다시고 더 막히게 만든다. 경찰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네끼리 알아서 잘 간다.

중국인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 불평은 하지만 그리 큰 문제 의식은 갖지 않는다. 생활문화 전반에 걸쳐 언론의 통제가 심하여 좋지 않은 뉴스나 사고 소식은 들을 수 없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라 밖으로 나가보지 않아 그들의 삶과 비교할 대상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공산주의 통제와 폐쇄된 사회

아무리 중국이 개방되었다지만 공산주의 형식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대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반회의(班會議)를 하는데, 회의를 하기 전에 반 간부와 학생을 관리하는 교수가 학생들의

동태를 살핀다.

늘 우울증에 시달려 매일 세 번씩 약을 먹어야만 했던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울증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증거하였고, 이 일이 교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교수는 그에게, '아직도 한국인들의 모임에 나가냐며 그의 행동에 대해 조심스럽게 경고하였다.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종교를 이유로 국민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종교법이 있다는 것과, 자기가 외국인에게 복음을 받아서 믿은 사실이 발각되면 잡혀간다는 것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버젓이 삼자교회나 절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학생 정도 되면,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긴 있지만, 외국인이 주관하는 모임에 가선 안 된다'는 것쯤은 알게 된다. 외국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알려질 경우 졸업장을 받지 못해 취직의 길이 막히고 진로에 장애를 겪는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 자유롭게 여기며 지혜롭게 대처하는 학생도 있지만,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성경공부를 하다가도 졸업이 가까워지면 일단 졸업한 후에 다시 성경공부에 참여하겠다고 하며 한동안 모임을 떠나기도 한다.

판시(關係)로 사는 사람들

중국인들에게 판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이것은 확실히 체험케된 계기가 있다. 전세로 아파트 하나를 얻으려고 별별 노력을 다 해보았는데도 도무지 얻어지지 않았다. 중국인들은 무조건 '없다', '안된다'로 일관하였다.

하도 집 얻기가 힘들어서, 어느날 중국인 친구에게 마음에 두고 있던 집에 대해 살짝 운을 띄웠다.

“저 아파트가 싸고 좋아서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래? 내 친구가 그곳에 살고 있으니깐 한번 알아보자.”

잠시 후 그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맞아. 이쪽에 그런 아파트가 있어. 내 친구 중에 거기 관계된 사람이 있으니 잠시 기다려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너 번을 거친 후에 한참 건너될 친구에게 응답이 왔다.

“네 친구가 그 아파트를 원하니?”

“그래. 원해.”

“그러면, 내일 만나자.”

이렇게 해서 원래 가망없던 아파트를 하나 얻게 되었다. '중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다'는 말은 아마 이런 경우에 실감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 외에도 중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과 유학생에게는 비행기값이 할인되지 않는데, 만약 아는 중국인 친구를 통하면, 10~2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다. 열차표를 살 때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에서 열차표가 판매되면 일단 50% 이상은 암거래상에게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새벽에 가서 줄을 선다고 해도, 조금 있다보면 벌써 다 팔렸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럴 경우 예를 들어, 한 중국인 친구의 이모가 뭇뚱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녀의 아는 사람, 또 그 사람의 아는 사람... 이런 식으로 몇 다리를 거치면 표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표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이다.

중국은 지금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고, 불법이라고 안 하는 사람도 없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한국 선교사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며 법은 최대한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중국인 친구들의 도움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안(公安)들도 사소한 경우에 친구 관계면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다

어떤 친구관계는 쉽게 신뢰가 형성되는가 하면 어떤 관계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한다리 걸쳐 친구의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쉬운 것 같다. 우리의 사역이 조심스러울수록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 정육점 점원, 학교 선생님, 수위 아저씨도 모두 친구로 사귀 수 있다.

중국인들은 친구 사귀기를 좋아한다. 비행기 옆 좌석에 앉았던 사람이나 택시 기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다. 한번은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죽을 안 서려는 사람이 있길래 어깨를 탁탁 치면서, “당신은 내 뒤예요”라고 했더니 알았다며 뒤로 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하이(上海)에서 그 사람과 함께 내리게 되었다. 호텔을 찾아 가려고 했으나 여자 혼자서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왜 안 가고 여기 서 있죠? 친구가 나오기로 했나요?”

“아니요. 사실은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를 갈아타려고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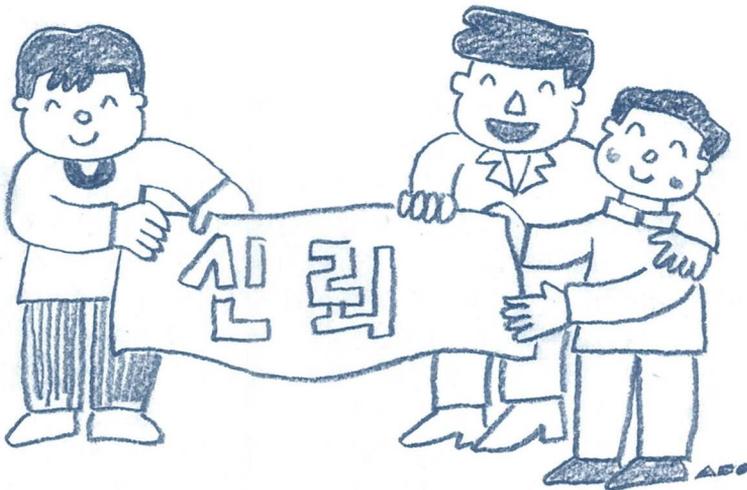
“제가 알기로 이곳엔 외국인 재워줄 만한 호텔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나가면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그리고는 주변을 한참 둘러보더니, 근처에 있던 어떤 사람을 불렀다.

“이분을 ○○에 연락해서 도와주십시오.”

잠시 후 봉고차가 와서 나를 바로 공항 옆에 있는, 외국인은 묵을 수 없는 잠급 호텔로 데려갔다. 호텔 입구에 차가 멈추자, 그는 “내일 아침 이 분을 ○○시(時)까지 공항으로 모셔다 드리라”며 운전 기사에게 부탁까지 해주었다.

“당신도 이 곳에서 묵으실 건가요?”라고 물었더니, 그는 “아닙니다. 저는 집에 가야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명함을 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는 것이었다. 내가 다소 겁에



질려 이곳은 괜찮은 곳인지, 무서운 사람들은 아닌지 염려스럽게 다시 묻자, 그는 “당신한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잘 말해 놓았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사실 이런 호의들은 모두 다 그의 친구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친구간에는 선물을 하면 선물로 갖고, 도리주면 다음엔 상대방이 도리주는 식으로 은혜를 주고 받는다.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해코지도 하고 어거지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친구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친구를 위해 무엇이든지 들어주고 참아준다.

일반적인 사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면, 복덕방이나 소개업, 그리고 유통사업들은 아마 한동안 중국에 발달하기 어려운 것 같다. 일반적으로 유통사업은 공정한 단계를 밟아야 하는데, 중국에서 하나의 공정한 단계를 밟고자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전화 한 대 놓으려면 보통 3년은 걸릴 것이다. 상부에서 ‘○○를 어디로 보내라’는 지시가 내려도 아랫사람이 ‘보냈다’는 말만 하고 가만 있으면, 결과는 없고 시간만 무한정 가는 것이다.

중국에서 귀국비자를 받을 때 공안에서는 ‘학교에서 △△증을 받아오라’고 한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냥 가도 된다. 필요없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둘 사이를 왔다갔다 하다보면 시간은 시간대로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이 그 사람들 마음에 안들거나 ‘판시’가 없으면 불필요한 절차인데도 ‘어디 가서 뭐해라’, ‘이것을 이렇게 해라라’, 혹은 ‘도장을 받아라라’... 이런 식으로 일을 질질 끌고 가는 것이다.

중국은 내 방식대로 원칙을 고집하거나 고지식하게 상식을 고집하며 살기에는 너무나 힘든 나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속임수’를 허용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사역자는 후배 사역자가 그 지역에 들어온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방학이어서 후배를 위해 집을 구하고 전화, 세탁기까지 마련해놓고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그 후배 사역자는, 가족은 나중에 들어오기로 하고 자기만 몇 개월 먼저 들어올 계획이었다. 막상 그가 가족 없이 혼자 오자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로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을 섭외했던 선배 사역자는, “그의 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가족과 함께 온 줄 알고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라며 일을 수습하기에 동분서주하였다. 하지만 학교 측은, “3시에 다시 전화하세요. 공안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내일 다시 한 번 연락해 보세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것이 매일 되풀이 되었고 선배 사역자는 3, 4주 동안 학교를 왔다갔다 했다. 그가 고생하는 것을 보는 주변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저 와이반(外班) 선생, 분명히 돈 요구하는거야. 몇백 분 집어주면 빨리 될 텐데...”

하지만 이 사역자는 감사하는 셈치고 하라는 대로 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 양보하여 다행히도 후배 사역자는 기숙사 밖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이럴 때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돈을 써서 일을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판시는 돈이 아닌 신뢰감이 바탕이 되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삶의 지혜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오면 중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충고하고 싶다. 물론 나 역시도 결국은 중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한계를 완전히 넘을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사는 동안은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내 마음을 비추는 햇살

전전(眞眞)

나는 이 세상에 나올 때부터 공산주의의 요람에서 태어났다. 나는 가정이나 학교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장성해서 꼭 공산당원이 되어야겠다’는 소원을 가질 만큼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고 컸다. 두 분 부모님 모두 군인 출신이라서 스무살이 되던 해에 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 그 후에는 영광스럽게도 전국 인민대표라는 직위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런데 문화대혁명 도중 린바오(林彪) 사건(1971년 9월 13일, 소련으로 망명하던 린바오 일가족이 외몽고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 일설에는 마오에 의해 피살된 이후 비행기에 실려 격추되었다고 함-역자 주)이 터지자, 40년 동안 공산당을 신봉해왔던 아버지께서는 당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하지만 난 아니었다. 사인방이 무너지고,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고난의 세월

도 막이 내렸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잔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마침내 깨달은 바가 있었다. 공산주의를 신앙으로 삼고 살아온 나 역시 비록 가끔은 혼란스럽고 마음에 동요되는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은 놓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준 1989년의 6·4 천안문 사태를 경험하면서, 나는 완전히 깨어났다. 그 당시 “펑” 하던 폭발음과 학생들을 향해 밀려오던 탱크의 굉음으로 인해 나의 이상과 희망은 철저히 부서졌고, 그동안 마음 속에 간직해왔던 공산당에 대한 믿음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때부터 난 아무 것도 믿을 수 없었다. 초자연적인 것도 믿지 않았고, 오로지 나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경쟁하는 것 외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

졸업 후 교직에 몸담고 있던 나는 1992년에 운 좋게도 18명의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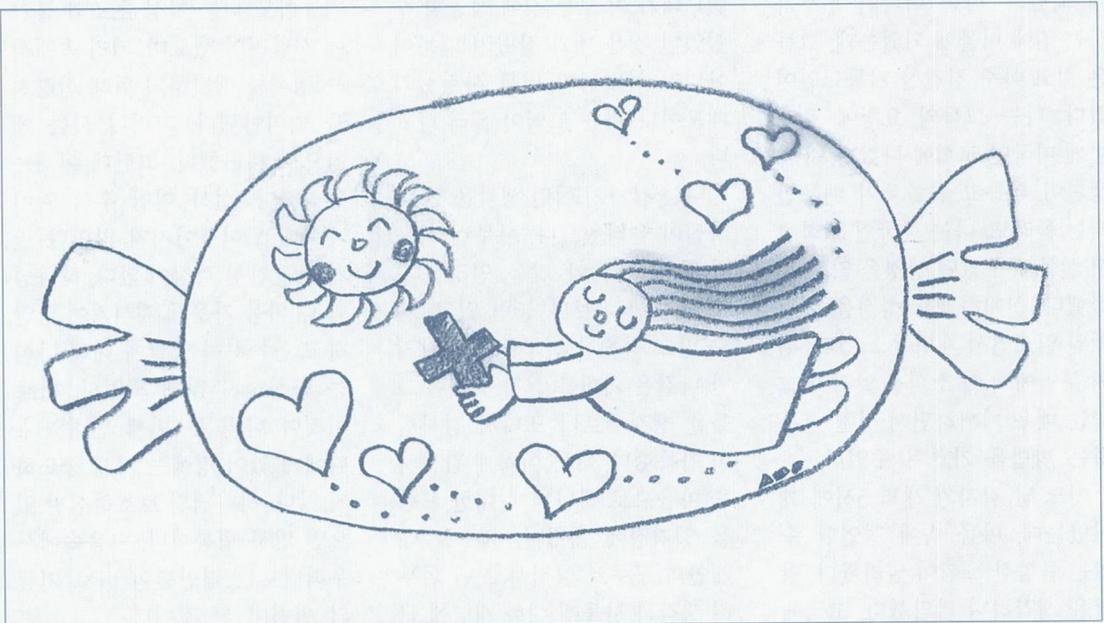
른 교사들과 함께 미국으로 교사 연수를 가게 되었다. 우리는 먼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UCLA 대학에 갔다. 도착한 첫 번째 주말에 그곳의 중국인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함께 식사하자는 초청을 했다. 초청에 응한 우리들은 각자 한 권의 성경과 '사막의 샘(荒漠甘泉)'이라는 책을 선물받았다.

난 생전 처음 교회에 가봤다. 그 곳은 고요함과 장엄한 분위기로 가득차 있었다.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도 멋있었지만, 교인들이 타인을 조심하고 경계할 필요없이 서로 관심을 나누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욱 좋아보였다. 하지만 그 후 교회를 몇 차례 다니면서 설교 시간에 계속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들으니 저으기 실망이 되기 시작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두고 그런 터무니 없는 가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착하고 친절했지만 내 눈에는 너무 미련하게 보였다.

그 때 우리들에게 연락을 취하던 분은 뤼(呂)씨 부인으로 매우 온화하고 자상한 좋은 분이였다. 하지만 난 더이상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절했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해서 내게 전화를 해왔고 관심을 기울였다. 그녀의 따뜻한 정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느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내가 무엇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얼마 후 선달 그믐날 밤, 그녀가 내 친구와 나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는데, 음식은 매우 풍성했다. 집을 나오기 전에 그녀가 사탕을 많이 내 주머니 속에 넣어주었다. 불빛 아래 그녀의 표정과 움직임을 보며 나는 갑자기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꼈다. 자상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어렸을 때 내 가방에 사탕을 쑤셔넣어 주시던 어머니



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비록 오래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풀었다. 게다가 우리는 아무런 보답도 해줄 수 없는 처지였으므로 나는 그녀의 사랑에 더욱 감동을 받았다. 막 떠나려는데 그녀가 나에게 '사영리'에 대해 들어보겠느냐고 물어왔다. 사영리를 설명한 후에는 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냐고 물었다. 사실 나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고 또 믿지 않는다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예의상 그냥 "예, 영접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면서 느낌이 어떠냐고 물었다. 나는 그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또다시 거짓말로 이제는 마음이 훨씬 든든해졌다고 했다.

3월 초에 교사 연수는 끝났지만, 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풀러튼(fullerton)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나는 미국인 부부가 사는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들은 젊고 아주 경건한 기독교인이었다. 나는 그들의 요청에 응해 함께 미국인 교회에 나갔다. 유학 생활이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나는 중국인 교회에서 선물로 주었던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성경을 매일 매일 읽으면서 재미를 느꼈다. 뤼씨 부인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 그녀는 매우 기뻐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 5시에 깨어났는데, 마음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쓸쓸한 느낌이 밀려왔다. 앞날을 생각하니 막막했다. 고국에

돌아가도 별 소망이 없고, 그렇다고 미국에 머물자니 이곳도 결코 '천당'은 못 되었다.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 나는 편히 잠들 수 있게 해달라고 난생 처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그리고선 금방 잠이 들었고 다시 일어나보니 아침 7시였다. 그 때, 내 마음 속에 갑자기 기쁨이 가득 밀려왔다. 그 기쁨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방금 잠들었던 2시간 동안 나는 꿈을 꾸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보는 듯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공했던 일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던 일, 대학 진학과 대학원까지의 세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모든 삶들이 기억 속에 떠올랐다. 이 모든 꿈 속의 화면을 통해 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진진(眞眞), 네가 이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네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이 흘러 나왔다.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 내 자신이 놀라웠으나, 아무런 갈등과 고민없이 이 말을 인정했다. 내 주변엔 나보다 능력 있고, 재주 많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나같은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들을 생각해보니 또다시 감사함이 가득했다. 나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일기장에 옮겼다.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부터 생각과 사물에 대한 개념에 근

본적으로 변화가 왔으며, 삶이 변했다. 거듭난 생명이 된 것이다.

나의 첫 번째 변화는 편안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자연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자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또 내가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에는 이국의 파란 하늘과 떠도는 흰구름, 산천초목들을 볼 때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 오히려 고국이 그리워지고 고뇌에 빠지곤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감정은 처음 느껴 본 것이었다.

이전의 나는 자신의 능력에 도취하여 내 힘으로 모든 일을 계획해 나갔고, 장래에 대한 청사진도 이미 완벽할 정도로 설계해 놓았었다. 심지어 언제쯤 조교수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 인생의 계획표에 이미 확실히 짜여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아도 나는 항상 초조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으며, 뇌리 속에서는 명예를 쟁탈하기 위해 신경전을 벌여야 했다. 그러니 사는 게 참으로 피곤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 설사 며칠 후의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혀 걱정이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평안하고 든든하여 앞날에 대해 다시는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나의 두 번째 변화였다. 나에게 있어 명예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안함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된 것이다.

세 번째 변화는 모든 일에 의연해진 것이다. 인간관계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이전에는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과 끝장을 봐야 했다. 그리고 절대 용서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가끔 억울함을 당하거나 오해를 받더라도 조금씩 용납하는 마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한다는 것도 배웠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그분이 나의 심령을 새롭게 바꾸어 주셔서 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처음으로 인간의 원죄와 죄성, 그리고 죄의 행위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행위와 내적인 변화는 결코 이 세상의 법과 정치 등 규정된 법률로 인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다. 나는 오직 주 예수만이 중국인의 영혼을 구원할 중국의 희망이고 온 인류의 희망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 서울대에서 개설

서울대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인을 양성하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지도자 과정’을 4월부터 개설한다고 3월 17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는 사범대와 인문대 어학계열 주관으로, 1년 동안 한국어 구조, 한국의 문화와 현실, 한국어 교수법 등을 이수하며, 과정 이수자가 일정한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앞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거나 해외진출 기업체가 현지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때 교수요원으로 활약할 수 있다. 서울대는 4월 초 이 과정에 입학할 외국인 구사가 가능한 대학 졸업자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97. 3. 17 중앙일보

출처 및 원제: 「海外校園」 19期 pp. 26~27, “心裡的晨光”

번역/ 차이나·본지 편집기자

베이징(北京) · 톈진(天津) · 청더(承德)

유재승

●●●●● 베이징(北京)

베이징은 1,100만의 인구를 가진 중국의 수도이다. 3대 직할시(北京, 天津, 上海)의 하나로, 도시가 비교적 질서 있고 잘 정돈되어 있다. 베이징은 금(金), 원(元)대에 중국의 중심지가 된 이후, 명(明), 청(淸)대에 이

르러 그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다. 자금성, 이화원, 천단, 명 13릉 등은 이 시대의 유적지이다. 그러나 일직선으로 이어진 장안대가(長安大街) 주변의 빌딩과 계속되는 아파트 숲은 개혁과 개방의 물결에 따라 서구화된 중국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통편

비행기

현재 서울 김포공항에서 베이징까지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으며(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중국국제항공), 소요 시간은 1시간 정도이다.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에서 시내 중심부까지는 약 20km이며, 차로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

※ 비행기 운항스케줄

서울 → 베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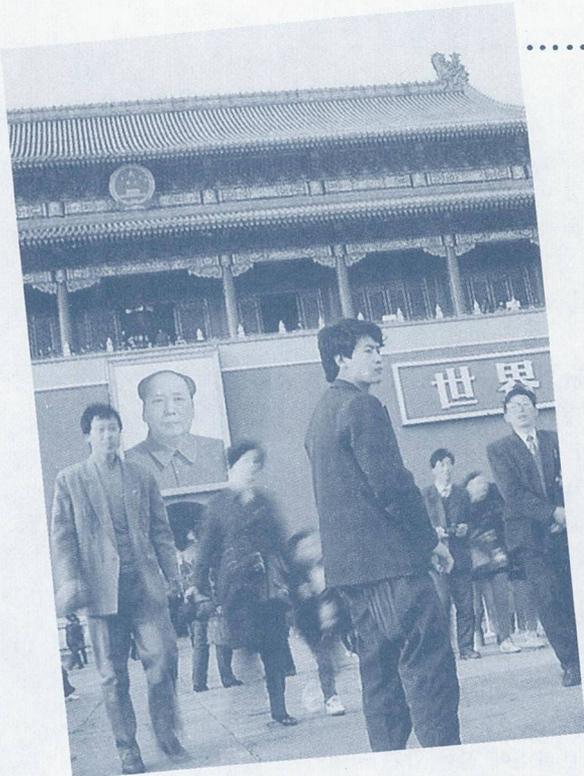
KE651 10:35→11:35 월, 화, 수, 금, 토, 일
OZ331 10:50→11:55 월, 화, 목, 금, 토, 일
CA124 13:50→14:40 매일
CA126 19:10→20:10 월, 수, 금, 토

베이징 → 서울

CA123 09:30→12:20 매일
CA125 15:20→18:10 월, 수, 금, 토
KE652 12:40→15:25 월, 화, 수, 금, 토, 일
OZ332 13:00→15:50 월, 화, 목, 토, 일

공항에서 택시 이용 방법

관광객에게 편리한 택시는 지붕에 ‘추주(出租)’라고 표시되어 있다. 공항이나 베이징역, 호텔 카운터에 신청하거나 현관에서 기다리면 종업원이 순서대로 안내해 준다. 몇 년 전만 해도 흥정을 해야했지만, 요즘은 거리와 시간을 병행하여 계산하고 원하면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 그래도 요금 표시가 있는 미터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장거리를 갈 경우에는 미리 행선지와 이용요금 등을 정확히 흥정해 두어야 바가지를 쓸 염려가 없다.



천안문 광장

성은 현재 동성구(東城區)와 서성구(西城區)이며, 외성은 숭문구(崇文區)와 선무구(宣武區)에 해당된다. 성문 중 남쪽 영정문에서 북쪽 종루까지 남북으로 관통하는 중축선이 있고, 천안문을 경계로 동서로 이어진 장안대가가 있다. 베이징은 이들 축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었다. 베이징의 변화가는 왕푸징(王府井), 시판(西單), 동단(東單) 거리 등이다.

천안문 광장

천안문은 명(明)나라 영락(英樂) 15년(1417)에 건설되었다. 지어질 당시는 승천문(承天門)이라고 불렀는데, 전화(戰火)로 소실되어 1651년에 재건되었고, 이 때부터 천안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선언이 이 문 위에서 이루어져 중국인들에게 의미가 깊은 장소이다. 다섯 개의 문 가운데 중앙문 위에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대형 컬러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좌우로 '중화인민공화국 만세'와 '세계인민대단결 만세'라는 큰 표지판이 눈에 띈다. 그리고 천안문 좌우에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탠드가 남쪽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천안문 광장은 베이징의 중심이다. 원래는 110m² 정도였는데, 1959년 건국 10주년을 기념하여 정비함으로써 넓이가 440km²의 규모로 확대되어 50만 명 이상도 수용하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었다. 광장 북쪽 끝의 지하도 위는 넓은 장안대가가 동서로 뻗어 있고, 그 북쪽으로 이어진 금수교(金水橋)를 건너면 천안문을 통해 웅장한 자금성으로 연결된다. 천안문 광장은 무엇보다도 그 넓이에 압도되지만, 또 하나의 색다른 명물은 국기 게양식 광경이다.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국기 게양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 특히 베이징을 구경하려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국경일이라든지 노동절(5월 1일)에는 천안문과 그 사방의 건물 지붕이 조명으로 장식되어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도 있다.

천안문 광장의 동편에는 '중국혁명박물관'과 '중국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서편에는 '인민대회당(人民大會堂)'이 있다. 3천 명의 인민대표들이 매년 한 차례 씩 모여

지하철

현재 베이징에는 환산선(순환선)과 동서선 두 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다. 하나는 구내성 성벽 아래를 일주하는 순환선이다. 베이징역 - 첸먼(前門) - 푸싱먼(復興門) - 시즈먼(西直門) - 젠궈먼(建國門) - 베이징역을 도는 코스다. 동서선은 시단(西單) - 푸싱먼 - 완서우루 - 핑궈위엔(蘋果園)의 코스로 푸싱먼역에서 환산선과 만난다. 각 역의 입구에는 '띠티에(地鐵: 지하철)'라는 커다란 표지판이 붙어있다.

가 불안한 곳

고궁을 중심으로 넓은 성벽에 둘러싸인 베이징은 내성과 외성으로 구분된다. 내

법률개정이나 국가주석, 총리, 부장 등을 결정하는 회의를 갖는다. 전자는 중국 역사와 혁명 과정을, 후자는 오늘의 정치 현실을 설명해주는 곳이므로 반드시 참관할 만하다.

인민영웅기념비(人民英雄紀念碑)

천안문 광장 남쪽에 우뚝 솟은 높이 약 38m의 이 기념비는, 혁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1958년 5월 1일 노동절에 낙성하였다. 정면에는 마오쩌둥의 글씨로 '人民英雄永垂不朽(인민 영웅은 영원히 불멸한다)'는 금문자가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쓴 비문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 계단에 있는 총탑의 흔적은 1989년 6·4 천안문 사태 때 생긴 것이다

마오쩌둥주석 기념당(毛澤東主席紀念堂)

천안문 광장의 남쪽 인민영웅기념비 바로 뒤에 있는 정방형 건물로, 1976년 9월 9일에 사망한 마오 주석의 유체가 수정관에 안치되어 있다. 70만 명의 노동력을 들여 1976년 11월 24일 기공하여 다음해 77년 9월 9일에 낙성하였다. 일반인의 입장은 무료이지만, 입장할 때 입구 오른쪽의 짐보관소에 짐을 맡겨 두어야 한다. 비정기 휴일 외에 국경일인 10월 1일~3일에 휴관한다.

고궁박물관(古宮博物院)

명, 청조의 황제가 살았던 자금성(紫禁城)이 그대로 고궁박물관이 되었다. 동서 750m, 남북 960m, 면적은 72만㎡이며 방 수는 약 9,000개가 넘는다. 이 거대한 궁전은 외조(外朝)와 내정(內庭)으로 구별된다. 전자는 황제의 정청이며, 후자는 황실의 내전이다. 천안문의 북쪽 끝의 신수문까지 일직선으로 전삼전과 후삼궁이 있다. 전삼전은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을 가리킨다. 이 구역에서는 국가적인 행사와 의식이 행해지는데, 이 일대를 외조라고 불렀다. 후삼궁은 건청궁, 교태전, 곤녕궁 등을 가리키는 데, 황제는 여기서 정무를 보거나 황후나 궁녀들과 일상생활을 보냈다. 이 일대는 내정이라 불렀다. 고궁의 입구인 오문은 높이가 37.95m 벽의 두께는 36m나 되는 크기이다. 그 앞 광장은 형장이기도 하여, 옛날부터 여기서는 눈앞의 대리석으로 된 내금수고를 건너면 태화문이 있고 태화문을 나서면 그 전방에 자금성의 정전인 태화전이 바라보인다.

경산공원(景山公園)

고궁의 신수문을 나서면 바로 보이는 곳이 경산공원이다. 세 개의 정자가 산의 정상에 장식하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 비교적 평평한 베이징 시내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경산의 높이는 90m이지만, 길도 좁고 급경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오를 수 있다. 산위의 만춘정(萬春亭)에서 서면 고궁 전체를 조망할 수 있다. 황금색의 기와가 널리 물결치는 고궁의 광경은 특히 아름답다.

북해공원(北海公園)

고궁의 서북쪽에 있는 이 공원은 북해라는 아름다운 호수가 중심이다. 호수의 남쪽에 이 공원의 심벌인 큰 흰 탑이 보인다. 이 탑이 있는 곳이 북해 공원의 중심 지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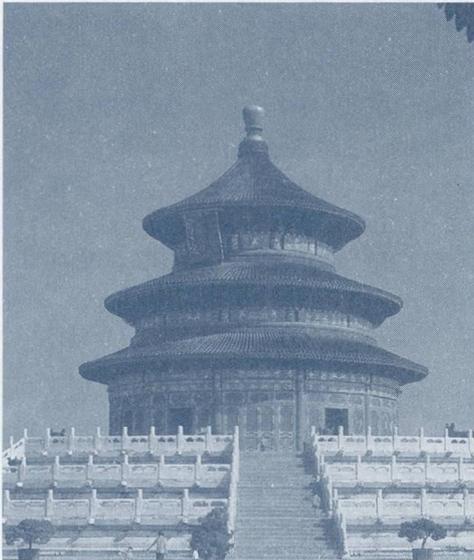
경도이다. 여름에는 보트가 있어 호수가 꽤 활기가 넘친다.

천단(天壇)

명, 청조의 황제들이 오곡풍양을 관장하는 신(神)에게 기도하던 곳이다. 명 영락제 때 세워졌고, 그 후 청의 건륭황제 때 개축되어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고궁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일단(日壇), 원단(元壇), 천단(天壇), 지단(地壇)이 대칭 위치에 있다. 각각의 신이 모셔져 있고, 천단에는 하늘의 신이 모셔져 있다. 현재는 주위 6km에 달하는 공원으로 넓이는 고궁의 약 3배에 달한다.

원명원(圓明園)

원명원은 청나라의 황제궁원이 있던 유적지이다. 1751년 청 건륭제 17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계속해서 5대 황제에 걸쳐 증축되었던 이 공원은 1860년 2차 아편전쟁 후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완전히 전소되어 목조건물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서양식으로 지은 석조건물의 폐허만 남아 있는 이곳은,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훼손된 중화의 자존심을 되새기며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역사 교육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중국인들이 느끼는 근대사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동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문할 만한 곳이다.



천단

이화원(頤和園)

베이징 중심에서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290만㎡의 베이징에서 가장 큰 공원이다. 북쪽에 인공의 만수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곤명호, 서호, 남호가 펼쳐져 있다. 청대의 건륭제 때 보수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1860년 영·불 연합군의 침입으로 약탈, 파괴되어 많은 건물이 소실되었다.

만리장성(萬里長城)

중국을 상징하는 유적이며, 흔히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꼽히는 만리장성은 ‘달에서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다. 그만큼 그 규모는 가히 상상하기

어렵다. 진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30만의 군사와 수백만의 농민을 징발하여 대량의 벽돌을 쌓아 장성 원형을 만들었다. 기마민족의 침략을 막을 목적으로 만든 만리장성은, 흔히 동쪽의 산해관(山海關)으로부터 서쪽으로 가욕관(嘉峪關)에 이르는 장장 6,000km를 말한다. 당시 그 길이가 1만여 리(당시의 1리는 약 400m)에 달해서 만리장성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 관광객에게 개방되어 있는 곳은 여러 곳 있지만, 그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베이징시 북서구쪽으로 약 70km 정도 떨어진 팔달령(八達嶺) 장성이다. 이곳은 외국인뿐 아니라 중국인들도 많이

찾아 일년 내내 봄비는 곳이다. 1991년에 케이블카가 설치되어 오르기가 훨씬 편해져, 주위 경관을 내려다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이 좋다. 케이블카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한다.

베이징시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 화	예 배 시 간
충원먼교회 (崇文門堂)	崇文門內后沟胡同丁 2號	10-6513-3549	주일 9:00(한족) 14:00(조선족)
관지에교회 (寬街堂)	東城區地安門東大街 50號	10-6403-2592	주일 9:00
하이덴교회 (海澱堂)	海澱區鑣池水湖 10號	10-6255-1392	주일 9:00
주시커우교회 (珠市口堂)	前門大街 129號	10-6301-6678	주일 9:00
강와시교회 (缸瓦市堂)	西西南大街 129號	10-6603-4027	주일 7:00, 9:00, 19:00

숙박

외국인이 숙박할 수 있는 곳은 관덴(飯店), 빈관(賓館), 지우디엔(酒店), 따샤(大廈)라고 하는 중급 이상의 호텔에 제한되어 있다.

- 베이징관덴(Beijing Hotel) 東長安街 33호 T. 10-513-7766
- 서우뚜빈관(Capital Hotel) 前門東大街 3호 T. 10-512-9988
- 왕푸관덴(The palace Hotel) 東單北大街 全漁胡同 8호 TEL 10-512-8899
- 첸먼관덴(Qianmen Hotel) 平和門外 永安路 175호 T. 10-301-6688
- 민주관덴(Minzu Hotel) 復興門內大街 51호 T. 10-601-4466
- 베이징국제관덴(Beijing International Hotel) 建國門內街 9호 T. 10-512-6688
- 중국따관덴(China world Hotel) 建國門內街 1호 T. 10-505-2266
- 쿤룬관덴 (Kun Lun Hotel) 朝陽區新源南路 2호 T. 10-500-3388

톈진(天津)

옛부터 톈진은 화베이(華北) 지방의 상업도시로 번창하였고, 한때 열강의 조계(租界: 중국의 개항도시)가 세워진 곳이기도 하다. 현재도 당시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다. 베이징과 상하이 다음가는

대도시(인구 878만)로, 베이징의 외항이며 중국 현대사의 비극을 간직한 곳이다. 과거 서양 열강의 각축장으로 지금도 구식 거리나 조계구(租界區)는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시가지인 남경로(南京路)는 서양 어느 도시보다도 화려하다. 한쪽은 최신형의 빌딩과 아파트, 한쪽은 낡은 구식 건물을 공존시킴으로써 근대화의 중국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교통편

비행기

베이징에서 약 45분 정도 소요되며 광저우, 홍콩 등에서 매일 1~2편이 다닌다. 서울에서는 대한항공이 운항되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다.

서울 → 텐진

KE653 11:00→11:55 월, 수, 목, 토

텐진 → 서울

KE654 13:15→16:00 월, 수, 목, 토

배

텐진시 중심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텐진신항에는 우리 나라의 인천, 중국의 따론펬(大連), 옌타이(烟台), 상하이에서 입항하는 배편이 있다. 선상에서 중국입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텐진신항에서 시내까지는 버스가 운행된다.

천진 페리(인천 출항 13:00, 천진 도착 익일 13:00 천진 출항 11:00, 인천 도착 익일 13:00)

※ 운항스케줄

5월- 월, 수, 금 / 6월, 7월, 9월- 홀수일자 / 8월, 10월- 짝수일자

연락처: 본사(서울) TEL. 02) 517-8671~7, FAX. 517-8678~9

텐진지사 TEL. 22) 311-2842~3, FAX. 22) 311-2844

여행계획

텐진에 들어서면 직할시 같은 분위기는 별로 나지 않는다. 우선은 고층건물과 화려한 유흥시설 등이 별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고풍스런 분위기나 황홀한 산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도시에서 과연 볼 것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이곳은 관광객이 그리 많이 붐비지는 않는다. 대개는 베이징으로 가는 경유지로 들리거나 관광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잠시 들리는 정도로 하루나 이틀 정도의 관광으로 충분한 도시이다.

가 볼만한 곳

망하이러우 교당(望海樓教堂)

아편전쟁 이후 청나라 통치 81년(1869), 당시 프랑스 조계지였을 때 창건한 예배당이다. 이 예배당은 이듬해 여러 차례 일어난 반교운동(反教運動)과 광서(光緒) 26년(1900) 의화단 사건 등으로 인해 불타 없어졌으며, 현존해 있는 것은 광서 30년(1904)에 재건한 텐진 근대사의 증인이라 할 수 있는 건물이다. 내부는 공개되지 않아 일반인이 관람하기는 힘들다.

저우언라이 기념관(周恩來紀念館)

텐진 구성(舊城) 동북쪽에 위치한 남개대학(南開大學-1904년 개교) 내 남개중학에 만들어진,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저우언라이 기념관이다(정식 명칭은 저우언라이 청년시대 재건혁명활동기념관). 그가 1913년부터 4년 간 청년시절을 보낸 학교로, 당시의 교실과 그가 사용한 책상 등이 복원 보존되어 있다. 전시실에는 일본, 유럽 유학 당시의 사진을 비롯, 귀중한 자료가 연대순으로 전시되어 있다.

치원탑(致遠塔)

베이징에서 텐진 시내 중심가로 들어 가기 전에 높이 솟은 탑이 보이는데, 역사적인 가치는 별로 없지만 텐진 시내를 조망하는 데는 아주 적당하다. 이름처럼 아주 멀리까지 뜻을 이르게 한다는 탑으로, 날씨가 맑고 대기가 깨끗한 날 탑꼭대기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텐진항만을 볼수 있고 서쪽으로는 판산(盤山)을 조망할 수 있다.

판산(盤山)

텐진시에서 서북쪽으로 12km 떨어져 있는 중국 15대 명산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산이다. 삼국시대부터 청조 말기까지 역대의 황제, 신관, 문인협객이 이곳을 좋아하기로 유명했다. 다섯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산시(山西)성의 우치산(五治山)에 비교해서 등우타(東五塔)라고도 한다.

텐진시 삼자교회

교 회	주 소	전 화	예 배 시 간
빈장다오교회 (濱江道堂)	濱江道 201號	22-711-2441	주일 9:00
취선루교회 (區線路堂)	區線路 27號	22-636-9169	주일 9:30
창먼커우교회 (倉門口堂)	東門內大街 186號	22-235-4669	주일 9:30
탕구교회(塘沽堂)	塘沽區 廣州路 7號	22-588-4144	주일 9:30

숙 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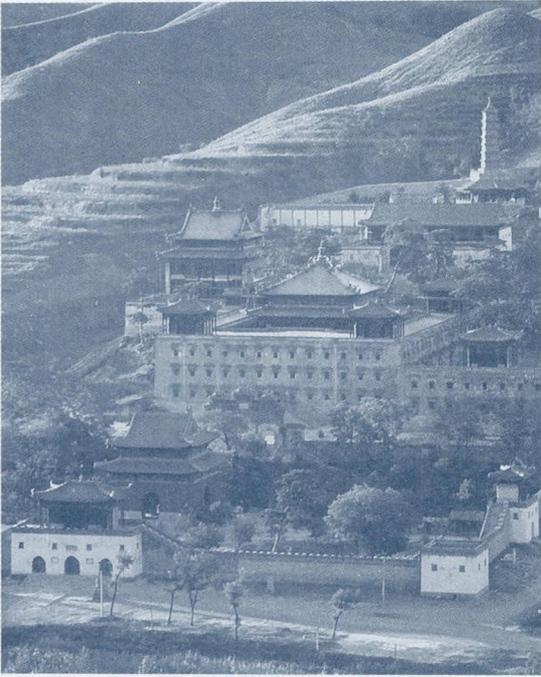
- 텐진외국어학원 유학생루 馬場道 117호 T. 022-330-3806
- 텐진열판덴 (Hyatt Hotel Tianjin) 解放路 219호 T. 022-330-1234
- 이순덕대판덴 (Astor Hotel) 坨兒莊 33호 T. 022-331-1688, 331-1112
- 텐진희재등대지우디엔 (Sheraton Tianjin Hotel) 友誼路 賓水道 交口 T. 022-835-6888
- 진리화대지우디엔 (Geneva Hotel) 友誼路 32호 T. 022-835-2222

청더(承德)

청더의 원래 이름은 러허(熱河)라고 하였다. 겨울에도 얼지 않는 따뜻한 강이라는 의미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여름에도 2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청나라 황제들의 피서산장이 있다.

교통편

베이징에서 관광특급인 피서 산장호가 있는데 약 1시간 20분 정도 걸린다. 또는 베이징에서 경승선(京承線) 터콰이(特快) 11차(07:17 출발)를 타면 약 4시간 44분이



피서산장 북쪽의 수미복수의 묘彌福壽之廟)

소요되고, 보통으로는 553차(16:29 출발)를 타면 6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다른 목적없는 순수한 관광이라면 1박으로 충분하다. 시내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역에서 이튿날 돌아가는 티켓을 사두는 것이 좋다. 티켓 판매소는 역을 향해섰을 때 왼쪽에 있는 건물 2층의 가장 왼쪽이 외국인용 창구이다. 전날 14시 30분부터 티켓을 발매한다. 1박 체류할 경우 피서산장에서 오후 만나절을 보내고 외팔묘(外八廟)에서 오전 만나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 볼만한 곳

피서산장(避暑山莊)

피서산장은 청나라 황제의 행궁(行宮:

임시로 거처하는 별궁)이 있던 곳이다. 청 강희제가 1703년부터 87년 간에 걸쳐서 건축하여 1790년 건륭제 때 완성되었다. 강희제를 비롯하여 역대 황제의 대부분이 베이징의 더위를 피해 4월에서 9월까지 거처하면서 정무를 집행하고 각국의 사신들을 이곳에서 접견하였다. 그 후 청나라 황제들은 일부러 베이징을 벗어나 이곳에서 위엄을 보이며 위구르, 몽고, 티벳, 그리고 멀리 조선과 유구의 사신들을 맞이했다. 그래서 이곳을 제2의 정치 중심지라고도 하였다.

피서산장은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궁전구, 수원구, 평원구, 와산구이다. 특히 수원구는 강남의 뛰어난 풍경을 모방해서 조성했다고 하는데, 눈앞에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로 황홀하다.

진타송송지묘(普陀宋乘之廟)

‘소(小)포탈라궁’이라고도 불리는 티벳식의 건물이 특색으로, 마치 티벳에 온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내부는 공사 중이다. 청조는 티벳불교(라마교)를 신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도 그 형식의 것이 많다.

숙박

피서산장을 돌아보는 데 편한 숙박소는 이완루빈관, 산장빈관, 덕희빈관 등이다. 5번(路) 버스를 타고 피서산장에서 하차한다.

- 이완루빈관(Yiwanlou Gutst House) 碧峰門 1號 T. 0314-22-4385, 3528
- 덕희빈관 山裝東路 63호 T. 0314-22-3810
- 산장빈관 T. 0314-22-2457, 3501
- 청더빈관 武烈路中段 T. 0314-22-1970

유재승/ (주)천지항공여행사 부사장, 배재대학 객원교수

중국의 뜨거운 감자, 천안문 사태 재평가

천안문 시위 강경진압 책임, 죽은 덩에게 돌리려는 장쩌민

지난 2월 19일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이 사망하였다. 덩의 사망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국 지도부 및 인민들이 그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인데, 이것은 덩의 가장 큰 실책으로 평가되는 6·4 천안문 사태로 귀결될 것이 예측된다. 본지는 덩 사후 6·4 천안문 사태 8주년을 맞이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통해 현재 장쩌민 체제에서 보여지는 천안문 사태 재검토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장쩌민

(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월 27일 최고지도자로 서의 첫 연설에서 덩샤오

핑(鄧小平)의 ‘영원한 업적’을 높이 찬양하였다. 그러나 장의 찬사에는 덩 통치의 최대 약점인 천안문 사태를 재검토할 것이라는 암시가 담겨있었다. 장은 덩이 지난 89년의 천안문 사태를 ‘반혁명적 반란’으로 매도한 것과 달리 ‘국내외 정치적 격변으로 발생한 역사적 위기’였다고 표현했다. 천안문 사태 당시 상하이(上海) 시위원회 서기로 재직 중이던 장은 군(軍)에 발포령을 내리지 않고도 민주화 요구 시위대를 조용히 해산시킬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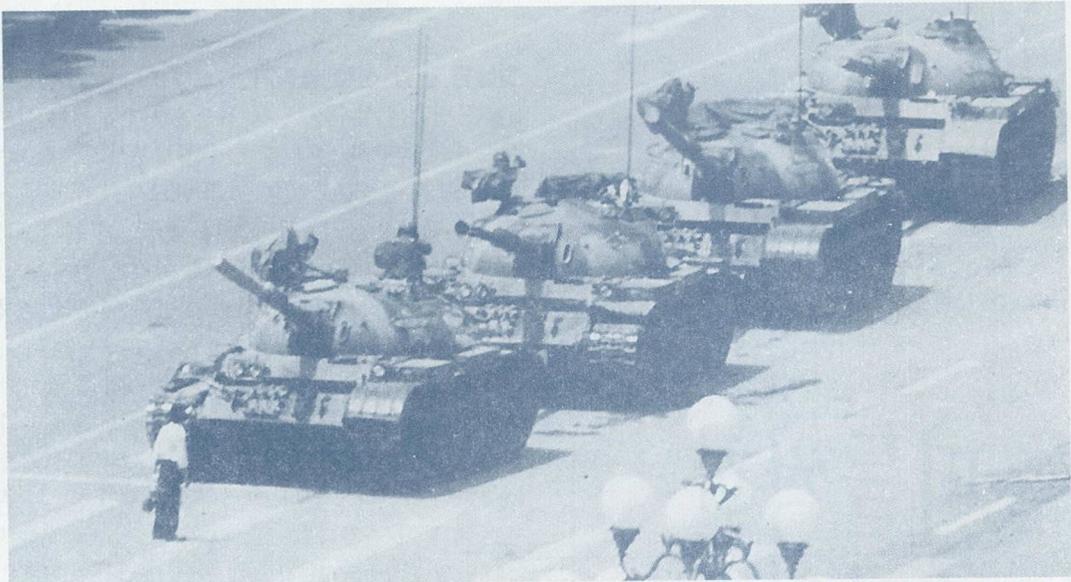
그런 그가 덩의 견해를 겨냥, 언급한 것을 보면 장이 전임자의 가장 어두웠던 과거와 조용히 거리를 두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덩에 대한 추도사는 ‘새로운 역사읽기’를 예

고한다. 그를 통해 당은 이른바 ‘실수’를 인정 한 뒤 그 책임을 죽은 덩의 탓으로 돌리려는 듯 보인다.

천안문 사태와 덩샤오핑

덩의 경제개혁은 중국 내외를 막론하고 대부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 당시 덩의 역할에 대한 인민의 인식은 매우 좋지 않다. 수백만의 중국 인민들은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에 대한 재평가를 지지할 것이다. 아마도 향후 권력투쟁은 주로 천안문 사태 유혈진압을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냐는 것을 밝히는 문제, 즉 천안문 사태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중국은 천안문 시위가 일부 ‘불순세력’의 주도도 이루어진 조직적 반란이라는 덩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



덩은 천안문 시위를 일부 '불순세력'에 의한 조직적 반란으로 규정했다. 6·4 당시 인민해방군의 탱크에 맞서는 한 청년.

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덩이 사라지고 없는 지금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덩이 사망하기 전 이미 장쩌민의 '덩 격하 움직임'을 일부 엿볼 수 있다.

중국 관영 CCTV는 지난 1월 12시간짜리 덩의 일대기 <鄧小平>을 방영했는데, 이 때 천안문 사태 유혈진압을 옹호하는 덩의 모습이 비치기도 했다. 또한 학생 지도부가 중국 '파괴'를 꾀하고 있다는 덩의 발언을 인용한 89년 4월 26일자 인민일보(人民日報) 사설을 소개함으로써 천안문 사태에 대한 덩의 '무력해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덩이 죽은 후 이 장면이 여러 차례 방영됨으로써 유혈 진압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은근히 부각되기도 했다.

리펑(李鵬) 총리는 현재 가장 가까운 시선을 받고 있는 지도자이다. 그가 해외에 나가 기만 하면 시위대가 등장, '베이징의 도살자'로 매도하곤 한다. 중국의 지식인들도 그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천안문 사태 재평가에 가장 큰 걸림돌인 그는, 89년 베이징에 대한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고 나섰으며, 그 뒤로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혈진압을 옹호해왔다.

천안문 사태와 덩샤오핑

현재 당내 서열 3위인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장 차오스(喬石)는 법치(法治)를 강조하면서 당 권력의 제한을 주장해왔다. 89년 천안문 사태 유혈진압에 대한 지지를 거부했던 차오는 당시 당 총서기를 맡으라는 덩샤오핑의 제의까지 거절했다. 그랬기 때문에 장쩌민이 총서기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이다.

전인대는 차오스의 지도 아래 벌써 천안문 사태 유혈 진압을 가능케 한 제도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당 중앙위원회의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덩이 중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격인 마오(毛)를 비난, 권력을 공고히 했다. 따라서 장(江)이 아버지격인 덩을 비난한다 해도 놀랄 것은 없다.

참고자료

NEWSWEEK 1997. 3. 12

새로운 황제들. 해리슨 솔즈베리 저. 다섯수레 간 중국 당대 40년사. 신승하 저. 고려원 간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떠들썩한 중국의 결혼풍습



첫날밤 신랑 신부 놀리기

6월은 결혼의 성수기로, 새 인생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이 유난히 많다. 중국에서는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한 인생길로 가기 전에 반드시 특유의 번거로운 혼례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중국인의 결혼잔치는 매우 호화스럽기로 유명한데, 이것은 친지와 친구, 동료들이 가세하여 첫날밤 신랑과 신부를 놀려주는 데서 최고조에 이른다.

중국인은 왜 첫날밤 '신랑신부 놀리기'를 좋아할까? 천여 년 동안 이러한 풍습은 시대가 변함에 따라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첨가되면서 해를 거듭하여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신혼부부들은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한다.

대만의 리안(李安) 감독이 만든 영화 「결혼피로연」의 하이라이트는 중국 전통 결혼식 장면이다. 여기서 보여지는 '재미있는 일'은 결혼식이 끝난 뒤 손님과 주인이 술을 석 잔씩 돌리고 나서 '신랑 신부 술 먹이기(나오지우:鬧酒)'로부터 시작된다. 우선 신랑의 친구가 나와서 닭머리, 닭꼬치, 닭날개를 가느다란 실에 묶어 신랑 신부의 얼굴 앞에 대고 흔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한 입 물어 뜯는 포즈를 취하는데, 바로 이와 동시에 친구가 닭머리를 갑자기 위로 높이 들어 버려 신랑 신부는 얼떨결에 키스를 한 꼴이 되어 버린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크게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막판까지 골탕먹이기

'신랑 신부 술먹이기'가 다 끝나면 신랑 신부는 예식장 출구에서 손님을 배웅한다. 술에 만취한 손님들은 한쪽에 쓰러져 있고, 신랑 신부도 만취된 상태이므로 빨리 신방에 들어가 첫날밤을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신랑 신부 술먹이기'의 새로운 순서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10~20여 명의 친구들이 신방에 미리 쳐들어와 자리잡고 앉아있다.

“술을 마시다 죽는 한이 있어도 너희들의 첫날밤을 놓칠 수는 없지. 첫날밤 신랑 신부를 놀리는 것은 우리 중국 민족의 '국보(國寶)' 아니냐!”

들어닥친 친구들은 무리지어 밤새도록 마작(麻將)을 하려는 기세로 탁자 위에 마작패를 뒤섞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황당한 순서가 하

나 더 남아 있다. 신랑 신부더러 이불 속으로 들어가 옷을 하나씩 벗어 이불 밖으로 던지게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옷을 몽땅 다 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친구들은 방을 나간다. 이 정도까지 오면 '신랑 신부 놀리기'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이다.

영화 「결혼피로연」을 찍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한 리안 감독은 “중국인은 참으로 대단하다!”며 감탄했다고 한다.

당한 만큼 당한다

신랑 신부 놀리기가 더욱 재미있게 진행되기 위한 선결조건이 있다. 장난을 잘 치는 주동자가 꼭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은 손뼉을 치거나 크게 소리치면서 잔치 분위기를 돋구어야 한다는 것이다.

친한 친구일수록 놀리는 수법은 더 노골적이다. 신랑 신부가 손님을 배웅하려고 출구에서 인사를 할 때, 초청된 손님 중 총각, 홀아비를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이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예쁜 신부에게 입을 맞추려고 난리를 친다. 어떤 사람은 얼굴에, 또 어떤 사람은 입술에, 심하면 등에까지 입을 맞춘다. 이처럼 남에게 온갖 골탕을 먹인 사람이 장가갈 때면 여지없이 친구들에게 툭툭히 복수를 당하고 만다. 예를 들면 신부의 하이힐에 술을 부어서 신랑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피로연, 놀림을 당해도 좋다

중국인들은 떠들썩한 분위기를 좋아한다. 이러한 특성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유난히 드러난다. 맛있는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 놓고, 서로 술을 권하고 마시면서 가위 바위 보 게임을 하는 등 떠들썩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다. 하물며 일생에 단 한 번 뿐인 결혼피로연은 인류지대사이므로 더욱더 시끌벅적해야 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신랑과 신부를 놀리는 수법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정말로 이러한 놀리기는 「결혼피로연」에 나오는 대사대로 '중국 민족의 국보'인가? 그 해답은 딱히 밝힐 길이 없다. 대만에 사는 원주민들도 결혼식 날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 이것은 첫날밤 신랑과 신부에게 복을 빌어준다는 의미이다. 일본과 한국에도 이와 유사한 풍속이 있다.

이러한 중국 결혼 풍속의 기원을 살펴보면 고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랑 신부 놀리기'는 '신부 놀리기(鬧新娘)' 혹은 '신부 차 마시기(喝新娘茶)'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피로연이 끝난 후 신부를 놀리는 특별한 순서가 있다. 이는 신부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이 기회를 틈타 신부의 얼굴을 보기 위한 것이다. 중국 고전에서 따온대로 '부인을 희롱하다(戲婦)', '부인을 괴롭히다(謔親)', '신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다(聽房)'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왜 이런 풍속이 생겼는지에 대한 학설은 매우 분분하다. 민간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원시시대에 여우가 신혼부부 놀리기를 즐겼다고 한다. 여우의 음기(陰氣)를 쫓아내기 위해 친척들이 첫날밤에 신방에 모여 사람의 기(氣)로 양기(陽氣)를 증가시키곤 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민간에는 '사람이 신랑과 신부를 놀리지 않으면 귀신이 와서 놀린다'는 얘기가 생겨났다.



또 다른 유래를 보면, 송(宋)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소동파(蘇東坡)의 누이 소소매(蘇小妹)가 진소유(秦少游)에게 시집을 갔는데, 친한 친구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준답시고 신방에서 신부를 놀린 것에서 이 풍속이 이어져왔다고 한다.

이 날만큼은 마음껏 풍다

신랑 신부 놀리기에 대한 중국 정사(正史) 최초의 기록은 「한서(漢書)」인데, “신혼 첫날밤에 창 밖으로 신랑 신부의 말을 엿듣고 몰래 훑쳐보면서 즐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방 엿듣기’ 풍속을 성(性)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중국인의 억압되어 있던 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신랑 신부 놀리기’에 동원되는 온갖 수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일종의 ‘성적 학대’임이 분명하다. 신랑 신부 놀리기에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에 대해 대만 중앙대학의 허춘요(何春燧)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신랑과 신부를 놀리고 골탕먹이는 것은 성의 변조된 형태로서 일종의 성적 금기에 대한 도전이다.”

리안 감독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그는 극중에서 손님으로 출연하여 옆에 앉아 이런 이상한 풍속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인 하객에게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 준다.

“당신이 방금 목격한 것은 5천 년 동안 중국인이 겪었던 성적 억압의 결과이다.”

리안 자신의 이러한 해석이 반 정도는 진답이 섞인 우스개 소리라고는 하지만, 성적 억압을 유일하게 마음껏 풀 수 있는 곳이 결혼피로연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의미는 바뀌어도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전통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초기 농업시대에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의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시켜 주려고 친척들이 신랑 신부 놀리는 풍속을 만들어낸 것이다. 인류학자인 위엔창예(阮昌銳)는 ‘신랑 신부 놀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당하게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오늘날의 남녀관계는 매우 개방되어, 결혼 전에

이미 사귀는 것은 물론 성관계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랑 신부 놀리기의 원시적 의미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산업화 사회의 인간관계는 과거 혈연, 지연 위주의 관계보다 더욱 멀어졌다. 직장이나 일 때문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던 친한 친구들이 결혼 청첩장을 받고는 다시 한자리에 모여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러한 뜻깊은 모임에서 약간의 놀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친구 간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준다는 명목으로 신랑 신부 골탕먹이기 풍속은 오늘날까지 그 존재 이유를 부여받고 있다.

놀리는 것도 적당해야 좋다

신랑 신부 놀리기는 반드시 신랑 신부가 쑥스러워하고 난처한 기색을 내보여야만 한층 재미있다. 이 풍습의 미묘한 맛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만약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앞에서 대범하게 포옹과 키스를 하고 놀림당하는 것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면 재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을 놀리려는 친구들이 난처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신랑과 신부를 놀리는 방법은 천태만상이다. 놀림 당했던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혼피로연이 떠들썩하지 않고 조용했다고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결혼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결혼식을 치루고 피로연에서 많은 하객들을 대접하다보면, 신랑과 신부는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잠자고 싶은 마음 밖에는 아무 생각도 없을 정도로 피곤한 것이 사실이다.

여느 결혼식이나 마찬가지로이지만, ‘기쁨 희(喜)’자로 장식한 결혼피로연에서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장정들이 지금 막 예식을 마친 신랑과 신부를 놀려 주려고 한껏 품을 다 잡고 있다. 잔치 분위기를 돈구어 주려는 마음은 좋지만 놀리는 것도 적당해야 좋다. 자칫 잘못하다간 새로운 인생의 첫발을 내딛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분위기를 완전히 깰 수도 있다. 아무튼 적당하게 놀려주는 것은 각자의 재량에 맡길 수밖에 없다.

출처 및 원제

《中國人的註冊商標-光華雜誌社 刊》「鬧洞房」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고난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나훔 1:12)”

고난에는 한계가 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당신의 괴로움을 없애주실 수도 있다. 여러분은 아마도 탄식하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괴롭게 하시겠나이까?”

아!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들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막대기로 목적을 이루시고 난 뒤, 자연스럽게 그 막대기를 다시 치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도록 하는 목적이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들은 고난 중에서도 그의 은혜를 구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사람들 앞에 분명한 성장의 증거가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고난은 그치게 될 것이다.

농부는 계속해서 타작만 하지는 않는 법이다. 하나님도 쉼장 때를 드시는 것은 아니다. 시험은 잠시 잠깐이다. 눈앞에서 폭우를 만날지라도 그 비는 곧 그칠 것이다. 그의 노기는 잠시 지나갈 뿐이며, 오히려 그의 은혜가 우리 평생에 두루 펼쳐질 것이다. 우리에게 닥친 잠시 동안의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잠깐의 고초에도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고난이란 우리들이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고난당함은 우리들이 주 앞에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겪는 동안, 그것은 기력과 심령을 낭비하는 헛된 시간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절대로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믿음의 보석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 속에 혼합된 모래를 제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순수한 믿음을 갖길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시련의 화로 속에 놓아두시는 것이다.

이 글은 홍콩 CMI(中國福音會)에서 출판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들의 목상집 『農光』 중에서 발췌하여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 이민선·본지 편집기자



중국영화 감상

스크린이 비추는 중국의 여성상

김소희

이야기의 전제

필자가 느끼기에 상당수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으로 무언가 얻어내거나 끌어낼 것이 많으리라는 기대가 가득 차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발전'한 나라라는 자부심이 지나쳐, 때로는 노골적인 우월의식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물질적인 차원이다.

반면 일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측면을 지적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유학한 어느 영화 감독은 “한국과 러시아 영화의 장단점을 비교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쪽은 우선 기본이 되어 있는 나라다. 수준 차이가 워낙 커서 비교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디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

필자가 편집부로부터 “영화를 통해 중국 여성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써달라”고 요청받았을 때, 편집부의 기획의도는 아마도 미지의 대상에 대해 진지하고 겸손하게 접근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리들의 인식 차이를 좁혀보자는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부용진>, <괘왕별희>, <귀주 이야기> 등의 영화를 선택했다.

문화혁명기 극좌적 중산층 정책 과 여성의 삶

위에 고른 세 작품 가운데 제작 년도가 가장 앞서는 것은 <부용진(芙蓉鎮)>(1987, 감독 세진)이다. 가상의 시골마을 부용진에 사는 젊은 남녀의 삶과 사랑을 다루면서, 그 시절 중국 사회 전체의 초상화를 쉽고도 설득력있게 그려냈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문화대혁명 전후이다.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은 인민들의 사상을 뜯어고침으로써 당시 중국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돌파해보겠다는 정책으로, 1966~1976년 사이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문화, 사상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중국인들이 '동란의 10년'이라고 회고할 만큼 미증유의 대변동을 몰고 왔다.

영화 속 마을 부용진에도 문혁의 태풍이 몰아친다. 쌀두부를 맛있게 만드는 여주인공 유잉은 남편과 함께 열심히 일해 돈도 모으고 집도 늘여간다. 그녀의 삶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중산층적인 것이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그녀의 태도가 '자본주의적'이며 '당과 사회주의를 배반한 것'이라고 몰아세워 모든 것을 빼앗고 새벽마다 거리를 청소하라는 벌을 명령한다. 문혁이 끝나고 중국의 경제정책이 새로운 방향을 잡게 되면서 그녀에게도 고난의 10년이 막을 내린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미 시각적으로 여주인공의 이와 같은 운명을 암시한다. 카메라는 노래를 부르며 땀줄을 하는 주인공을 높은 데서 잡아 보여주는데, 그

녀는 네 개의 지붕선이 만들어낸 좁은 공간 안에 갇혀 화면의 오른쪽 아래에 내몰린 듯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유잉은 역사의 광풍에 휘말린 희생자이면서도 자신의 운명에 비교적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또 하나 눈여겨 볼직한 것은 이국향이라는 등장인물이다. 이국향은 당의 지시에 맹종하면서 잘난 척하는 매력없는 여성으로 그려지지만, 어쨌거나 그녀는 부용진 마을의 최고위직 간부이다. 우리나라 영화라면 고위급 공무원은 백발백중 남성이 등장한다. 현실 속에서 여성이 한 지역사회의 최고책임자인 경우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나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매우 진보적인 요소를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영화는 상하이전영공사(上海電影公社)라는 국가기구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상하이에는 문혁 4인방의 중심거점이어서 아이러니컬하다.

성적(性的) 정체성은 문화의 산물

<패왕별희(霸王別姬)>(1993, 감독 첸카이거)는 1924년 군벌 시대로부터 1977년 문혁이 막을 내릴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삼는다. <패왕별희>란 중국 고유의 공연예술 장르인 경극(京劇)의 한 레파토리. 영화는 이 경극단의 두 주연배우인 샬로와 데이, 그리고 샬로의 아내 쥬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중국의 근현대 역사와 문화, 예술가의 초상, 동성애적 정향(定向)이 뒤얽힌



삼각관계, 개인의 정체성 등을 매우 풍부하게 짜넣었다. 이 영화 역시 인간의 마지막 존엄까지도 잃게 만들고 문화를 황폐화시켰던 문혁을 통렬히 고발하는데, 문혁의 어린 폭독각시라고나 할 흥위병 출신인 감독 자신의 회한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 중국은 자신의 역사적 과오나 상처를 망각하지 않는 듯하다.

이 글에서 주목하려는 테마는 극중 데이(장국영)라는 인물의 정체성이다. 어린 시절 경극단에 맡겨진 그는 섬약한 외모와 풍부한 예술적 감성 때문에 일찍이 여주인공 역할인 우희로 점찍혀 양성된다. 문제는 그가 남자라는 데서 시작한다. 사춘기 시절 그는 “나는 비구니, 계집아이로 태어나 일찌기 스승에게 머리를 깎여...” 운운하는 대사를 끝끝내 “사내아이로 태어나...”로 바꿔 부른다. 모진 벌을 받으면서도 고집을 꺾지 않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선배이자 훗날 평생의 사랑이 되는 샬로의 설득을 받고 굴복한다. 그런데 이때부터 데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히 여성적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몸에 익힌다.

이 사실은 남성, 여성 혹은 남자다움, 여자다움에 대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심각한 의의를 제기한다. 대개는 성적 정체성이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결정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영화 속 데이의 운명은 여성성 내지 남성성이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암시한다. 즉 ‘남자다

운’ 혹은 ‘여자다운’ 성격은 신체적으로 무엇을 하나 달고 나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안에 함께 깃들어있는 ‘인간다운’ 성품 가운데 일부를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 집중적으로 개발 또는 억제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별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 사회가 강압적이고 차별적이라는 사실도 흔히 지적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그런 예에 속한다. 현대 지식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론 가운데 하나인 페미니즘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중국 인민의 전형, 귀주

<귀주 이야기>(1993)는 <붉은 수수밭>, <국두>, <홍등>을 통해 봉건사회의 인습으로 고통받는 여인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던 장예모 감독의 작품이다. 극중에 유덕화, 주윤발 같은 홍콩 스타들의 사진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시대적 배경은 위의 두 영화에 비해 가장 현대적이

다.

시골여인 귀주(공리)는 마을의 이장이 남편의 중요부위를 발로 차는 바람에 부상당했다며 이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사과를 받아내는 일이 여의치 않자 마을과 현, 시의 공안당국, 법원까지 차례로 찾아다닌다. 영화는 내내 촌부 귀주가 시누이와 함께(그러니까 두 명의 여자가) 겨울내내 고추를 팔아가며 단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겠다고 돌아다닌다는 간단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 한 번도 흥분하거나 큰소리치는 법 없이 느릿한 걸음걸이로 “중요한 데를 차면 안되죠”라고 울조리는, 경우 바르고 인정많은 귀주를 보면 사랑스러운 웃음이 절로 나온다. 도무지 동양미인 공리의 자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촌부에게 그 해 베니스영화제 여우주연상이 주어졌다.

그러나 영화가 귀주의 얼굴 클로즈업으로 막이 내리는 순간, 갑자기 ‘앗, 저것이 중국사람이다’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만일 어떤 사람 혹은 어떤 나라가 중국 인민에게 결례를 하거나 해코지를 하면 그들은, “그러면 안되죠”라며 느릿느릿한 걸음걸이로 끝까지 따라와 사과를 받아내고야 말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그런 중국인민의 전형을 귀주라는 ‘여성’을 통해 흥미롭게 창출한 영화가 바로 <귀주 이야기>다.

김소희/전 「씨네21」 기자



세계선교 동향

세계에서 가장 결실이 많은 선교 영역

어린이 전도

편집부



국제 어린이전도협회(Child Evangelism Fellowship)

교회의 관심이 성인에게만 치중되었던 1920년경, 주님께 서는 고 오버홀처 목사의 눈을 열어 미국 및 세계의 어린이들의 영적 기아상태를 보게 하셨다. 그 후 10여 년 동안 오버홀처 목사는 어린이전도와 지도자 양성에 힘쓰며 교계에 호소하였다. 그 결과, 1937년 5월에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국제 어린이전도협회가 결성되었다.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1957년 린시포드 여사가, 1959년에는 구요한(John Cook) 목사 내외가 선교사역을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한국의 어린이전도 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1972년 L.T.I.(어린이 지도자 학원)를 계기로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지금은 세계 약 120여 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한국에는 전국 27개 지회에서 그 지역 어린이 복음화를 위해 사역하고 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동남아, 미국, 아프리카, 러시아 등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의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는 “세계의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사역하고 있으며, 세계 각처에서는 어린이 전문 사역자를 한국 어린이전도협회에 요청해오고 있다.

어린이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전 세계에 매일 60만 명의 어린이가 출생하고 있으며, 서울에만도 약 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 생명을 얻게 되기를 원하신다.

어린이는 내일의 가정과 사회, 국가와 세계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다. 썩은 나무를 기둥으로 쓸 수 없듯이 그리스도 없는 어린이를 내일의 기둥으로 쓸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어린이들이 교회학교에 나올 수 있는 나이라면, 그들이 비록 어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

새소식반(이웃 어린이 전도)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뿐 아니라 이웃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어린이 전도 프로그램이다.

3일 클럽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각 길거리, 골목, 공원,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3일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방법이다.

캠프

방학을 이용하여 캠프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 삶을 보여주고 가르친다.

학교 전도

초등학교와 가까운 교회와 연결하여 방과 후 어린이들을 교회로 모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 방법이다.

기타

통신 학교, 야외 전도, 여행 전도, 절기 파티전도 등이 있다.

지도자 양성

주간 정기 강습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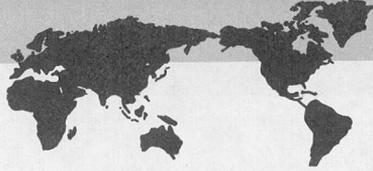
새소식반 전도를 위해 매주 실제적인 전도훈련으로 전도자를 양성한다.

전도자 훈련

3일 클럽 전도자를 위하여 여름과 겨울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훈련하여 헌신적인 지도자를 훈련한다.

교사대학(TCE)

이웃 전도의 기술과 전략 및 교회 교사들을 위한 핵심 훈련으로 기간 및 장소의 다양한 운영이



가능한 과정이다.

지도자훈련

IOTC(Instruction of Teacher) 강사 훈련

교사 대학(TCE)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2단계로 된 지도자 훈련 과정으로, 총 60여 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교사대학을 운영하거나 지도할 강사들을 집중 훈련 하는 2주 과정의 지도자 양성 코스.

지도자 학원(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어린이 전도와 교육에 관한 다양한 과목들을 1, 2, 3 단계로 구성하여 3개월에 걸쳐 깊이있는 이론과 실습을 통한 실제적인 훈련으로 어린이 전도 전문 지도자를 양성한다.

선교사 훈련원

어린이 전문 선교사역을 준비시키는 2주 과정의 선교 훈련학교이다.

절기 강습회

새학기 여름성경학교,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을 통해 각 교회를 지원함.

개교회 지원 및 자료 공급

어린이 부흥회, 교사교육, 교회와 연관한 전도지원, 어린이 설교자료, 20여 종의 선교사 이야기 및 교사의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교재 발간 등이다.



“차이나 100” 오늘의 어린이 운동

홍콩 어린이전도협회는, 어린이 전도와 교육 전문지인 『오늘의 어린이(중문판)』를 중국 내의 100군데 교회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1부를 1년 구독하는 데 한화로 3만 원 정도 필요한데, 100교회를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기도해왔다.

이 운동에 참여할 100명의 동역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에 동참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로번호 3005332 “차이나100 오늘의 어린이 운동”
자세한 문의를 한국어린이전도협회 해외사역부로.

자료제공: 121-013 서울시 마포구 아현3동 622-6 사단법인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해외사역부
TEL. 02) 393-7717, FAX 02) 393-2077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

조선족선교는 한국 교회가 중국선교와 북한선교를 수행하는 데 양날개와 같은 중요한 사역이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선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 한국인들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조선족 동포들의 분노, 중국 정부의 엄격한 종교법 시행 등이 조선족선교를 위축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족선교에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선교는 포기할 수 없는 꼭 필요한 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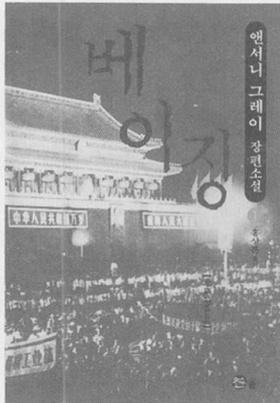
8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는 조선족선교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도 대다수의 선교 사역이 동북삼성의 조선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까지도 조선족선교에 대한 안내서가 전무하다는 사실이다. 이 책은 주로 조선족 교회를 연구하여, 조선족 교회의 육성 방안과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 한국 교회가 조선족선교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안내서라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조선족선교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조선족 교회의 육성에서 찾고, 그 육성 방안을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조선족 교회의 정체성/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과 종교정책하의 조선족 교회/
조선족 교회의 선교 진단/ 조선족 교회의 육성 방안/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조선족 교회 육성/ 조선족 교회 육성을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 과제

그동안 한국 교회는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한 조선족선교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선교의 방향이 한족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한족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기에 앞서, 먼저 그간의 조선족선교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조선족 교회에 대한 미결 과제들을 속히 해결함으로써 그들과 좋은 파트너십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목표에 보다 빨리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교회와 중국선교』 · 인병국 저 · 에스라서원 · 가격 6,800원
시중 기독교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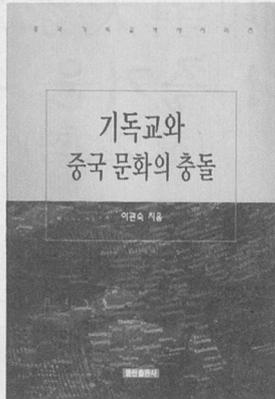
베이징

앤서니 그레이 지음 · 홍상훈 옮김
전 3권 · 권당 7,000원
술

이 소설은 20세기 초에서 중기에 이르는 격동의 중국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중국 혁명’에 관한 소설이다. 주인공은 ‘장정’을 겪은 몇 안 되는 외국인의 한 사람이자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알프레드 보샤르트를 모델로 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제이콥 켈러너는 장정에서 문화대혁명에 이르는 중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영국인 선교사로 등장하여, 혁명의 이데올로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가치에 대한 실존적 물음’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작가는 1921년부터 1978년까지의 중국 현대사를 ‘장정(長征)’이라는 하나의 일관된 개념으로 해석,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을 실질적인 장정의 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의 영웅적인 삶보다는 주인공인 선교사를 내세워, 중국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종교인가 공산주의인가를 고민하게 한다. 또한 역사와 조국에 대한 투철한 책임의식을 가진 중국 지식인 남매와, 한 때 선교회의 요리사였던 농부 출신 사내의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을 통해 혼돈과 모색의 시기를 맞은 중국에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묻고 있다.



기독교와 중국 문화의 출몰

이관속 지음
219쪽 · 4,000원
클람출판사

“중국의 전통 사상 중에 천(天)과 상제(上帝)는 누구든지 손상시키지 못하는 지존자의 명칭이라 공자와 조상의 은공에 존경을 올리는 것은 중국의 훌륭한 도덕이요, 미풍 양속이기에 이것을 부인하면 성현의 은공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자요, 조상을 존경하지 않는 자요, 불효 막심한 자식이요, 동물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된다.”

복음이 서양 문화의 모습으로 중국에 들어오자 중국에서 선교사들의 활동은 전면 금지되었다. 중국복음화와 당시 문화의 배경과 그 민족의 사상 및 생활환경이나 생생한 언어에 적응하여 어떤 문화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요청되기에, 본토 문화와 충돌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이 글을 썼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이 책은, 제1편 제공사조의 원류, 제2편 기독교의 전래, 제3편 천주교의 부흥, 제4편 천주교내의 분쟁, 제5편 중국선교의 종결과 그 여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천여 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며 살아왔던 중국 민족에게, 최근 여러 가지 경로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선교사들과 현지인들 간의 문화 충돌의 여러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더욱 많은 대중국 선교 사역자들이 좀더 중국을 문화적으로 접근해나가기 바란다.



등소평 이야기

리차드 에반스 지음 · 문수식 옮김
330쪽 · 6,000원
아이북스

저자 리차드 에반스는 지난 1984년부터 88년까지 주중 영국대사로 근무하면서 홍콩반환 교섭에 실무를 담당했다. 그는 머리말에서 이 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나는 이야기 속의 작은 이야기 형태로 등소평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했다. 즉 20세기 중국 역사라는 커다란 이야기 속에서 등소평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펼친 것이다.”

등소평은 1904년 사천성에서 자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16세라는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핑크빛 희망은 잠시, 그에게 닥친 가난이라는 현실은 소년 등소평으로 하여금 혁명가의 길을 선택하게 한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 모택동을 모욕하고 부르조아 독재정권과 백색테러를 획책했다는 등의 이유로 당과 정부의 모든 지위를 박탈당한다.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1904년부터 1985년까지 등소평의 생애를 간결하면서도 힘있는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등소평, 그는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중국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작은 거인’의 생애를 반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仰望天家歌

보아나 즐거운 우리 집

(찬 222장)

D. W. C. Huntington (1830-1912)
조금 빠르게 ♩ = 104

THE HOME OVER THERE: 9.9.9.9.
T. C. O. Kane

仰 - 望 我 家 鄉 在 那 邊 光 明 河 生 命 樹 永 不 遷
 Yǎng wàng wǒ jiā xiāng zài nà biān, guāngmíng hé shēngmìng shù yǒng bù qiān,
 양 - 왕 위 지아 샹 짜이나 비엔, 광 명 허 성 명 슈 용 부 치엔,

在 那 邊 衆 聖 徒 大 歡 喜 - 永 - 遠 全 穿 上 潔 白 衣
 zài nà biān zhòngshèng tú dà huānxǐ, yǒngyuǎn quán chuān shàng jié bái yī.
 짜이나 비엔 중 성 투 따 환 시, 용 위엔 퀴엔 주안 상 지에 바이 이.

在 那 邊, 在 那 邊, 仰 - 望 我 家 鄉 在 那 邊,
 zài nà biān, zài nà biān, yǎng wàng wǒ jiā xiāng zài nà biān,
 짜이나 비엔, 짜이나 비엔, 양 왕 위 지아 샹 짜이나 비엔.

在 那 邊, 在 那 邊, 在 那 邊, 仰 - 望 我 家 鄉 在 那 邊,
 zài nà biān, zài nà biān, zài nà biān, yǎng wàng wǒ jiā xiāng zài nà biān,
 짜이나 비엔, 짜이나 비엔, 짜이나 비엔, 양 왕 위 지아 샹 짜이나 비엔.

우리말 가사

보아라 즐거운 우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感謝神

날 구원하신 주 감사



感謝神 賜我救贖 主感謝神 豐富豫備
 Gǎn xiè shén cì wǒ jiù shù zhǔ, gǎn xiè shén fēng fú yù bèi
 간 시에 셴 츠 위 지우 슈 주 간 시에 셴 평 푸 위 배이



感謝神 過去的同在 感謝神 主在我旁
 gǎn xiè shén guò qù de tóng zài gǎn xiè shén zhǔ zài wǒ páng
 간 시에 셴 귀 퀴 디 통 짜이 간 시에 셴 주 짜이 위 팡



感謝神 賜溫暖 春天 感謝神 淒涼秋景
 gǎn xiè shén cì wēn nuǎn chūn tiān, gǎn xiè shén qī liáng qiū jǐng
 간 시에 셴 츠 윈 누안 춘 티엔 간 시에 셴 치 량 치우 징



感謝神 抹乾我眼淚 感謝神 賜我安寧
 gǎn xiè shén mò gān wǒ yǎn lèi gǎn xiè shén cì wǒ ān níng
 간 시에 셴 모 간 위 엔 레이 간 시에 셴 츠 위 안 닝

우리말 가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따스한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흐르는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가속화되는 신장 위구르 자치 구의 분리운동

중국

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민족분쟁 지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2월 초 현지 한족(漢族)과 위구르족 간의 대규모 유혈충돌이 발생한 데 이어,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 장례식 마지막 날인 2월 25일 우루무치(烏魯木齊)에서 버스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중국 당국이 경계태세를 다시 강화하고 나섰다.

우루무치에서 이날 오후 공항으로 향하던 버스에서 폭탄이 폭발, 최소 1명이 숨지고 난 뒤, 중국 당국은 시내 중심가로 통하는 모든 도로를 5시간 이상 차단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월 5일 카자흐스탄 국경 약 50km 떨어진 이닝(伊寧) 시에서 발생한 경찰과 위구르족 시위대의 3일 간에 걸친 충돌은 지난 50년 간 중국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소요 사태 중 최악의 것이었다. 경찰 4명을 포함해 적어도 15명이 사망했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 해외의 위구르 망명자들은 사상자 수가 훨씬 많다고 주장한다.

이 사태의 발단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 달 동안 금식하는 이슬람의 성절(聖節)인 라마단이 끝날 무렵, 경찰이 예배 중인 회교 사원에 난입해 소요사태가 촉발되었다는 것이 대다수 위구르인들의 말이다. 반면 중국인들은, 신원 미상의 '적대적인 외국 분자들'의 선동을 받은 위구르 청년들이 독립을 요구하는 가두 시위를 벌여 난투와 약탈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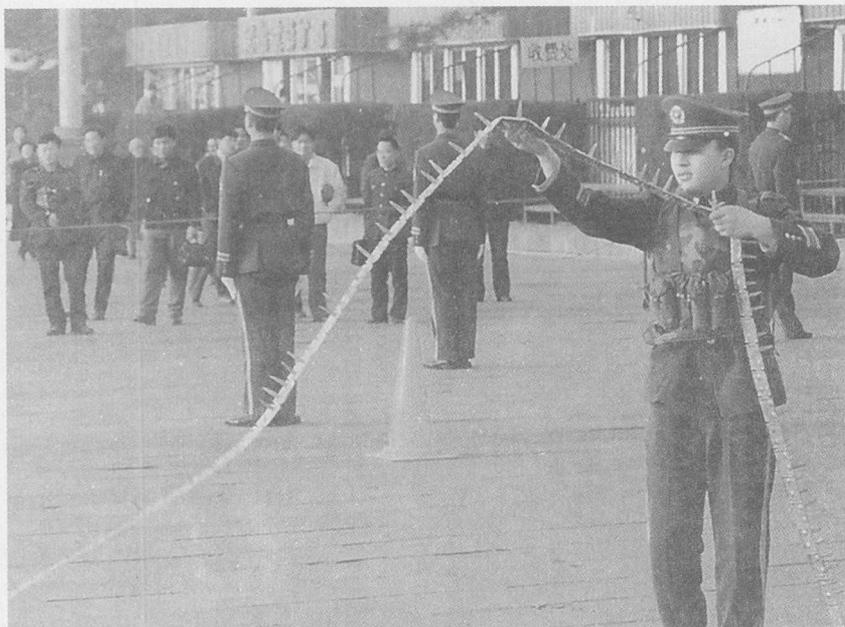
한족과 위구르족간의 첨예화한 갈등

위구르족의 절반은 터키계로 분류되고 있는데, 그들의 대다수는 동(東)투르크스탄이란 명칭을 선호한다. 이들은 점령당한 1949년부터 중국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운동을 벌여왔다. 신장 위구르 청년들은 독립 쟁취를 위해서는 폭력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장의 유혈사태는 중국 정부로서는 가장 큰 부담이다. 회교도 탄압은 중국이 그동안 유대를 강화해온 회교권 국가들과의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순수한 석유 수입국이 된 중국의 개발계획에 중동의 석유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국은 아랍 우방들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닝시 소요사태 소식이 조금씩 새어나오자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파키스탄 등 언론은 중국을 비난하였다.

이 외에도 신장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 경제계획 수립자들은 신장성의 미개발 석유자원이 중국 산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인근의 병하가 녹은 물을 이용하여 관개가 가능한 지역을 광대한 밀 경작지로 만들어, 다가오는 식량위기에 대처할 구상을 하고 있다. 전체 중국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신장은 이미 수백만의 한족들에게 새로운 삶의 터전을 제공하는 중요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949년 마오쩌둥의 중공 정권은 신장을 완전히 정복하였으나, 이 지역 원주민인 위구르족은 오



우루무치에 이어 폭탄테러가 발생한 베이징에서, 공안원이 천안문 광장에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있다.

신장 위구르자치구

면적: 160만km²

인구: 1,581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0/km²

민족: 위구르족이 인구의 2/3를 차지.

종교: 이슬람교는 10세기 중엽에 시짱 지역에 소개되어 16세기 초에 전 지역에 전파되었다. 시짱자치구에서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민족은 위구르족 외에도 카자흐족, 후이족, 키르키즈족, 타타르족, 우즈베크족, 타지크족, 동상족 등이 있다.

늘날까지도 중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이주정책에 따라 날로 밀려들어오는 한족을 오만한 침입자로 간주하고 있다. 실제로 민족 간의 이질감은 점점 폭발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위구르족은 신장 전체 인구 1천5백81만 명(1992년 현재)의 62%(730만 명)를 차지하고 있는데, 1950년 15%를 차지하던 한족은 오늘날 38%(590만 명)로 증가하였다. 주요도시의 경우는 더 심해서 현재 우루무치의 한족은 80%를 차지한다. 신장까지 연결되는 동서철도 건설계획이 완료되면 한족 이주민들은 더욱 물밀듯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위구르족들은 생활의 모든 면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를 한족 이주민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신장의 대다수 정부 고위직은 중산층 위구르인들이 맡고

있으나, 사실상 모든 중요한 결정은 한족들이 내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구르인들의 불만은 90년 이후 점차 과격 양상을 띠고 있다. 대다수 위구르 청년들은 이웃한 중앙아시아의 신생 독립 회교공화국들을 부러워한다. 위구르 과격파들은 교량을 폭파하고 버스에 폭탄 공격을 가하며 중국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지역의 회교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위구르족은 인근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 등 이슬람권 국가의 위구르족과 연계, 중국 정부의 강력한 탄압에 맞서 비교적 활발한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해왔다. 현재 '전국연합혁명전선'이라고 불리는 위구르족 단체가 결성돼 있으며 이들은 지하조직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종교행사를 규제하고 지역 출판사들을 폐쇄하였으며, 이 지역에 특수 군사작전

권을 부여하고 있다. 1년 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신장 정부 및 당에서 '모든 의심스러운 분자들'을 숙청할 것을 촉구한 10개항의 계획을 하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유혈폭동 및 버스폭탄 테러 이후 중국 인민해방군은 분리주의자들의 폭동을 막기 위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시짱(西藏·티벳)자치구에 1급 경계령을 내렸다.

중국은 현재 신장과 시짱 등 변방 소수민족 지역의 분리, 독립운동이 덩샤오핑 사망 후 권력 공백기를 틈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고자료

「중국 변방을 가다」 임세권, 서신원 「중공의 소수민족 정책」, 강명상, 융성출판사 「중국연구」, 1995 봄호, 中國邊疆 사회 문화의 역사적 고찰, 楊建新 「NEWSWEEK」, Troubled Frontier, 1997. 2. 26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전문
신문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중국인 50% 『점술은 미신』

중국과학기술협회가 지난 연말, 최근 중국을 병들게 하는 6대악으로 지적되었던 점술에 대해 전례 없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성인남녀 5천 명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중국인의 22%가 점쟁이는 모두 사기꾼이라고 대답했으며, 50%가 점술을 미신으로 보고 있는 반면, 7.6%만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26.4%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97. 3. 10)

정치

『중국 개방·현대화의 별』 덩샤오핑, 역사 속으로

12억 인구의 거대국가 중국을 개혁개방 노선으로 이끌던 역사적인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일 밤 9시 8분(한국시각 밤 10시 8분) 노환으로 사망했다. 향년 93세.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앙군사위원회 등 중국 최고기관은 20일 새벽 2시 50분(한국 시각 새벽 3시 50분) 당과 군대, 전국 인민들에게 보내는 공동서한을 통해, 덩의 사망을 공식발표했



덩 노선 계승의지를 견지하겠다고 밝힌 리펑 총리.

다.

이 서한은 『말기 파킨슨씨 병과 간질환 합병증을 앓아온 친애하는 덩샤오핑 동지가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호흡순환기 기능의 정지로 1997년 2월 19일 베이징(北京)에서 93세를 일기로 서거했음을 모든 당과 군대, 전국의 모든 민족 인민에게 비통한 마음으로 알린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97. 2. 20)

각급 지도부, 장쩌민 주석에 충성서약

중국 지도자들은 덩샤오핑이 사망한 지 하루가 지난 21일 공개 성명을 통해, 장쩌민(江澤民) 주석에 충성을 서약하기 시작했다. 공개 충성서약은 장 주석이 덩 사후의 권력기반 공고화 작업에 착수했음을 말해주는 증거로, 10여 개 성(省)의 고위 지도자들이 이날 “장 주석의 세심한 영도하에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것”을 맹세했다. 이와 함께 시(市)·향(鄉) 정부 간부들도 이같은 충성서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들 성명은 하나같이 덩이 주도한 경제개혁을 칭송하면서, 장 주석만이 중국을 ‘계속적인 변형과 안정의 길’로 지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 97. 2. 21)

장쩌민 ‘개혁·개방 계속 추진’

장쩌민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은 21일 덩샤오핑 사망 후 처음으로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단 덩 노선 계승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리펑(李鵬) 총리는 이날 중남해에서 베네수엘라 외무장관과 만나 “중국인민들이 장쩌민 주석을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견고하고 강력한 영도 아래 덩샤오핑 동지의 유지를 계승, 사회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사업을 견지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97. 2. 22)

덩샤오핑 유해 화장, 추도대회

사망한 중국 최고 원로지도자 덩샤오핑 추도대회가 25일 오전 10시(한국시각 오전 11시) 베이징 시내 중심부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다. 베이징(北京) 시내 서쪽의 301군병원에서 사망한 덩의 유해는, 24일 오전 이 병원에서 서쪽으로 1km 떨어진 바바오산(八寶山) 혁명공묘에서 화장됐으며, 화장된 유해는 덩의 가족들에게 인도된 뒤 추도대회가 열리는 25일 오전 인민대회당에 안치되었다. 덩의 유해가 화장된 이날, 베이징 시내에는 경계태세가 강화됐으며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바바오산으로 통하는 인근도로는 모두 봉쇄되었다.

(조선일보 97. 2. 24)

“장 주석은 확실한 덩 후계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덩샤오핑의 장례절차가 끝난 지 하루만인 26일, 장쩌민 총서기를 중심으로 한 당중앙의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그가 덩샤오핑의 확실한 후계자라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인민일보는 추모사설을 통해, 『중국인민은 장쩌민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중앙의 영도하에 덩샤오핑 동지가 처음 개척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길을 따라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97. 2. 26)

‘전인대 개막’ 권력재편 주목

중국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 5차회의가 3월 1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개막됐다. 3천여 명의 인민대표들이 참석, 14일까지 계속될 이번 대회는 덩샤오핑 사망 직후 개최된다는 점에서, 또 7월 1일의 홍콩 반환과 10월 개최될 중국공산당 제15기 전국대표대회(15全大)의 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장쩌민 체제의 향후 권력구도를 가늠해보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선일보 97. 3. 1)

차오스 전인대 상무위장, 장쩌민에 충성 다짐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장과 장진(張震), 장완넨(張萬年), 츠하오텐(遲浩田) 국방부장 등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단이 일제히 장쩌민 국가주석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에 따라 덩샤오핑 사후 중국은 일단 장쩌민 주석을 중심으로 한 집단체제가 권력을 장악,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7. 3. 2)

중국 당(黨)주석제 부활 포기

장쩌민 주석이 지난 1년 전부터 추진해 온 당주석제 부활이 당원로들의 건의에 따라 포기됐다고 홍콩의 대표적인 친중국계 시사지 「경보(鏡報)」가 보도했다. 원로들은 올해 초 현 지도층에 '82년 덩샤오핑에 의해 폐지된 당주석제 부활은 불합리, 당이 주장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론 당장(黨章) 삽입, 제4세대 영도층의 배양' 등 이른바 '3대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97. 3. 2)

덩「천안문사태 최대 유감」 유언

사망한 덩샤오핑은 가족들에게 '89년 6·4 천안문사태가 「최대의 유감스런 사건」이었다면서 후회하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덩은 유언에서 근대화를 선포한 데 대해 자화자찬한 뒤, 「가장 유감스런 사건은 천안문 사건으로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97. 3. 5)

전인대 폐막, 「장쩌민 1인자」 확인

제8기 전인대(全人大) 5차 회의가 14일 간의 회기를 마치고 14일 오후 폐막됐다. 전인대 전체회의는 이날 8천9백 68억 위엔(元, 한화 약 89조6천8백억 원)에 이르는 97년 예산안 및 96년 결산보고를 통과시켰다. 또 형법수정안과 국방법초안, 충칭(重慶)직할시 승격안, 제9기 전인대 정원조정 및 선거방식 등 주요안건을 심의, 통과시켰다.

리펑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폐막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할 것이며, 덩샤오핑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 정책 및 외교노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덩 장례식 직후 개최된 이번 전인대는 권력구조의 변동가능성과 관련, 안팎의 관심을 끌었으나, 리 총리와 차오스 전인대 위원장 등 핵심지도부가 장쩌민 국가주석직 당송서기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다짐하는 등 큰 파란없이 회기를 마쳤다.

(조선일보 97. 3. 14)

좌파 「개혁노선」에 반발

마오쩌둥(毛澤東) 노선을 따르는 중국의 좌파가 제15차 전국대표대회(全大會)를 앞두고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홍콩의 언론들이 보도했다. 홍콩 「명보(明報)」보도에 따르면, 지난 89년 천안문사태 당시 국무원 대변인이었던 위안무(袁木)는 최

근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나섰다. 좌파들은 특히 자신들의 대변지 역할을 하는 월간 「중류(中流)」를 통해 장 주석의 측근인 류지(劉吉) 사회과학원 부원장 등 4명을 「새로운 우파(右派)」로 분류, 『이들이 사회주의의 장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경향신문 97. 3. 31)

사회

신장 위구르서 유혈 종족분쟁, 110여 명 사상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에서 독립을 추구하는 회교계 주민들이 현지의 한족(漢族)을 공격해, 10명 이상이 죽고 1백여 명이 다쳤다고 홍콩 「명보」가 현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인 우루무치(烏魯木齊)로부터 서쪽으로 약 5백km 떨어진 이닝(伊寧)시에서, 지난 5일부터 이들 동안 회교계 1천여 명이 독립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이면서 이같은 인종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자치구에 인근 회교권 중앙아시아국들의 영향이 미치는 것을 크게 우려해, 지난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등 분리독립 회교세력에 강경 대처해왔다. (중앙일보 97. 2. 10)

위구르족 폭동 관련 1천여 명 체포

중국 당국은 신장 위구르자치구 이닝시 폭동과 관련, 1천여 명의 회교 분리주의자를 구금해 놓고 있다고 현지 주민들이 밝혔다. 한 주민은 현지 언론보도를 인용, 폭동이 발생한 지난 5, 6일 이틀간 대부분 위구르족인 시위대원 1천여 명이 체포되어, 이날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닝공항이 폐쇄되고 도시 전체가 인민 무장경찰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하루 7시간의 야간통행 금지가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7. 2. 12)



직할시로 승격된 충칭시의 오토바이 생산대.

터키, 중국 국기 소각 사과

터키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자치구에서 회교도들을 탄압하는 데 항의, 터키 국민과 위구르인들이 이스탄불에서 중국 국기를 소각하며 시위를 벌인 데 대해 중국 측에 사과했다. 터키 외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1천여 명의 시위대가 16일 이스탄불 주재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국기를 끌어내려 소각한 데 대해 중국 대사와 중국 정부에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7. 2. 18)

컴퓨터범죄 대책 마련, 22개 법안채택 논의

3월 1일 개막된 제8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돈세탁, 컴퓨터 관련 범죄, 내부자 거래 등 현대식 범죄들로부터 범위를 확대하는 형법 초안들이 마련되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는 현재 가장 최신의 범죄행태들을 다룬 22개의 새로운 법안채택을 논의하였는데, 새로 도입되는 형법들은 내부자 거래, 전자범죄, 환경과 파괴 등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사회경영 및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조선일보 97. 3. 10)

당 사후 외국인론 검열 대폭 강화

중국은 당사후평 사후 정치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 대한 검열을 강화한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지가 보도했다. 베이

징 당국은 당 사후 중국 정국 전망과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소요사태 등을 다룬 런던의 선데이 타임스, 미 뉴스위크와 타임,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등의 최신판을 검열한 후 정부 신문 가판대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치위버렸다. 또 CNN방송, 워싱턴 포스트지, 보스턴 글로브지 등의 인터넷 웹사이트도 일반이 접근할 수 없도록 봉쇄했다. 그러나 정기구독자들은 검열 없이 외국 간행물을 받아보도록 허용되고 있다.

(조선일보 97. 3. 11)

형법 수정 추진, 경제범죄 소탕 착수

중국은 10일 형법수정 움직임과 함께 경제범죄, 특히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소탕에 착수했다. 8기 전인대 5차회의가 현행 형법의 수정초안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률전문가들과 대의원들은 이같은 형법수정이 법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날 중국에서 경제범죄가 점증하고 있고 해악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종 범죄행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서는 형법에 세부조항을 만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97. 3. 11)

쓰촨성 충칭, 직할시 승격

전인대 회기 마지막날인 14일, 쓰촨(四川)성 충칭(重慶)의 직할시 승격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 내륙의 중핵도

시인 충칭이 새로운 개발중심 및 투자 유망지로 떠올랐다. 중국의 젓줄인 양쯔강 상류의 광활한 8만 2천km²의 땅에 인구 3천여만 명의 세계 최대 도시가 탄생한 것이다. 중국의 네 번째 직할시인 충칭의 시계(市界)는 현 충칭시는 물론 인근 부릉시와 완셴(萬縣)시 및 쟈장(黔江)지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조선일보 97. 3. 14)

남곤선 899km 철도 연결사업 완료

중국은 빈곤퇴치 10개년계획의 최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는 2백억 위엔(미화 24억 달러)규모의 남서부 철도 연결을 위한 선로개설 작업을 완료했다. 중국 빈곤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천5백만 명이 이 철도변에 살고 있다. 이 철도는 90년대 중국의 최대 빈곤구제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선일보 97. 3. 20)

중국 인권운동가 해리우 방한

중국 인권운동가 해리우(60·중국명 吳弘達)씨가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지부의 초청으로 26일 방한했다.

그는 1957년 북경대 2학년 때 소련군의 헝가리 반공의거 무력진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60년부터 79년까지 무려 19년 동안 이른바 일명 '라오가이(노동개조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했다. 79년 석방된 후 85년 미국으로 망명, 시민권을 얻은 뒤 본격적인 인권운동가로 나선 해리우는 그 후 중국에 네 차례나 잠입, 라오가이의 실태를 조사, 폭로해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수감자들의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중국상품의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5년 다섯 번째로 중국에 들어가려다 중국 경찰에 체포돼, 미국과 중국간의 심각한 외교마찰을 야기했다. 현재 미국 라오가이재단 사무총장이자 스탠퍼드대학 후버연구소 연구원이기도 한 그는, 지금까지 약 20차례 각종 국제인권상을 수상했다. (조선일보 97. 3. 27)

푸젠성 공장 기숙사 붕괴로 35명 사망

지난 25일, 푸젠(福建)성 푸톈(莆田)에 있는 홍콩인 소유 공장의 기숙사가 무너져 35명이 사망하고 1백 명 이상이 부상했다. 중국 당국은 인민해방군 수

백 명을 구조작업에 투입했다. 사고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97. 3. 27)

중국 새 형법 밀입국자 지원 엄금

지난 14일 폐막된 제8기 전인대 5차회의에서 밀입국자를 돕는 사람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국경(변경) 관리 방해죄' 조항을 신설한 새 형법이 제정되었다. 이 형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형법조항은 윈난(雲南)성 등지의 마약 밀수범과 동남해상에서 시행하는 밀수, 신장(新疆) 자치구 등 분리주의자들의 불법 입출국 단속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중국으로의 탈출이나 탈북자 귀순을 돕는 중국동포나 재중 한국인들에게도 여파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밀출입국을 조장한 사람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에 처해지며, 조직의 주모자, 여러 차례 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의 밀출입국을 조장한 사람 등은 7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일보 97. 3. 28)

중국에 마약중독자 1,200만 명

중국의 마약중독자가 당초 예상의 20배인 1천2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을 방문 중인 리고리 슈하토프 러시아 검찰총장은, 중국의 마약 밀매꾼들이 북부 라오닝(遼寧)성을 거점으로 러시아 극동지방에 중국제 필로폰을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며 단속 강화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97. 3. 28)

상하이~난징 간 호화 특급열차 운행

4월 1일부터 상하이(上海)와 난징(南京)을 잇는 노선에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크게 높인 특급열차가 운행된다. 난징~상하이 노선에는 이같은 열차 2편이 투입되며, 이외 항저우(杭州)-상하이 구간엔 2편이, 상하이-쑤저우(蘇州) 구간에도 1편이 각각 운행될 예정이다.
(조선일보 97. 3. 31)

'96년도 인권백서 발표

중국은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앞두

고 서방의 중국인권 비판 압력을 완화하고 자국의 인권개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6년도 인권백서>를 발표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관공실은 이날 발표한 「'96 중국인권사업의 발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은, 인민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생존권과 발전권 확대에 최대 역점을 두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 사법제도와 인권 관련 법규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폭 개선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97. 4. 1)

세계신문협회, 투옥 중국 언론인 석방 요구

세계신문협회는 2일 유엔이 정한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맞아, 내달 3일 올해의 세계언론자유상을 수상할 왕단(王丹, 27)과 가오유(高瑜, 50) 등 투옥된 중국 언론인 26명을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일보 97. 4. 3)

홍콩반환 앞두고 영화 '천안문' 인기

주권반환을 90여 일 앞둔 홍콩에서, 89년 베이징 천안문 민주화시위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문(天安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영화는 89년 천안문 사태 당시, 중국 당국의 잔혹한 유혈진압 상황을 스크린에 그대로 담아 관객들을 또다시 공포와 전율로 몰아넣고 있다. 영화 제작진은 천안문 사태의 진정한 의미를 재조명한다는 의미에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97. 4. 6)

연내 군소신문 1만여 개 폐간키로

중국은 지난 1월부터 추진 중인 '신문잡지 정리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만여 종 이상의 각종 군소신문들을 폐간시킬 방침이다.

중앙당 선전부는 발행부수가 2만 부가 넘지 않는 작은 신문들을 연내 폐간시킬 1차 대상으로 정했다. 1만 7천 종에 달하는, 당·군 또는 다른 정부조직 발행 내부 신문잡지에 대해선 20%만 공개출판물로 전환시키고, 나머지는 내부 공작자료로 바꿔 사회유통을 불허키로 했다. TV, 라디오, 유선방송 등

에 대해서도 방송 목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 영화나 만화 등은 국가광전부(廣電部)가 통일적으로 수입, 심사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일보 97. 4. 7)

홍콩 · 대만

홍콩 교과서 개편, 내년부터 복경어 교육

홍콩은 현재 주권반환 이후에 대비한 교과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은 인접국에서 조국이 되고, 중화민국은 대만으로 국명이 바뀌며, 아편전쟁은 영국이 벌인 자유무역수호 전쟁에서 침략전쟁으로 기술된다.

그리고 광둥어와 북경어가 당분간 혼용되지만, 길게는 북경어가 광둥어를 대체할 전망이다.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년부터 중등학교 3학년까지 북경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98년부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북경어 교육이 시작된다. 홍콩정청은 이를 위해 10억 원의 추가예산을 책정해 두었다.
(조선일보 97. 2. 17)

대만 고위관리 본토방문 금지

대만은 국제적 위상 강화 움직임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고위관리들의 본토방문을 금지했다. 이 신문은 행정원이 각료회의를 통해 각부 차장급과 성장 및 현장, 시장 등의 중국 본토방문을 허용해온 조치를 임시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7. 2. 18)

중국인민해방군 선발대 2백 명, 이번 달 홍콩 진주

홍콩에 주둔할 중국 인민해방군(PLA) 6천여 명 중 선발대 2백 명이, 본진의 사전 준비를 위해 이번 달에 홍콩에 진주한다고 홍콩의 「명보」가 보도했다. 중국과 영국 측 실무진들은 해방군 선발대 2백 명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오는 7월 1일의 주권반환에 앞서 이달 내에 홍콩에 주둔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다.
(한국일보 97. 4. 1)

홍콩, 만다린어 방송국

7월 1일 홍콩 주권반환을 앞두고 중국 표준어인 만다린어 방송이 31일 개국, 첫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홍콩의 공용어는 기존의 광둥(廣東)어와 영어를 포함해 3개로 늘어났다. 광둥어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 홍콩인들은 대부분 북경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북경어 방송을 첫 송출한 국영 RTHK 방송은 하루 12시간 동안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홍콩인에게 북경어를 익숙하게 만들 계획이다.

(한국일보 97. 4. 1)

반환 전후 중국인 홍콩행 대대적 단속

중국은 홍콩반환을 전후해 대대적으로 중국인들의 홍콩입국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홍콩의 언론들은, 중국 광둥성 황잉강(黃英剛) 공안청장의 말을 인용, 중국이 홍콩 반환시의 홍콩 내 치안확보를 위해 반환을 전후한 한 달 동안 중국인들의 홍콩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특별정책을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한 달 간은 중국인들의 홍콩 여행에 대한 전면적인 제한정책이 실시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국인들의 홍콩에 입국이 불허된다. 또 이 기간 홍콩에 근접한 선전(深圳)과 주하이(珠海) 등 특구로의 출입도 엄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한국일보 97. 4. 2)



주식투자 정보지 읽기에 몰두하고 있는 선전(深圳) 시민.

경제

중국, 외국인에 항공료 30% 할인

중국민용항공공사(CAAC)은 올해 관광진흥을 위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최고 30%의 할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다. 외국인들에 대한 이같은 요금할인은 CAAC가 중국 국가여유국(관광국)과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는 "중국방문 '97 운동"의 일환이다.

(중앙일보 97. 2. 6)

대만, 광저우시에 17억 9천만 달러 투자

광둥성의 수도 광저우는 작년 말로 대만으로부터 17억 9천만 달러의 투자를 끌어들이고, 985개 대만과의 합작기업을 설립한 것으로 최근 통계에 의해 밝혀졌다. 광저우시 대만 투자자의 세자 아신 부국장은, 광저우는 이미 도시 내에 대만 투자 보호지대를 설치했으며, 89년 이래 매년 약 1백 개의 대만 투자 합작회사가 설립됐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7. 2. 24)

중국 경제규모 2020년 세계 1위

중국이 2020년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과학적 전망이 중국에서 나왔다. 홍콩 「문화보(文匯報)」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계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소장 리정원(李京文)은 2020년 중국이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1위, 달러화

에 대한 환율로 환산한 명목 GDP에서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리 소장은 중국 경제가 2000년에 현재의 2배로 성장하고, 인구가 14억으로 억제되는 것을 전제로, 2020년의 GDP가 95년의 6.1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해 이같이 예상했다.

(경향신문 97. 3. 27)

외국은행 지점 중국 인민폐 취급 시험 허용

중국 인민폐 취급이 상하이 푸둥(浦東) 신개발지구에서 실험적으로 외국은행 지점들에 처음으로 공식 허용되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해방일보, 상하이 증권뉴스 등은 원화예금과 대출이 허용되는 8개 외국은행 지점들 가운데 홍콩-상하이 금융공사와 일본 흥업은행이 첫 번째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은행들은 경화만을 외국인 고객들과 거래하도록 규제받았다. (조선일보 97. 3. 28)

1위엔짜리 새 지폐 발행

중국 중앙은행은 4월 1일부터 1위엔(元·한화 약 110원)짜리 새 지폐 발행을 시작한다고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성명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1위엔짜리 지폐는 1996년권으로 종전의 1980년 및 1990년권 1위엔짜리 지폐와 함께 통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향신문 97. 3. 31)

중국 보험시장 대외개방 점진 추진

중국은 국내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을 도입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자국의 보험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중국의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인민은행 관계자의 말을 인용, "외국 보험업체들이 대규모 미개발 시장 지분 잠식을 바라고 있으나 중국은 보험시장을 점차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상하이시와 광저우시에 제한된 영업허가를 받은 외국회사는 5개사에 불과하며 사무실을 개설한 외국회사는 91개사에 이르고 있다.

(한국일보 97. 4. 7)

한·중관계

중국 공안, 한국인 모임 자제 요청

한국에서 이한영씨 피습사건이 발생하자, 중국 공안당국은 한국대사관 측에 당분간 한국인이 여럿 모이는 일을 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10시부터 일부 한국 교민들은 베이징 한국대사관 영사부 동북쪽 21세기호텔 내 연회장에서 일요일예배를 드렸다. 평소 일요일 오전과 오후예배에 8백여 명이 참석했었던 데 비해, 이날 예배에 모인 신도는 2백70여 명에 불과했다. 예배가 끝난 뒤 한인교회 목사는 “신변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 97. 2. 17)

베이징 교민 안전조치 중국 측에 요청

외무부는 베이징에서 한국인 납치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중국 측에 우리 교민들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교민과 관광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일보 97. 3. 27)

중국 내 한국인 납치 중동포-국내조직 연계 소행

중국내 조선족 범죄조직이 한국 내 조직과 연계, 중국에서 활동중인 한국인을 납치해 거액의 몸값을 챙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중국에서 활동중인 한국인들의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중국 선전(深圳)에 출장갔던 신기천(40) 씨는 조선족 정홍필 씨 일당에게 납치당한 후, 범인들의 요구에 따라 국내가족을 통해 5천만 원(인민폐 50만 위엔)을 한국 내 은행 계좌에 입금시킨 뒤 풀려났다.

(중앙일보 97. 3. 27)

10만 원권 위조수표 조선족 지역 유통

3월 22일 마포에서 발견된 10만 원권 위조수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위조수표가 중국 조선족 밀집지역에서 대량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인터넷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 정춘식 씨 등이 머물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공안당국에 이들의 검거와 신병인도 협조를 요청했다.

(조선일보 97. 3. 27)

‘탈북 주선’에 중형, 국경관리 방해죄 신설

중국은 북한주민의 탈북 행위를 주선한 사람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쩌민 국가주석이 지난 14일 공포한 새 형법은 사회질서 관리 방해죄의 하나로 국경관리방해죄를 신설, 탈북자를 중국 내로 밀입국시키거나 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준 사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중국 당국이 이같은 죄를 형법에 새로 추가한 것은 중국을 통한 북한주민의 탈북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이다.

(경향신문 97. 3. 28)

중국 삼성증권 직원 납치범 10명 검거

지난달 베이징에서 발생한 삼성증권 국제영업부 최영호 과장(36) 납치사건과 중앙민족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의 아파트에 침입, 금품을 탈취한 사건은 동일범의 소행이며, 10여 명의 범인은 모두 공안당국에 붙잡혔다고 북경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범 주귀봉 등 일당은 지난달 22일 밤 외출한 최씨를 납치한 후, 다음날 한국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게 해 몸값으로 인민폐 50만 위엔(한화 약5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최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조선일보 97. 4. 2)

대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중국인 최대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내 1천5백여 개 기업체와 업소 등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12개국 7천4백여 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산업연수생이 5천6백여 명이고, 나머지 1천8백여 명은 불법 체류자로 집계됐다. 불법 체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다.

(한국일보 97. 4. 3)

탈북 러시 하루 30~40명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 주민의 수가 하루 평균 최소한 30~40명선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탈출루트도 기존의 북서부, 북동부 일대에서 중북부 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베이징의 소식통들이 밝혔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중(北中) 접경지역을 관장하는 중국군은 탈북자 체포시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송환하고 있으며,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 북한 주민마저도 조교(朝僑: 북한 국적의 중국 장기체류자)를 비롯한 감시요원들에게 적발돼 송환되기 일쑤라고 전했다.

(한국일보 97. 4. 3)

중국 ‘북한군 이상병력 이동에 주목’

중국은 북한이 최근 중국접경 지대로의 대규모 병력이동을 실시하는 등 이상징후를 보인 데 대해 3일,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귀광(沈國防)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뉴스 브리핑에서 “북한은 주권국가이므로 자체적으로 병력배치를 할 권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 중국 정부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이같은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97. 4. 3)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 범인색출 요구

중국 정부는 최근 조선족 사기피해와 관련, 우리 정부에 범인색출 등 철저한 대처를 외교경로를 통해 공식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 관계자는 2일 주중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한국인 사기범들이 중국인을 상대로 취업연수, 결혼 등을 빙자한 사기행위를 벌여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사기범에 대한 철저한 대처와 사기범들의 사기금액 반환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97. 4. 5)

정리/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신 고 단 신

세미나 스캐치

“등소평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주최로 “등소평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 세미나가 3월 6일(목) 중화기독교한성교회에서 개최되었다.

등 연구소 소장인 왕쓰쎬 목사의 강의로 진행된 이 세미나는, 현대 중국 속의 등소평의 위상과 평가, 중국 정치 구도와 전개, 등소평 사망 이후의 기독교 선교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왕 목사는, 등의 사망이 중국에 큰 변화나 혼란을 가져다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치, 사회 안정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 선교는 더욱 위협해질 수 있고 정부로부터의 제재를 강하게 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의 필요와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하여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97 오픈도어 선교대회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핍박 속에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한국교회 백주년기념관에서 3월 17일, 18일 이틀간 선교대회를 개최하였다. 강사는 국제 오픈도어 중국사역 책임자인 자니리(Johnny Li) 목사와 김성태 교수(총신대)였다.

자니리 목사는 “중국선교 역사와 가정교회”, “중국의 부흥하는 어린이 선교”라는 강의를 통해, 현재 부흥하는 중국 교회의 상황과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정교회, 그리고 오픈도어의 성경전달 사역에 대한 생생한 간증을 나누었다. 이외에도 북한교회와 선교 현황 및 북한 선교 방향에 대한 워크숍과 무슬림의 기독교인 박해 이해와 이슬람선교 전략 등에 관한 영화 상영이 진행되었다.



세미나 안내

선교사의 위기관리 세미나

오늘날 세계 도처에서 납치와 테러 사건이 빈번해지고, 많은 선교사들은 선교 현지에서 사역 중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에 위기관리 정책과 사후 대책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일 시: 1997년 5월 2일(월) 오전 9:00~오후 5:00

강 사: 정명영 선교사, 도문갑 목사 등

장 소: 목산침례교회(목동아파트 2단지 내 월촌초등학교 맞은편)

등록비: 1만 5천 원

자세한 문의로는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

TEL. 02)653-4270~1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 세미나

오늘날 기독교의 유일신관은, 다변화된 현대 세계의 여러 복잡한 상황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른바 종교다원주의로 규명되는 새로운 인식론의 등장으로 야기되는 문제와, 이러한 상황에 새롭게 대처해야 할 현재의 선교적 방향과 의식의 제고를 위해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일 시: 1997년 6월 16일(월)부터 6월 19일(목)까지

강 사: Harold Netland(미 트리니티신학대학원 선교학 박사과정)

장 소: 목산침례교회(목동아파트 2단지 내 월촌초등학교 맞은편)

자세한 문의로는 한국선교정보연구센터(KRIM)

TEL. 02)653-4270~1

훈련반을 이곳을 모십니다

GMP 제3기 터키 비전트립 훈련생 모집

중동 중앙 아시아의 교두보인 그 주변 국가에서 타문화권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을 통하여 이슬람권 선교사로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자질을 연마하고, 이슬람권 국가에서 실제적인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이슬람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훈련기간: 1997년 8월 1일부터 10일간

장 소: 마닐라 GCMC훈련원(서울 서초동 소재)
훈련대상: 선교사 지망생, 관심자, 전문인선교 헌신자

훈련경비: A팀-180만 원, B팀-190만 원

훈련인원: A팀-터키, 불가리아 15명
B팀-터키, 아제르바이잔 15명

자세한 문의를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로
TEL. 0345408-6950, 02)3471-9138

제4기 필리핀 비전트립 참가자 모집

단기간에 선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타문화권 선교현장을 경험하고 훈련하는 것을 목표로, 타문화권 적응훈련 및 언어습득의 기회가 되도록 비전트립을 실시한다.

훈련기간: 1997년 8월 1일부터 10일간

훈련장소: 마닐라 GCMC 훈련원

훈련경비: 55만 원 예정

훈련인원: 20명

자세한 문의를 한국해외선교회 개척선교부로
TEL. 0345408-6950, 02)3471-9138

(박광희 담당간사)

갈릴리세계선교회 중국선교부 기도모임

갈릴리세계선교회(GWM)에서는 선교 정보를 제공하며, 중국과 몽골 그리고 선교사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중보 기도하는 모임을 갖는다.

모임시간: 매월 셋째주 목요일

시 간: 저녁 7시~9시30분

장 소: 갈릴리세계선교회 자료실

자세한 문의를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420-1450, 424-1144

GWM '97 북방지역 여름 단기선교 안내

'복음의 깃발을 들고 두루 나아가자'는 주제로, 북방지역에 선교의 교두보를 삼기 위한 종합적인 선교의 장으로서 의료선교, 아미용, 찬양 등 자신의 은사를 선교적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지 역: 중국 중부, 남부, 러시아, 몽골

기 간: 1997년 8월 11일부터 8월 20일(9박 10일)까지

자세한 문의를 갈릴리세계선교회 중국선교부로

TEL. 02)420-1450 FAX. 02)421-1425

GMF 15기 선교사 훈련생 모집

한국 GMF에서는 타문화권 선교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학문적 이해를 돕고, 선교 활동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여러 과목들을 개설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

훈련기간: 1997년 8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마 감: 97년 5월

모집인원: 30명

대 상: 장단기 선교경험자, 선교행정가, 교회선교부 담당교역자

자세한 문의를 한국해외선교회 한국선교훈련원으로
TEL.02)649-3197, FAX. 02)647-7675

사역자를 모십니다

전임간사 및 협력 간사 모집

갈릴리해외선교회 중국선교부에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중국 땅과 중국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를 GWM 중국선교부

TEL. 02)420-1450 FAX. 02)421-1425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간사 모집

모집 인원: 형제 1명, 자매 1명

모집 자격: 선교의 소명이 있는 분

(중국어를 구사하면 더욱 좋음)

사역 내용: 인천항, 중국인선원 전도사역,
중국여성경반 협력·지원, 대내외 홍보,
재정 및 사무행정

본 선교회의 재정정책: 믿음재정(Faith Mission)원칙

문 의: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부

임화평, 김바울 간사

TEL. 032)872-0742

호출 012-254-3085

중국 성·구(省·區) 지도자 명단

'96년 11월 기준

구 분	당위서기 (黨委書記)	성(시)장·구 주석 (省(市)長·區 主席)	인대상위회 주석 (人大常委會 主席)	정협주석 (政協主席)
北京(베이징)市	尉健行	賈慶林(代)	張健民	王大明
天津(톈진)市	高德占	張立昌	聶壁初	劉晉峯
河北(허베이)省	程維高	葉連松	呂傳贊	李文珊
山西(산시)省	胡富國	孫文盛	盧功勳	郭裕懷
內蒙古(네이멍구)自治區	劉明祖	烏方吉	王 羣	千奮勇
遼寧(랴오닝)省	顧金池	聞世震	全樹仁	孫 奇
吉林(지린)省	張德江	王雲坤	何竹康	劉雲沼
黑龍江(헤이룽장)省	岳岐峯	田鳳山	孫維本	周 文
上海(상하이)市	黃 菊	徐匡迪	葉公琦	陳鐵迪
江蘇(장쑤)省	陳煥友	鄭斯林	沈達人	孫 頌
浙江(저장)省	李澤民	萬學遠	李澤民	劉 楓
安徽(안후이)省	盧榮景	回良玉	孟富林	盧榮景
福建(푸젠)省	陳明義	賀國強(代)	.	游德馨
陝西(산시)省	吳官正	舒聖佑	毛致用	朱治宏
山東(산둥)省	趙志浩	李春亭	趙志浩	陸懋會
河南(허난)省	李長春	馬忠臣	李長春	林英海
湖北(후베이)省	賈志傑	蔣祝平	關廣富	錢運錄
湖南(후난)省	王茂林	楊正午	劉夫生	劉 正
廣東(광둥)省	謝 非	盧瑞華	朱森林	郭榮昌
廣西壯族(광시좡족)自治區	趙富林	成克傑	趙富林	陳輝光
海南(하이난)省	阮崇武	阮崇武	杜青林	陳玉益
四川(쓰촨)省	謝世傑	宋寶瑞	楊析綜	聶榮貴
雲南(윈난)省	高 嚴	和志强	尹俊	劉樹生
貴州(구이저우)省	劉方仁	吳亦俠(代)	王朝文	龍志毅
陝西(산시)省	安啓元	程安東	張勃興	周雅光
甘肅(간쑤)省	閻海旺	孫英(代)	盧克儉	申效曾
青海(칭하이)市	尹克升	田成平	宦爵才郎	韓應選
寧夏回族(닝샤후이족)自治區	黃 璜	白立權	馬思忠	劉國範
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自治區	王樂泉	會不來提· 阿不都熱西提	阿木冬尼牙孜	賈那布爾
西藏(시짱-티벳)自治區	陳奎元	江村羅布	熱地	帕巴拉· 格列郎傑

출처: 廣角鏡(홍콩), 1996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제45호)

한국가가 성장 발전하는데 있어서 교육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체제인 중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수립, 개혁개방과 현대화 건설의 강화, 생산력의 해방과 발전, 국민경제와 총체적 국력 증강 등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이의 성패는 교육에 있음을 천명하고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1985년 중국정부는 「교육체제 개혁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결정」에서 “교육은 사회주의 건설에 봉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주의 건설은 교육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이라는 위대한 임무에 우리는 현재의 인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은 물론, 교육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현대화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1990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사회주의 발전을 위해 중국의 경제와 사회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인재를 대규모로 준비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존재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1993년에도 「중국 교육개혁과 발전 개요」를 발표하여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이론적 지도로 삼아, 당의 기본 노선을 견지하면서 전면적으로 교육방침을 관철한다. 이것은 현대화를 향해, 세계를 향해, 미래를 향해 교육의 개혁과 발전을 가속화하고, 노동자의 소질을 한 단계 고양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및 정치 과학기술 체제 개혁에 적응되는 교육체제를 수립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실용적인 인재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의 중국은 현실적이며,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었고 국가의 경제발전과 현대화의 토대로서 전략상 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중국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현행 적용되고 있는 교육법을 전문 번역하여 소개한다. <역자>

《중화인민공화국교육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제8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5년 3월 18일에 통과된 것을 이제 공포하여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江澤民
1995년 3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 교육사업 발전과 전 민족의 소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 있는 각계 각층의 모든 교육에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毛澤東) 사상을 견지하고,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이론을 지도로 삼아 헌법에 확정된 기본원칙을 준수하며,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킨다.

제4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로, 국가는 교육사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전 사회는 교육사업의 발전에 관심을 지니고 또 지지해야 한다. 전 사회는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5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해야 하고, 생산노동과 결합하여 지, 덕, 체 방면에서 전체적으로 발전할 사회주의 사업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피교육자에게 애국주의 및 집단주의, 사회주의 교육을 행하고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과 민족을 단결하는 교육을 행한다.

제7조 교육은 중화민족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류 문명발전의 모든 우수한 성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8조 교육활동은 국가와 사회의 공공이익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과 종교를 서로 분리시킨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종교를 이용하여 국가 교육제도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公民)은 교육 받을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공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재산상황, 종교신앙 등에 상관없이 법에 따라 평등한 교육기회를 향유한다.

제10조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징과 수요에 따라, 각 소수민족지구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국가는 변방의 빈곤지구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 국가는 장애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킨다.

제11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사회진보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각계각층의 교육의 협조 발전을 촉진하고, 평생교육체계를 건립하고 완전하게 한다.

국가는 교육의 과학적 연구를 지지하고 고무하며 조직하여 교육의 과학적 연구성과를 널리 보급하고, 교육의 질적, 양적 향상을 촉진시킨다.

제12조 한어(漢語)는 학교를 비롯한 기타 교육기구에서 기본적으로 교학(敎學)하는 데 통용되는 언어 문자이다. 소수민족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서는 본 민족 혹은 해당 지역 거주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와 문자로 교학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교학을 진행함에 있어, 전국에 통용되는 보통화(普通話)와 규범문자를 확산시켜야 한다.

제13조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두드러진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을 장려한다.

제14조 국무원과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는 분급관리(級級)에 따른 관리-역자 주)와 분업관리(分工責任:맡은 일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역자 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 사업을 지도하고 관리한다.

중급 및 중등 이하의 교육은 국무원의 지도 하에 지방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고등교육은 국무원과 성(省), 자치구, 직할시 등의 인민정부가 관리한다.

제15조 국무원의 교육행정부문은 전국 교육 업무를 주관하고, 전국의 교육사업을 주관하여 계획하고 협조 관리한다. 현급(縣級)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의 교육사업을 주관한

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기타 유관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관련한 교육사업을 책임진다.

제 16 조 국무원과 현급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혹은 그 상무위원회로부터 교육사업과 교육경비 예산, 결산 상황을 보고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교육 기본제도

제 17 조 국가는 취학 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의 학교 교육제도를 실행한다.

국가는 과학적인 학제계통을 건립한다. 학제계통 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의 설치, 교육형식, 수업 연한, 학생모집대상, 양성목표 등은 국무원 혹은 국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교육행정부처에서 규정한다.

제 18 조 국가는 9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행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적령아동과 소년의 취학을 보장하는 여러 조치를 취한다.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 및 관련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령아동, 소년이 규정연한의 의무교육을 받고 또 완성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 19 조 국가는 직업교육제도와 성인교육제도를 실행한다.

각급 인민정부, 관련 행정부 및 기업사업체는 공민이 직업학교 교육 혹은 여러 형태의 직업훈련을 받도록 조치하고 발전시키고 또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여러 형태의 성인교육을 고무하여 발전시키고, 공민에게 적당한 형태의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업무교육을 비롯한 평생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 20 조 국가는 국가교육고시제도를 실행한다.

국가교육고시는 국무원 교육행정부문에서 종류를 확정하고 아울러 국가가 비준한 교육고시 실시기구에서 맡아서 한다.

제 21 조 국가는 학업증서제도를 실행한다.

국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되거나 인가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력증서나 기타 학업증서를 발행한다.

제 22 조 국가는 학위제도를 실행한다.

학위수여기관은 법에 따라서 일정한 학술 수준이나 전공기술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학위를 수여

하고 학위증서를 발행한다.

제 23 조 각급 인민정부, 각 자치조직과 기업사업체는 여러 조치를 통해 문맹을 퇴치하는 교육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국가 규정에 따라 문맹퇴치 교육을 받을 능력을 갖추고 있는 공민은 문맹퇴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24 조 국가는 교육감독제도와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교육평가제도를 실행한다.

제 3 장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

제 25 조 국가는 교육발전계획을 제정하고,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운영한다.

국가는 기업체, 사회단체, 기타 사회조직 및 공민이 법에 따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 26 조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하는 데는 아래의 기본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 1) 조직기구와 규정이 있어야 한다.
- 2) 자격을 갖춘 교사가 있어야 한다.
- 3) 표준규정에 부합하는 교학장소 및 시설, 설비 등이 있어야 한다.
- 4) 필수적인 학교 운영자금과 안정적인 경비의 출처가 있어야 한다.

제 27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설립 및 변경과 폐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 등록 혹은 서류 등록 수속을 행해야 한다.

제 2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아래의 권리를 행사한다.

- 1) 규정에 따라 자주적으로 관리한다.
- 2) 교육 교학활동을 조직하고 실시한다.
- 3) 학생 혹은 기타 피교육자를 모집한다.
- 4) 피교육자의 학적관리를 하고, 장려나 처분을 행한다.
- 5) 피교육자에게 상응하는 학업증서를 발행한다.
- 6) 교사 및 기타 직원을 초빙하고 장려나 처분을 행한다.
- 7) 본 기관의 시설과 경비를 관리하고 사용한다.
- 8)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교육 교학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거부한다.

9) 법률 및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권리가 있다.
 국가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29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1)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한다.
- 2) 국가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국가의 교육교학 표준을 집행하며 교육교학의 양질을 보증한다.
- 3) 피교육자를 비롯하여 교사 및 기타 직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4) 적당한 방식으로 피교육자와 그 보호자가 피교육자의 학업성적 및 기타 유관한 상황을 이해하도록 편리를 제공한다.
- 5)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을 거두고 또 비용징수 항목을 공개한다.
- 6) 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제30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운영자는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그가 운영하는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의 관리체제를 확정한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의 교장이나 주요 행정책임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지니고 중국경내에 거주하며, 아울러 국가가 규정한 임직(任職) 조건을 갖춘 공민이 담당하는데, 그 임명과 사면(任免)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학교의 교학과 기타 행정관리는 교장이 책임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사를 주체로 하는 교직원대표대회 등의 조직을 통해 교직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관리와 감독을 보장한다.

제31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법인(法人)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설립 비준이나登記 등록한 날로부터 법인의 자격을 지닌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민사(民事) 활동 중 법에 따라 민사의 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의 책임을 진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 중의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이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에서 창설한 산업체는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제4장 교사인 기타 교육계 종사자

제32조 교사는 법률이 규정한 권리를 향유하며,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인민의 교육사업에 열성을 다한다.

제33조 국가는 교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교사의 근로조건과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교사의 보수, 복리 혜택은 법률 및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 국가는 교사의 자격, 직무, 임용제도를 실행하고, 심사, 장려, 양성과 훈련을 통하여 교사의 소질을 향상시켜, 양질의 교사(教師) 인력을 확보 강화한다.

제35조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 중의 관리인원은 교육직원 제도를 실행한다.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 중의 교학 보조인원과 기타 전문기술인원은 전문기술 직무임명제도를 실행한다.

제5장 피교육자

제36조 피교육자는 입학, 상급학교 진학, 취업 등의 방면에서 법에 의해 평등한 권리를 향유한다.

학교와 관련된 행정부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여자의 입학, 상급학교 진학, 취업, 학위 수여, 유학 파견 등의 방면에서 남자와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도록 한다.

제37조 국가나 사회는 입학조건에 부합하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아동, 소년, 청년에게 여러 형태의 자금 원조를 제공한다.

제38조 국가나 사회,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장애인의 심신(心身)에 따른 특성과 그 수요에 근거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도움과 편리를 제공한다.

제39조 국가나 사회, 가정 및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위법적 범죄행위를 한 미성년을 위해 교육 창조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40조 취업자는 법에 의해 직업훈련과 계속교육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국가기관, 기업사업체, 기타 사회조직은 본 기관 직원의 학습과 훈련을 위해 조건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41조 국가는 공민이 평생교육의 창조적 조건을 누리도록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 사회조직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장려한다.

제42조 피교육자는 아래의 권리를 향유한다.

- 1) 교육 교학에 계획되고 마련된 각종 활동에 참가하고 교육교학 시설, 설비, 도서자료를 사용한다.
- 2)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학금, 학자금 융자, 학자

금 보조를 받는다.

3) 학업성적과 품행에서 공정한 평가를 받고, 규정된 학업을 마친 후에 상응하는 학업증서, 학위증서를 받는다.

4) 학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학교, 교사가 인신권(人身權), 재산권 등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할 때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법률 및 법규에 규정된 기타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피교육자는 아래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법률 및 법규를 준수한다.

2) 학생으로서의 행위 규범을 준수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좋은 사상 및 인품과 덕성, 행위 습관등을 배양한다.

3) 열심히 배우고 규정된 학습 임무를 완성한다.

4) 소재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의 관리제도를 준수한다.

제 44 조 교육, 체육, 위생, 행정부문과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는 체육 및 위생 보건시설을 완비하고, 학생의 심신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장 교육과 사회

제 45 조 국가기관, 군대, 기업사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아동, 소년, 청년 학생의 심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양호한 사회환경을 창조해야 한다.

제 46 조 국가는 기업사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이 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와 함께 교학,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확산 등의 방면에서 여러 형태의 합작을 진행하도록 장려한다.

기업사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은 적당한 형태를 통해 학교의 건설을 지지하고, 학교관리에 참여한다.

제 47 조 국가기관, 군대, 기업사업체 및 기타 사회조직은 학교조직의 학생실습, 사회 실천활동에 도움과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 48 조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정상적인 교육 교학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지역의 사회 공익활동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제 49 조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그

미성년 자녀 혹은 기타 피보호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는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와 협력하여, 그 미성년 자녀 혹은 기타 피보호자를 위해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 가장에게 가정교육 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

제 50 조 도서관, 박물관, 과학기술관, 문화관, 미술관, 체육관, 운동장 등 사회 공공 문화 체육시설 및 역사 문화 고적과 혁명기념관 등은 교사와 학생을 우대하고, 피교육자가 교육을 받는 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은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피교육자의 사상, 품성, 문화와 과학기술 소질이 향상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제 51 조 국가나 사회는 미성년자에게 학교의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건립하고 발전시킨다.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기존 사회민중 자치조직, 기업사업체, 사회단체와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교외교육(校外教育) 사업을 강화한다.

제 52 조 국가는 사회단체, 사회 문화기구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이 피교육자의 심신 건강에 유익한 사회 문화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7 장 교육투자인 조건의 보장

제 53 조 국가는 재정 지출을 위주로 한, 기타 여러 방도로 마련된 교육경비를 보조로 하는 체제를 건립하고, 차츰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경비의 안정적인 출처를 보증한다.

기업사업체, 사회 단체 및 기타 사회조직과 개인이 법에 의해 운영하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는 운영자가 운영경비의 조달을 책임지고, 각급 인민정부는 적당한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제 54 조 국가의 재정상 교육경비 지출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재정수입의 증가에 따라 점차 향상되도록 한다. 구체적인 비율과 실시 속도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전국 각급의 재정 지출총액 중 교육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차츰 향상되어야 한다.

제 55 조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경비 지출은 직권과 재산권의 상호통일의 원칙에 따라서, 재정예산 중에서 단독으로 항목을 차지한다.

각급 인민정부의 교육재정 지출의 증가는 재정 경영상업의 증가보다 높도록 해야 하고, 아울러 학생수 평균의 교육비용이 차츰 증가하도록 하고, 교사의 임금과 학생 평균 공용경비가 차츰 증가하도록 해야 한다.

제 56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교육전문 자금을 설립하고, 변방 빈곤지구, 소수민족 지구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

제 57 조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교육부가세를 너그럽게 징수하고 교육행정 부문이 이를 통합 관리하여, 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데 쓰도록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에 쓰이는 지방부가세를 징수하도록 결정하여 특수비용으로 전용(專用)할 수 있다.

농촌의 총비용 중의 교육부가세는 향촌 인민정부 조직이 징수하고, 현급 인민정부의 교육행정부문이 대신 관리하거나 향촌 인민정부가 관리하여, 본향 범위 내의 향촌 양급의 교육사업에 쓰도록 한다. 농촌교육 부가세가 향의 총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구체적인 비율과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58 조 국가는 우대 조치를 취하여 정상 교육교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서 학교가 개방학교와 사회봉사를 펼치고, 학교운영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59 조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서 향(鄉), 민족향(民族鄉), 진(鎮)의 인민정부는 자원, 역량의 원칙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에서 학교운영자금을 모아 의무교육학교의 위태로운 건물의 개조와 수리, 새로운 교사의 건립에 쓸 수 있으나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제 60 조 국가는 국내, 국외의 사회조직과 개인이 교육원조자금을 출연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61 조 국가의 재정성 교육경비, 사회조직과 개인의 교육에 대한 출연금은 반드시 교육에 써야 하고 전용하거나 떼어먹어서는 안 된다.

제 62 조 국가는 금융, 융자수단을 운용하는 것을 장려하고 교육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제 63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교육행정부문은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경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 64 조 지방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행정부문

은 반드시 학교의 기본건설을 도시와 향촌(城鄉)의 건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학교의 기본건설 용지 및 소요 물자를 통합 마련하여,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우대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제 6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교과서와 교학용 도서의 출판발행, 교학도구, 설비의 생산과 공급, 학교의 교육교학과 과학연구에 쓰이는 도서자료, 교학도구, 설비의 수입에 대하여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우대 정책을 실행한다.

제 66 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는 위성텔레비전 교육과 기타 현대화된 교학수단을 발전시켜야 하고, 유관 행정부문에서는 우선적으로 안배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가는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가 현대화된 교학수단을 확산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 8 장 교육의 대외교류와 협작

제 67 조 국가는 교육의 대외교류와 협작을 장려한다.

교육의 대외교류와 협작은 독립자주, 평등호혜, 상호존중의 원칙을 견지하되, 중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주권, 안전과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제 68 조 중국 국내의 공민이 출국하여 유학, 연구, 학술교류를 하거나 교직을 맡을 때는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9 조 중국 국외의 개인이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고 또 유관한 수속을 거친다면, 중국 내의 학교와 기타 교육기구에 들어와 학습, 연구, 학술교류를 진행하거나 교직을 맡을 수 있고 그 합법적 권익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70 조 국외 교육기구에서 발행한 학위증서, 학력증서 및 기타 학업증서의 승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혹은 국가의 유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9 장 법률책임

제 71 조 국가의 유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예산을

확인하고 교육경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동급의 인민정부가 한시적(限時的)으로 확인 지출한다. 사건이 엄중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의 직접책임자에 대해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국가의 재정제도, 재무제도를 위반하거나 교육경비를 전용, 남용한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기한을 정하여 전용, 남용된 경비를 돌려놓도록 명령하고, 아울러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 72 조 때를 지어 싸우고 트집을 잡아 싸움을 걸고 분규를 일으키거나,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의 교육 교학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혹은 교사(校舍), 운동장 및 기타 재산을 파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에서 치안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학교나 기타 교육기구 외 교사(校舍), 운동장 및 기타 재산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 73 조 교사(校舍) 혹은 교육 교학시설에 위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의 손상이나 중대한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 74 조 국가의 유관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로부터 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정부가 그 징수한 비용을 되돌리도록 명령을 내리고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75 조 국가의 유관규정을 위반하여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 부문에서 이를 철회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를 몰수하고,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76 조 국가의 유관규정을 위반하여 학생을 모집한 경우에는 모집한 학생을 철회하고 거둔 비용을 돌려주도록 교육행정부문에서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77 조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 중에 사리사욕으로 부정을 행하면 교육행정부문에서 모집한 인원을 철회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

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 78 조 학교 및 기타 교육기구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피교육자에게서 비용을 거둔 경우에는, 교육행정부문이 그 비용을 돌려주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79 조 국가교육고시에서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행정부문이 고시의 무효를 선언하고,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불법적으로 국가교육고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부문이 고시의 무효를 선포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를 몰수한다. 직접 책임을 맡은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 80 조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위증서, 학력증서나 기타의 학업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부문이 증서의 무효를 선언하고, 이를 수거하거나 몰수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이를 몰수한다. 사건이 엄중한 경우에는 증서를 발행하는 자격을 취소한다.

제 81 조 본법의 규정의 위반하여 교사, 피교육자, 학교 혹은 기타 교육기구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손실,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 10 장 부칙

제 82 조 군사학교의 교육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법의 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한다.

종교학교의 교육은 국무원이 따로 규정한다.

제 83 조 국외의 조직과 개인이 중국 내에서 학교를 운영하거나 합작운영하는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84 조 본법은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국선교 적용훈련

제11기 훈련생 모집

선교현장에 임하기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함은 선교사의 필수적 요건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실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분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입니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투자하는 6개월은 결코 많은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상

교회,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

참가인원

10명 내외.

선발

본 훈련원의 훈련생 선발기준에 의함.

본 훈련원의 과정을 수료하면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적응 능력 배양.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중국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 구체화.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97년 6월 16일~97년 7월 15일

원서 접수 순서대로 면접하여 합격예정자를 결정, 개인 통보하고 훈련원에서 지정한 일자까지
등록한 순서에 따라 합격 인원을 확정함.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 1통
서약서(소정양식) - 1통
추천서(소정양식) - 3통
자기 소개서(소정양식) - 1통
위탁서(소정양식) - 1통

원서대금 및 접수비 : 원서대금 1,000원, 접수비 10,000원

강연회

97년 9월 1일(월) 오후 1시

장소 :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강의실

훈련내용

언어(선교중국어 집중훈련)

본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되며 집중적인 언어훈련을 통해 생활중국어는 물론 성경, 전도, 찬양 등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할 수 있도록 함.

교육내용

- 1학기(8주)/** 초급중국어1·2, 선교중국어 기본어휘, 사도신경, 주기도문,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2학기(6주)/ 중국어성경, 회화(일반회화, 선교회화), 중국어찬양, 신앙독본, 중국어 특강, 청력 훈련

연구(중국문화 및 선교 연구세미나)

매주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회를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세미나 주제

중국선교개관, 중국고대사상, 중국공산주의 연구, 중국교회 현황과 선교전략 연구, 중국기독교사, 중국역사, 유교사상의 이해, 최근 정세변화에 따른 선교대책, 근대 중국선교사와 선교방법론, 한국에 있는 중국인 노동자선교, 산둥선교의 경험과 교훈, 중국의 종교정책, 중국의 교육제도, 중국선교사역에 임하는 자세, 조선족 현황,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협력방안 등

합숙(중국어 공동체훈련)

1회에 걸친 합숙훈련을 통해 강도높은 언어실습, 공동체 섬김 및 문화충격에 대한 적응능력 배양.

현지 연수과정 및 답사

언어실습, 문화적응, 선교비전의 확인을 위하여 98년 1월 중에 9주간에 걸쳐서 현지 언어연수(8주) 및 답사(1주)를 실시.

훈련기간

1997년 9월 1일~1998년 2월 28일(6개월)

수업일시

매주 월요일~금요일

문의 및 접수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 - 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TEL: 02) 535-4255, 594-8038
FAX: 599-2786
담당: 나은영 중무

중국어문선교회

중국선교훈련원(원장: 박성주 장로)은 중국선교를 위한 언어 훈련과 중국문화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 12 기 훈련은 98년 3월에 개강합니다

[[[소책자 소개

眞理的尋索

(Basic christianity 기독교의 기본진리)

존 스토티(J.R.W. Stott) 저/ 시에쯔위(謝志偉) 역/ CCL(복음증주협회)
간체자(簡體字)판



존 스토티는 중국 대륙 성도들의 충애를 받는 얼마 안 되는 서구 신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의 저서는 중국 성도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듣고 있다. 저자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존재했던 역사를 시작으로, 성경의 증거와 역사적 근거 및 권위있는 언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권한다. 이는 기독교의 본질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이다.

중국 성도들이나 국내 중국인(근로자, 유학생)들을 위해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은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를 방문하셔서 구입하십시오. CCL 협력부는 이 외에도 중국 성도들의 신앙 성장에 필요한 소책자와 문서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책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중국서고 소개자 시리즈

- | | |
|--------------------------------|--------|
| 1. 사회주의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조나단 차오 저 | 1,500원 |
| 2. 중국어성경 번역소사/ 中文聖經信譯會 저 | 1,500원 |
| 3. 만남/ 中國教會中心 저 | 2,000원 |
| 4. 전도중국어/ 중국어문선교회 교육부 역 | 1,500원 |

중국어 학습 교재

- | | |
|--|---------|
| 1. 使徒信經, 主禱文 외 (Tape:1,000원) | 2,000원 |
| 2. 經文背誦 (Tape:1,000원) | 1,500원 |
| 3. 神愛世人 (Tape:1,000원) | 2,000원 |
| 4. 我的第一本聖經 (Tape:1,000원) | 2,500원 |
| 5. 信仰讀本
(Tape 2개:2,000원) | 5,000원 |
| 6. 中國語 신약성경(和合本/한어병음 표기)
(Tape 19개:25,000원) | 10,000원 |
| 7. 中·韓 주제별 성경암송 카드(60구절:네비게이토 출판사) | 700원 |
| 8. 중국어 친구약 성경(번체자, 주음부호)
(Tape 72개:72,000원) | 25,000원 |
| 9. 중국어 찬양 Tape | |
| ◆ 耶和華是我的牧者(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 4,000원 |
| ◆ 我的中國心(나의 중국 마음) | 4,500원 |
| 10. 漢語入門 40課 | 6,000원 |
| 11. 종합선교중국어 | 8,000원 |
| 12. 新歌頌揚
(Tape 10개:5,000원) | 10,000원 |

위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교재들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입방법: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경우 우편발송이 가능하오니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우편으로 신청하실 때는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편요금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문의: TEL. 02) 535-4255 FAX. 599-2786(담당 김수미 간사)

동아시아 선교회 EAM(East Asian Mission)

EAM은 1984년 소수의 재미교포 대학생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선교제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결실로, 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사역을 위해 미연방정부 비영리 교육문화 사회법인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1989년 한국후원회가 결성된 후, 1992년 7월 한국에서도 동일한 정신으로 복음주의적 초교파 기독교 기관으로 설립되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현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여 왔으나, 사역의 방향을 확대하고 보다 적극적인 선교적 자원의 발굴과 세움을 위하여 금년부터 공개적 사역을 위해 EAM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AM은 아시아 주요지역의 산속한 복음화 및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건전한 교회의 설립을 위해서는 현지인 사역자들을 발굴, 그들을 잘 성장시켜 섬기도록 돕는 일이라는 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현지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본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 현지 중심의 제자훈련과 단순화된 신학교육을 통한 교회지도자 양성
2. 현지 교회 지도자 양육을 위한 신학교재 개발 및 출판
3. 각 학교와 교회들을 중심으로 선교연구, 기도모임 운영
4. 단기 선교학교, 단기 현지적용 선교훈련 프로그램 운영
5. 지도자 양육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 발굴 및 훈련 파송 (선교훈련원 운영)

EAM을 섬기는 분들

고문/ 신복운
자문위원/ 이원철 정동구
이사장/ 정화영
부이사장/ 오덕교
감사/ 이병식
실행이사/ 구자우 김정우 문성배 박영선
 박은조 박초영 박혜자 안대욱 오덕교 유영기
 이경란 이성희 이천성 정삼지 정화영
위원장/ 안대욱
선교사/ 현지: 김영인 김경수 서정현
 안대욱 문경숙 하애인
 본부: 정현진 이미숙
협동선교사/ 현지: 이주명 천연량
 신요한 채하경
 본부: 김영식 임미숙 이기도 고명자
총무/ 정현진
간사/ 조안나 박화빈 박인철
협동간사/ 이기도 문선일

EAM의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모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본동 948-16 상일빌딩 5층
 ☎ 02-878-3750, 878-3751 (FAX겸용)

큐티가 어렵다고요?

승리의 생활

승리의 생활로 큐티를 시작해 보세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QT
승리의 생활에는.....

- 1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세계선교정보와 선교회 소식 및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싣고 있다.
- 2 성경 본문과 묵상기록란이 나란히 위치해 있어 묵상하며 기록하기 좋다.

- 3 묵상 질문과 묵상 정리가 있어서 큐티 초보자들과 신앙 초년생들에게 말씀 묵상하는 법과 함께 성경의 풍부한 메시지로 인도해 준다.
- 4 시, 예화, 묵상을 위한 글, 신앙간증, 칼럼, 영화평 등 신앙생활을 일깨워 주는 다양한 장르의 글들을 싣고 있다.
- 5 꾸준히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읽기표가 되어 있다.



기독교 문서 선교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83-2(137-063)
TEL: 586-8761~3 FAX: 523-0131

중국을 주제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7년 5·6월호(통권45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집위원/ 감성광·김중선·김중하·김피득
왕쓰웨이·지인성·한수애(가나다 순)
편집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이민선
권수영·김은화·안정숙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이준석

중국을 주제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7년 4월 20일
인쇄처/ 신구인쇄(T: 02)275-5968)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T: 0344)906-9191 ~ 4)

과/ 4,500원
(1년 정기구독 24,0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CCL 협력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 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 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전자 우편을 통해 보내주시시오

☆ PC 통신 천리안, 아이넷

sinim

덩샤오핑과 '만만디' 중국

지난 2월 19일 덩샤오핑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른 생각보다는 먼저 「중국을 주제로」가 이 사건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부터 앞섰다. 이전부터 덩의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외신 보도와 가끔씩 들리던 사망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료 수집과 원고 청탁을 미리미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덩이 죽자마자 한국의 신문, 방송들은 앞다투어 기사를 작성하고 중국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집방송을 내보내기에 바빴다. 늘 일이 닥쳐야 움직이는 조급함은 한국인들의 특징이던가.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역시 이번호 특집을 "덩 사후의 중국과 중국선교"로 기획하면서 자료수집, 원고청탁, 좌담회 준비 등으로 매우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다. 게다가 덩 사후 중국선교의 전망에 대한 문의전화까지 쇄도하여 이래저래 정신없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분주함과는 달리, 덩의 죽음을 맞은 중국은 예상외로 담담하고 조용하기만 하다. 덩 사후 최고지도자 계승과 권력투쟁의 가능성에 대한 소식도 간간히 들리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큰 동요는 없는 듯하다. 중국인들 역시 별다른 변화없이, 덩이 시작하고 추구해온 경제발전의 목표를 향해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중국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평정은, 바로 덩샤오핑 스스로가 자기 이후의 중국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미리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일찌감치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 장쩌민을 후계자로 삼음으로 권력투쟁으로 인한 혼란을 미리 막았던 그였다. 조급히 후계자를 정하여 사후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마오쩌둥에게서 덩은 큰 교훈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아몽든 개혁개방의 총설계사 덩샤오핑은, 자기의 죽음마저 미리 준비하는 신중함으로 우리에게 '만만디 중국인'의 위대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이번 덩샤오핑의 죽음을 보며,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반응을 보며, '만만디' 기질대로 중국을 사용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본다. 수천 년 동안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가, 역사의 가장자리로 전락했던 중국. 이제 서기 2천년을 바라보며 다시 역사의 중심으로 달려가는 새 시대의 중국은 어떤 모습으로 웅장하게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그 날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것인가.

「중국을 주제로」 편집위원 선임

올해로 창간 8주년(1989년 창간)을 맞은 중국선교 전문지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과 중국선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의 글들로 중국선교 헌신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주제로」는 더욱 정보화와 전문성을 갖춘 잡지로 발전하기 위해 현지 사역자와 국내 중국선교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집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앞으로 편집위원들이 전하는 현지의 생생한 소식들과 심도 깊은 글들로 중국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외 정기구독료(1년)

항공우편

1지역	일본, 홍콩, 대만, 마카오 책값 24,000원, 우편료 10,950원, 합계 34,950원
2지역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3,950원, 합계 37,950원
3지역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뉴질랜드, 네덜, 파키스탄 책값 24,000원, 우편료 18,150원, 합계 42,150원
4지역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아시아 책값 24,000원, 우편료 19,050원, 합계 43,050원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제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국을 주제로

중국을 주제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 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의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잡지입니다.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4.1-1998.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우 편 엽 서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4.1-1998.3.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보내는 사람

전화

-

받는 사람

중국을 주제로 편집부 앞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137 - 069

중국을 주제로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신청요령

정기구독 및 주소를 변경하실 분은 신청서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전화(02-592-0132, 02-533-5497)를 주시면 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을 신청하신 분은 아래로 대금을 입금하신 후, 반드시 전화주십시오
시중은행 99번 창구/ 지로번호 7602362(정기구독으로 표시)
국민은행/ 008-01-0454-178(예금주: 박성주)

독자카드(1997년 5, 6월호)

귀하의 의견은 「중국을 주제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다?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서

1.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하십시오.

신규구독 재구독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1년 24,000원(6권) 2년 48,000원(12권) 3년 72,000원 (18권)

 년 월 일 위와같이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이름	(남, 여)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 -)	(통 반)	출석 교회
주소변경	회원번호			
	변경주소 (우 -)	(통 반)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으십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혀지기 원합니다.**

희어진 발,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6권) 구독료 24,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시십시오.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처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까 함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정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